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2008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2008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 06.30-07.06 |

| 07.07-07.13 |

| 07.14-07.20 |

| 07.21-07.27 |

| 07.28-08.03 |

- | | | | | |
|--|---|--|--|--|
|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 1. 대내정세 — 1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 1. 대내정세 — 3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 1. 대내정세 — 52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교육·문화
관련 | 1. 대내정세 — 7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
| 2. 대외정세 — 11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 2. 대외정세 — 23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 2. 대외정세 — 43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 2. 대외정세 — 63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 2. 대외정세 — 87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
| 3. 대남정세 — 14 | 3. 대남정세 — 28 | 3. 대남정세 — 45 | 3. 대남정세 — 71 | 3. 대남정세 — 96 |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8

1주차

| 08.04-08.10 |

1. 대내정세 — 10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주차

| 08.11-08.17 |

1. 대내정세 — 12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3주차

| 08.18-08.24 |

1. 대내정세 — 142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4주차

| 08.25-08.31 |

1. 대내정세 — 156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14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2. 대외정세 — 133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2. 대외정세 — 150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52
3. 대남정세 — 164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67
3. 대남정세 — 121

제2권 제4호 · 2008
월간 **북한동향**

인 쇄 2008년 9월
발 행 2008년 9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권혜진 연구원

등 록 제2-02361호(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대인인쇄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30-7.6

7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자강도 자연보호구 등 시찰(7/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화평군에 있는 오가산 자연보호구와 화평군 민발전소 등 “여러 부분의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자로 보도
- 김 위원장은 오가산 자연보호구에서 천연기념물 등을 둘러보며 자연보호구 보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잘하기 위해 “조림계획을 바로 세우고 나무에 대한 비배(재배)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이어 화평군이 자체 건설한 화평군민발전소의 내외부를 돌아보고 “군은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이라며 “화평군의 경험은 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의 원천과 잠재력을 옹게 이용한다면 군 자체로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며 국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민생활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언급
- 시찰에는 박도춘 노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남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美 식량지원은 김정일 ‘전승품’ 선전(제160호, 오늘의 북한소식; 7/6, 연합)

- 북한 당국은 최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승품’이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6일 보도, ‘오늘의 북한 소식’ 제160호에서 평양시의 한 간부 말을 인용,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금 지정의 해제, 식량지원 등은 “봉쇄에는 자력갱생, 전쟁도발 위협에는 전시 준비상태로 강경하게 맞서 싸워온” 김 위원장의 “전략적 방침의 승리라고 도처에서 선전하면서 미국의 지원은 전승품이라고 강연하고 있다”고 설명

■ 위커 前사령관 동상 건립추진 비난(7/5,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6.25전쟁 중 숨진 월턴 위커 초대 유엔 지상총사령관의 동상 건립 추진에 대해 “미제에 의해 원한 품고 쓰러진 수백만 우리 동포형제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못할 친미 매국행위”라고 비난

■ 조평통, 南정부 대북정책 비난(7/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상보)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5일 상보를 발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 책동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룩한 성과들이 깃뚫히고 북남관계가 얼어붙고 있다”고 주장
- 조평통은 상보에서 현정부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방침에 대해 “무지”라고 주장하면서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조(북)·미 사이에 논의할 문제이고 또 현재 그것을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 조평통 서기국은 6·15공동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통한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간 열차 운행, 이산가족 면회소 준공식, 백두산 관광사업 등 성과를 소개하면서 “역적패당의 북남관계 단절책동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진행하게 되었던 제2차 북남총리회담과 부총리급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비롯한 20여건의 북남대화와 협력사업이 모두 파탄됐다”고 지적
- 또 이명박 정부가 “당국 사이에 합의된 북남협력사업도 모조리 잘라냈다”며 이로 인해 철도·도로 개보수와 올림픽 공동응원단 파견 등이 무산됐고 “지난 3월초에는 남조선의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측의 현지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측이 군사적으로 참여한 동해안 육로와 해안선 통과까지 허용하는 성의를 보였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주장

■ 北, 6·15, 10·4선언은 7·4성명 계승(7/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우리 민족끼리)

- 북한 언론매체들은 4일 7·4남북공동성명 채택 36주년을 맞아 7·4성명 채

- 택을 고 김일성 주석의 ‘영도’에 의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6·15공동선언 및 10·4남북정상선언과 연결시킴.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중시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미언급
- 조선중앙통신은 ‘불멸의 통일대강 조국통일3대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7·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담았으며, 이 3대 원칙엔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사상과 방침, 조국통일 영도 업적이 집대성”돼 있다고 강조
 - 조선중앙방송은 ‘조국통일의 역사적 국면을 열어나가시던 나날에’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 당국이 1972년 5월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2개월 뒤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7·4공동성명을 발표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
 -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냈다”고 방송은 말하고 김일성의 ‘통일유훈’을 김 위원장이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통일정책이 김일성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침.

■ 강성대국 건설 전망 강조(7/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일 “강성대국의 설계도는 혁명의 수뇌부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을 거듭 강조
- 매체는 ‘강성대국 건설의 담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비범한 영도력은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담보”라며 김 위원장을 “창조와 건설의 영재”라고 치켜세움. 북한에서 “혁명의 수뇌부”는 김 위원장을 가리킴.
- 또 “강성대국 건설은 영도자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친 천만 군민(軍民)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단결을 거듭 강조

■ 미국의 “종교침투” 경계(2008년 5월호, 천리마)

- 천리마는 “조금이라도 미제의 종교침투 책동을 허용하면 자기도 모르는사이 자주정신이 흐려지고 신념이 흔들리게 되며 종당에는 삶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사회제도도, 삶의 터전인 나라도 지켜낼 수 없게 된다”고 주장, 천리마 5월호는 ‘무엇을 노린 종교선전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의 악

랄한 심리모략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집요한 종교침투 책동”이라며 “미제는 종교적 침투를 통해 인민들의 자주적 신념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놓으려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매년 새 디자인 아동복 80여종 생산(7/5,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 아동복공장인 평양어린이옷공장에서는 종업원 모두가 디자인 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마다 80여개 형태의 새 옷을 생산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최근 시기 이 공장의 어린이옷들은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며 “공장의 직장, 작업반, 재단반, 주문반, 준비실들에 소속된 종업원 모두가 어린이옷 형태 도안(디자인)을 창작해 제품 품평회에 제출”한 결과라고 소개
- 제품 품평회는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을 비롯한 공장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매달 한번 개최하고 품평회에서 합격한 디자인은 대량생산에 들어가며, 디자인을 제출한 종업원은 과학기술시상금을 받음.

■ 北, 돈 벌려고 中 산업쓰레기 처리(7/3,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1997년 대만에서 핵 폐기물을 들여와 매립하려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서 산업쓰레기를 들여와 처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북한은 중국어 웹사이트에 올린 광고에서, 플라스틱과 전자제품 등의 산업쓰레기를 북한에 보낼 업체를 찾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북한은 또 폐기된 자동차 배터리와 선박, 폐지를 팔 업자를 찾고 있으며, 원하는 수량은 200t 이상이고 도착항은 남포항이 될 것이라고 광고에서 밝힘. 광고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소재한 한 업체를 대리상으로 한다고 아울러 밝혔으며 이 광고는 지난 2월 13일 처음 웹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짐.

■ 이집트 오라스콤, 대북 시멘트사업 투자 중단(7/2, 자유아시아방송)

- 2007년 북한의 시멘트 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이집

트의 오라스콤 회사가 5개월 전부터 이 투자를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한편 최근 평양 류경호텔의 공사 재개와 관련, 오라스콤이 이에 투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라스콤측은 회사 차원에서선 무관한 일이라며 “아마 경영진이나 그 가족 중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北상반기 경제 계획 초과 달성(7/3, 평양방송)

- 북한은 올해 상반기 ‘인민 소비품’ 생산과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비롯한 경제 각 부문에서 당초 계획을 초과해 달성했다고 평양방송이 3일 보도
- 평양방송은 “연초부터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 올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상반기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면서 소비재 생산을 담당하는 편직, 비단, 방직기계, 일용공업관리국에서 각각 계획대비 117%, 116%, 105%, 104% 등을 기록했다고 보도
- 방송은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함흥영예군인(상이군인)수지일용품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에서 “생산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최대한 발양시키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계획보다 많은 인민 소비품을 생산했다”고 주장
- 또 전력은 105.9%, 석탄은 광산별로 101.7~107.2%, 철도 수송은 100.3%, 자동차 수송은 112.2%, 수출입 화물선 수송은 109.1%, 국내 화물선 수송은 112.1%, 무역항 통과량은 106.1% 등의 초과달성 기록을 세웠다고 방송은 보도

■ 北, 1인 하루 배급량 150g 불과(7/3,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의 구호단체들이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식량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배급량이 본래 1인당 하루 600g이 돼야 하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줄어들어 현재는 단지 150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6월 11일부터 식량실태 조사를 벌인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로 구성된 유엔 실사단은 “동북부 도시 지역에서 기근 초기 징후들이 발견됐다”는 예비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재활용 철재로 남포 화물부두 건설(6/25, 민주조선)

- 북한은 철강재를 재활용해 남포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완공했다고 민주조선이 보도, 남포항만건설관리소의 리응철 지배인은 민주조선 기고문에서 화물부두 장소를 정한 뒤 수차례의 설계 합평회와 심의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했지만 “우리 앞에는 엄청나게 요구되는 자재를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나섰다”고 회고하고 “막대한 양의 자재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술”을 고심한 끝에 “이미 폐기돼 버린 주변의 낡은 공장터에서 나오는 적지 않은 양의 철강재를 회수해 선별, 이용하고 여러 곳에 사장되어있는 철강재를 동원·이용”하여 완성했다고 밝힘.

라. 군사 관련

■ 北조평통, 제2연평해전 기념식 비난(7/3, 조평통서기국)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3일 제2연평해전 6주년 기념식을 “반공화국 광란극”이자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보도를 통해 기념식에 대해 “남조선 인민들속에서 높아가는 화해와 단합, 연북통일 기운을 억누르고 동족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고취하며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며 용납못할 반통일 범죄행위”라고 주장

마. 사회·문화 관련

■ ‘모범 근로자’ 평양 견학(7/5, 조선신보)

- 북한의 각 지방에서 선발된 ‘모범’ 근로자들이 1일부터 평양견학을 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5일 보도, 신문은 평양 견학은 해마다 진행되는데, 이번 견학에는 지방의 공장·탄광·광산에서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근로자와 모내기에서 모범적인 농장원, 어로공(어부), 유벌공(땃목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보도
- 이들은 7일간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조선혁명박물관, 조선역사박물관, 건축물, 교예극장, 유희장 등을 돌아보며 휴식을 취하게 됨.

※ 북한에서는 지방 주민이 평양을 방문하려면 인민보안성 등 관계기관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평양 견학이 큰 자랑거리의 하나가 되고 있음.

■ 北여름 보양식 '단고기'와 '자라요리' (7/5, 조선신보)

- 북한에서 '단고기' (보신탕)와 '자라요리'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방북하는 재일동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소개, 신문은 먼저 남한에도 꽤 알려져 있는 평양시 통일거리의 '평양단고기집'을 들어 "옥류관이 평양냉면의 원종장(원조)이라면 평양단고기집은 단고기 요리의 원종장으로 일러진다"고 소개하면서 "이곳 식당은 지금까지 70여가지 단고기 요리를 개발했다"고 보도, 신문은 손님들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철에 가장 많이 찾고 있으며 하루에만도 2천명가량이 찾고 있다고 소개
- 조선신보는 단고기와 함께 주목받는 보양식으로 평양시 보통강변의 보통강전시장 3층에 있는 식당이 2005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자라요리를 꼽음. 특히 '자라 일식요리'는 살아있는 자라 한 마리를 요리해 코스요리로 내놓고 있는데 4명이 "푸짐히" 먹을 수 있다고 설명

■ 北 일부 100mm 강수...장마 본격 시작(7/4, 연합뉴스)

- 7월 2일 새벽부터 3일 낮까지 일부 지역에 100mm를 웃도는 비가 쏟아지는 등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고 류기렬 북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장이 4일 발표

■ 北학생들, 국제러시아어경연 제패(7/4, 조선중앙통신)

- 평양외국어대학 부속 외국어학원 학생들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2차 국제학생 러시아어 올림픽에서 종합1위를 차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경연 과정에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자기들의 희망과 미래에 대해 실감있게 이야기함으로써 높은 정신세계와 어학실력을 보여줬다"고 강조

■ 北, 中올림픽 11개종목 63명 출전(7/4, 조선신보)

- 북한이 8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29회 올림픽경기대회에 모두

11개 종목 63명의 선수들을 출전시키기로 했다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 10대 바둑고수 바람(7/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월 24~30일 평양 청춘거리 '태권도전당'에서 열린 제11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바둑경기가 "신진선수들의 대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도

※ 북한은 최근 유치원부터 바둑을 통한 지능교육을 강조해온 결과 10대, 20대 유망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신문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5~26세 바둑선수 130명이 출전, 2007년 75명에 비해 크게 증가

■ 北, 對南 접촉자 조사...南물품 단속(7/6, 연합: 제160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이 남측과 접촉한 주민들을 조사하고 한국산 차량, 상품 등 물품을 단속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4일 주장, 오늘의 북한소식 160호에서 "평양에서는 요즘 '10·2(10월 2일) 검열 그루빠(그룹)들이 구역마다 다니면서 비(非)사회주의 사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열 그루빠는 컴퓨터와 녹화기 등이 있는 집들에서 한국산 씨디(CD)가 있는지 주로 검열한다"고 설명하고 "컴퓨터는 본체를 들고가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해 한국관련 영상물이나 자료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또 "평양시는 6월 초순 한국산 차량이 시내에 다니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한국산 차량은 한대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지방에 내려보내겠다며 보이는 족족 몰수하는 분위기"라고 말하고 이때문에 "한국산 차량을 운행해 오던 특수 기관, 기업소나 단체 등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덧붙임.

■ 상습 홍수피해 北, 장마 대책에 총력(7/2, 조선중앙통신)

■ 조선신보, 남북 월드컵본선 동반진출이 이상적이라고 기대(7/2, 조선신보)

- 남북한이 나란히 월드컵축구 최종예선 B조에 포함된 데 대해 조선신보는 2일 "이왕이면 3단계(3차) 예선 때처럼 북남이 당당히 1, 2위를 차지하면 이상적"이라고 기대, 신문은 '본선의 대문'이라는 단평에서 "본선 동반 진출을 위해서는 북과 남이 다른 조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주장

■ 새단장 대동문영화관 '나들이 명소' (7/2, 조선신보)

- 최근 새 단장을 마친 대동문영화관이 평양시는 물론 지방의 주민들로부터 '나들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평양시 중구역 승리거리에 있는 53년 전통의 이 영화관은 최근 완료된 현대화 사업으로 연 건축면적이 배로 늘었고 1층에 2개의 관람홀과 도서판매대를, 2층에 사진 전시홀, 영사실, 컴퓨터 조종실 등을, 3층에 미술작품 전시홀을 갖췄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6월 초 대동문영화관을 방문했으며 6월 12일 개축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린,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석

■ 평양은 지금 '공사중' (6/30, 연합)

- 3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시작된 '평양시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에 맞춰 2007년 연말부터 '국제도시화 계획'을 추진, 현재 상업거리 조성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2002년 1월 시작된 평양시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동강변 미화, 주택 리모델링, 주요시설 조명 교체, 도시 인프라 정비 사업 등이 진행

■ 북한에 '개인 소상공업' 확산(6/30, 연합)

-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수공업, 무역업 등 개인 소상공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03년 3월 북한당국의 '시장 장려 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돈벌이를 위해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1~8명 미만의 개인 소상공업이 점차 늘고 있음.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북핵 6자회담 11~12일째 개막 예정(7/6, 연합)

-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핵 수석대표회담이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7~9일)가 끝난 직후인 이번 주 후반에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며 “의장국인 중국이 참가국들의 의견을 조율해 7일째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
 - 당초 중국은 6자 수석대표회담을 10일 개최하는 방안을 참가국들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에서 G8 일정을 감안해 하루 이틀 정도 늦춰 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일이나 12일째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는 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 주로 협의하고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과 3단계 핵폐기 일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
 - 6자 수석대표 회동에 앞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음. 에너지 실무그룹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9일이나 10일째 베이징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을 기다리며 2007년 10월 초 제6차 2단계 회의 이후 9개월여 간 열리지 않았음. 북한은 6월 26일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였음.

■ 北, 6자 의무이행 완결돼야 다음단계 논의(7/4, 외무성대변인)

- 외무성 대변인은 4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10·3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결해야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히 완결돼야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단계 문

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기본요구이고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 그는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는 현재 80%이상 진척됐고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할 데 대한 합의사항도 이행했다”며 “시험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무력화를 초월하여 냉각탑을 폭파해버리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상기 시킨.

-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핵신고서를 검증하는 데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

나. 북·미 관계

■ 北, 북미관계 변화...평화협정 체결주장(2008년 7월호, 금수강산; 7/4, 내나라)

- ‘금수강산’ 7월호가 북미관계 변화를 거론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 4일 ‘내나라’에 따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될 수 있고 조(북)미 사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보장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은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中외교인원북무국 대표단 방북(7/4, 조선중앙통신)

- 중국 외교부 산하 외교인원북무국대표단(단장 전홍산 국장)이 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시진핑, 訪北때 항공유5천t과 1억위안 제공(7/4, 연합)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북 선물로 북한에 항공유 5천t과 인민폐 1억위안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언급했으며 북한에 대한 원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상무부에서도 4일까지 대북식량원조를 위한 입찰공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라. 북·일 관계

■ 재일본 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방북(7/4, 조선중앙통신)

■ 조선신보, 日의 대북정책 변화 기대(7/1, 조선신보)

-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착수 이후, 일본 “국민 사이에서 그(해제) 이전에 일본이 현안을 풀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가 대조선(북한) 협상에 보다 능동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일 주장
- 신문은 ‘피할 수 없는 아베식 납치외교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또 “납치문제에 관한 논의는 있어도 조선과의 대화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변화”라고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신문은 또 핵신고서에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을 “생트집을 잡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실험 후 재개된 6자회담에선 “우선 핵무기를 제외한 조선의 현존 핵계획 포기과 이에 상응한 미국의 행동조치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일본을 포함한 각측의 양해사항”이었으므로 “현 단계의 핵신고에 핵무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대표단, 차베스 대통령 면담(7/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형준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7월 3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5일 보도, 방송은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제7차 비동맹국 공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북한 대표단을 만났으며 차베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네수엘라와 조선(북한) 사이의 친선 협조관계는 좋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10월 수교하고도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2002년 3월 박동춘 쿠바주재 북한 대사가 베네수엘라 주재 북한대사 겸임 발령을 받았으며 2006년 4월에는 로시오 곤살레스 대사가 북한에 부임

■ 北리찬호 나이지리아대사·가나대사 겸임(7/3, 평양방송)

- 리찬호 가나주재 대사가 6월 25일 존 쿠푸오르 가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평양방송이 3일 보도, 리 대사는 2007년 9월부터 나이지리아 대사도 맡고 있음.

■ 北인민보안상, 라오스 국가주석 면담(7/1, 조선중앙통신)

- 라오스를 방문 중인 북한의 주상성 인민보안상이 6월 28일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주석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인민보안성 대표단은 6월 24일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으며 베트남에서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을 면담한 후 27일부터 라오스를 방문 중임.

■ 北·라오스, 법률협조조약 체결(6/30,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라오스가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협조조약을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이날 조인식에서는 라오스를 방문중인 북한 윤명국 중앙재판소 제1부소장과 켓 키엣티삭 라오스 법무부 차관이 각각 서명했으며, 라오스측에서는 법무장관, 최고인민재판소 소장, 최고인민검찰소 소장 등 사법·검찰부문 수뇌들이 대거 참석

3 대남정세

■ 개성공단 '온라인 출입신청시스템' 가동(7/5, 연합뉴스)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온라인 출입신청시스템'을 구축, 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발표

- 관리위는 앞서 6월 한달간 개성공단에 입주한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7일부터 개성공단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하고 향후 이 시스템을 통일부 전산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

■ 금강산 소방서 8일 개소(7/4, 연합)

- 4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금강산 소방안전대책의 하나로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옆에 소방서를 설치키로 하고 2007년 9월 공사에 들어가 8일 준공, 연면적 89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금강산 소방서'에는 사무실과 차고, 구급대기실, 휴게실 등이 들어서며 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등 소방차 3대와 소방장비를 갖추게 됨.
- 소방서에는 전직 소방대 출신의 대원 8명과 소방대장 등 9명이 근무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 통일부장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 확고(7/3,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일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힘.

■ 정부, 민간 대북정책사업 43억원 지원 의결(7/3, 연합)

-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하중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20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올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 정책사업에 남북협력기금 4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지원 대상 사업과 금액은 결핵관리 사업에 10억원, 의료인력 교육사업 10억8천500만원,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사업 10억원, 산림녹화 시범사업 12억5천만원 등 4개 사업에 43억3천500만원임.

■ IOC, 남·북에 北京올림픽 공동입장 요청(7/1, 연합)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남·북 올림픽위원회에 각각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을 요청한 것으로 1일 파악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우리 측에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을 요청해왔다"면서 "IOC가 북한 올림픽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공동입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북측 올림픽위원회와 접촉, 이런 의사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발표

■ 北, 남측 옥수수 5만t 거부(6/30, 통일부)

- 정부는 6월 제안한 대북 옥수수 5만t 지원에 대한 북측 입장을 최근 재차 문의했으나 북측 실무자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통일부가 30일 발표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옥수수 지원 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을 문의했으나 북측 실무자는 ‘안 받겠다’고 답했다”고 전달
-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은 (옥수수 지원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전통문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

■ 개성공단 한 업체, 北직장장과 마찰…장기휴업(6/30, 연합뉴스)

- 북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북측 직장장 및 관리 당국과의 갈등 속에 20일 가까이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됨.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6월 7일 공단 입주업체 B사 직원과 B사의 북측 직장장(근로자 대표)이 소모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남·북측 관계자들 간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B사는 남측 직원이 폭행당했다면서 북측의 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직장장 교체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일부터 임시휴업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7.7-7.13

7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김일성 묘소 참배(7/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김일성 주석의 14주기(周忌)를 맞아 북한군 간부들과 함께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은 김 위원장이 “동행한 군대의 지휘 성원들과 함께 김일성 동지께 경의를 표했다”며 김격식 군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수행했다고 보도
- ※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김 주석의 96회 생일을 맞아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으나, 기일을 맞아 참배한 것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은 2005년 7월 이후 3년만임.

나. 정치 관련

■ 北, 李대통령 시정연설 “일고의 가치도 없다”(7/13,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한 남북관련 제안에 대해 “새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아래 것들이 떠들어오던 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 제하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6·15 및 10·4선언 이행을 북측과 협의가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그것을 과거의 북남합의들과 뒤섞어 어물쩍하여 넘겨버린 것”이라고 지적
- 신문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오히려 “(6·15 및 10·4)선언의 의의를 약화시키고 그 이행을 회피하려는 가소로운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느니 뭐니 했는데 실천방도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 선언을 제쳐놓고 또 무슨 협의가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반박하고 “이명박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

- 는 서툰 말장난을 그만두고 온 민족앞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에서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
- 신문은 이 대통령의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북남선언들을 뒤집어엮고 6·15이후 북남사이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백지화하며 북남관계를 탄 데로 끌고가 보려는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면서 ‘실천의 시대’를 떠드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주장
 - 이어 이 대통령이 한 “북의 비핵화 최우선”,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 등 북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의 주장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며 “범죄적인 비핵·개방·3000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다 악랄하게 추구해 나가려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결국 괴뢰역도가 이번에 ‘전면적인 대화재개’를 운운하였지만 그것은 속에 없는 빈말이며 그들의 대결적인 대북정책에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더욱 더 악랄하게 도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이명박 역도의 반통일적 입장과 대결적 정체가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고 주장

■ 北, 금강산관광, 남북 화해에 큰 기여(7/1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금강산관광의 의의와 성과를 “금강산관광은 북남 경제협력의 대명사로 민족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게 됐으며,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
- 매체는 이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해온 자랑스런 역사’라는 기획 시리즈 40회로 ‘뜨거운 사랑 속에 열려진 금강산 관광길’이라는 글을 싣고 금강산관광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큰 관심 속에 이뤄졌음을 거듭 주장했지만 이번 피살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매체는 “세계의 명승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 모두가 와보게 해 조선민족된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뜻이었다며 1998년 11월 첫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은 데 이어 6·15공동선언 채택으로 관광이 더욱 확대됐다고 보도, “금강산을 단순히 관광을 위한 금강산이 아니라 북과 남, 해외를 잇는 무지개다리, 온 민족이 만나는 통일오작

교로 되게 하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도였고 “(김 위원장의) 정력적인 영도가 있어 금강산관광사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됐다”고 설명

- 매체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또 “남쪽에서 자주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구태여 상호주의라고 한다면 서로 배워주고 도와주는 원칙에서의 상호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두 제도가 존재하는 기초 위에서 공존, 공영, 공리를 하자는 것이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남쪽에 강요하거나 먹이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현대’에서 제기한 금강산관광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김 위원장은 이어 2005년 7월 16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만나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이 열어놓은 북남관계를 (현대)가문은 대를 이어가면서 잘해나가야 한다”며 “나는 북남관계에서 ‘현대’가 그 어느 기업보다 모범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고 소개

■ 김정일, 조부 묘에 화환(7/11,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형직의 114돌 생일에 즈음해 10일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에 있는 동상과 만경대에 있는 묘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기남 당 비서,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곽범기·태종수 내각 부총리,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등도 화환을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 노동신문, ‘南에 남북관계 위기 책임’ 주장(7/8, 노동신문)

- 8일 김일성 주석의 14주기를 맞아 게재한 사설에서 “조국통일은 김 주석의 유훈”이라면서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에 대한 투쟁을 주장
- 신문은 ‘우리 조국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부강번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공공연히 거부하면서 북남관계 발전을 엄중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

■ 北, 김일성 14주기 맞아 ‘영도업적’ 찬양(7/7,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4주기(8일)를 맞아 각종 회고모임과 기념행사를 진

행하며 그의 ‘업적’ 찬양에 각종 매체를 동원, 북한 매체들은 김 주석의 ‘영도 업적’을 찬양하는 동시에 “영생하는 김일성 동지의 뜻을 받들어” ‘유 혼 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도 강조

다. 경제 관련

■ 北, 채권가격 금융위기 여파로 하락(7/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거래되는 북한의 채권 가격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방송은 현재 거래되는 북한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의 4분의 1 정도에 그친 1달러당 25센트인데 이는 6개월전 1달러당 32센트에 비해 20% 떨어진 것이라고 보도
- 방송은 “서방은행들은 북한에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돈의 일부라도 찾기 위해 1994년부터 채권을 만들어 팔았다”며 “북한이 서방은행에 갚아야 할 빚은 모두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

■ 北내각, 상업회의소 규정 채택(7/7,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이 최근 ‘상업회의소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민주조선을 인용, “이 규정에는 상업회의소의 사명과 대외 경제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이 규정의 적용대상 그리고 상업회의소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있다”고 소개했지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통신은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제 및 다른 나라 민족상업회의소, 무역촉진단체와 교류, 협조를 실현하고 대외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덧붙임.

※ 북한은 2000년 평양상업회의소를 설립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가입했으며 2005년부터 ‘조선상업회의소’라는 새 이름으로 대외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규정 채택은 그동안 활동해오던 상업회의소를 공식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라. 사회·문화 관련

■ 사리원·청진 당일 최고기온 경신(7/9, 조선중앙TV)

- 북한에서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9일 황해북도 사리원이 33.6도, 함경북도 청진이 31.5도까지 올라 기상관측 이래 당일 최고기온을 기록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北장애인기구, 세계농아연맹과 교류(7/9, 조선신보)

-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6월 세계농아연맹(WFD) 대표단을 처음으로 초청해 농아 교육분야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세계농아연맹 대표단은 북한의 농아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흥농아학교, 성천농아학교, 강원도농아학교도 방문
- 조선신보는 한편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조선장애자예술협회와 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 설립하고 북한 전역의 특수학교에서 시험을 치러 예술과 스포츠에 소질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소개

■ 北프로복싱, 6년 만에 해외 원정(7/8, 연합)

- 프로복서 김이현(29)은 16일 태국에서 범아시아복싱협회(PABA) 플라이급 챔피언 라타노폴 소보라핀(33, 태국)과 타이틀매치(11R)를 진행, 여자 복서 박영화도 10일 같은 곳에서 우사나콘(태국)과 PABA 여자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결정전에 나섬.
- 북한은 평양, 금강산 등지에서 수차례 남북 프로복싱 대회를 개최, 이 때 최은순(28)과 류명옥(25), 김광옥(30) 등이 세계복싱평의회(WBC) 여자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지만 해외 방어전을 치르지 않아 '삼일천하'로 끝나곤 했었음.
- ※ 북한은 1992년 7월 북한 프로권투협회를 설립했고, 1995년 WBC와 1997년 세계복싱협회(WBA)와 PABA에 잇따라 가입하면서 세계 프로복싱계에 모습을 드러냄.

■ 옥류약수, 위염·간염 치료에 효과(7/7, 조선신보)

- 조선신보에 따르면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옥류관 부근에서 샘 솟는 옥류약수는 물맛이 좋을 뿐 아니라 몸에 좋은 각종 성분이 들어 있어 '무병 장수의 음료'로 통한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 10월까지 경제보상·무력화 병행(7/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베이징에서 6자 수석대표회담(7.10~12)이 열린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북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5자가 10월까지 100만 t의 중유에 해당하는 경제보상을 완결하는 데 병행해 무력화(핵 불능화)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 2007년 10·3합의 이행 정형(실태)을 평가하고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합의가 이룩됐으며 보도문이 채택됐다”면서 6자 언론발표문 내용에 대해 언급, 통신은 또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한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라 6자 틀거리 안에 각 측의 의무이행을 검증하는 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조선신보, 北 3단계 대비 비핵화 검증원칙 주장(7/13, 조선신보 인터넷판)

- 북한 대표단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7.10~12, 베이징)에서 “6자회담의 목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재강조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13일 보도
- 조선신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 “조선(북한)은 6자가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검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며 “즉,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를 위한 검증,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보도
- 신문은 “조선측이 이번 회의에서 제기한 검증논의는 10·3합의 이행 완결을

- 다그쳐야 할 시점에서 당장 착수할 과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조선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 체제의 구축과 직결되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놓고, 제3단계 (핵폐기) 문제 토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
- 신문은 이번 회담 언론발표문도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반영,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계 수립에 합의했다”면서 “핵신고서의 검증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검증체제를 내오게 됐다”고 평함.
 - 마지막으로 신문은 결국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게 실현할 데 대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기초해 조·미를 포함한 6자의 ‘행동 대 행동’을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됐다”고 분석
 - 아울러 “일본은 이번 단장회의에서도 6자 합의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면서 “(북·일) 교착 타개의 계기점을 마련해 놓고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신문은 비난

■ 6자, 불능화·에너지지원 10월까지 완료에 합의(7/12, 연합뉴스)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12일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
- 현안인 검증체제 마련과 관련,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3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과 이행은 앞으로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이와 함께 6자회담의 틀내에서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되는 감시체제를 수립하기로 결정
- 하지만 당초 미국측이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지원국 해제시한(8월11일) 이전 검증에 착수하는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못했음.
- 일본의 대북 중유 지원 참여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4개국도 일본의 지원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기로 함.
- 6자회담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은 사흘간 진행된 6자 수석대표회담을 결산하면서 이런 내용의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을 발표. 언론발표문은 서문과 6개 항목으로 구성

■ 한·미·일, 6자 수석회담(7/10, 연합)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6자 수석대표회담 개막을 앞두고 10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베이징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만나 회담 전략을 조율, 한·미·일 수석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8~9일 진행됐던 북·미, 남·북, 한·미 양자접촉 결과를 일본 측과 공유하는 한편 검증체계 구축,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 등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美 6자회담 수석, 베이징서 회동(7/8, 연합)

- 북한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격 양자회담을 갖고 10일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의의 의제 등을 사전 조율,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8일 오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회동, 북핵 신고서 검증 방안 등 차기 회담의 의제를 논의

나. 북·미 관계

■ 美, 北에 한미합동 군사연습 항의(7/10,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군은 10일 판문점에서 미군측과 대령급 접촉을 갖고 최근 미군 측이 판문점 회의장 구역에서 북한측의 임무수행을 방해하고,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도발행위”를 매일 같이 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은 “미군 측이 우리 측이 제기한 사건의 엄중성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회담의 성격에 맞지 않게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우리 측은 미군 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고 이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언급
- 방송은 이어 북한군의 판문점대표부 곽영훈 대좌(대령)가 “미군 측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대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도발자들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 美 조지아대, 北농대생 유학 추진(7/1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조지아대학이 북한의 농과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교육하는 대학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
- 스캇 앵글 조지아대 농대학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 4일간 방북해 농과대학 학생들을 미국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북한 관계자들과 논의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식량난을 단순히 농작물 증대라는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농업경제를 발전시켜 국제시장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장기적 목적”을 갖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앵글 학장은 조지아대가 북한의 농과대학에 실험기재와 연구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美 대북협상특사에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7/11, 연합)

-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할 대북 특사에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승진, 내정한 것으로 8일 알려짐. 이에 따라 성 김 과장은 곧 대북 협상특사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 한국과장은 커트 통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경제담당 보좌관이 맡을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발표

다. 북·중 관계

■ 北·中, 상호원조조약 기념연회 개최(7/11,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중국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47돌을 기념한 연회가 10일 평양 옥류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회가 마련한 이 연회에는 싱하이밍(邢海明) 임시 대리대사를 포함한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초대됐고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과 김영일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한 철 문화성 부상,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체결한 상호원조조약에서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전 상태에 놓이면 군사 지원에 나서도록 자동개입 의무를 규정

라. 북·러 관계

■ 北, 러시아 지원식량 신의주 도착(7/8, 평양방송)

-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7일 열차편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이 8일 보도, 방송은 이번 러시아의 대북 식량지원이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관계의 표시로, 우리 인민에 대한 고무로 된다”고 언급
- 앞서 러시아 외교부는 6월 18일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나섰다면서 “밀가루 2천860t이 6월 11일부터 북한으로 운송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WFP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

마. 북·일 관계

■ 日외상, 북에 '6자 합의 기만 말라' 경고(7/13, NHK)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13일 에너지와 경제 지원을 대가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최근 6자회담 결과와 관련, 북측에 이번 합의를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 고무라 외상은 “원하는 것을 얻은 반면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이익으로 간주한다면 큰 실수”라고 강조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교향악단, 9월 영국 공연(7/11, 미국의소리방송)

- ‘조선국립교향악단’ 이 오는 9월 17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감리교회도 중앙홀에서 공연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
-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을 추진중인 영국인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 씨는 160여명으로 이뤄진 악단이 9월 15일 런던에 도착해 17일 공연을 갖고 19일엔 영국 북동부의 소도시 미들즈브러에서 또 한차례 공연한다고 설명

■ 北신선호 유엔대사, 캐나다 대사 검직(7/6, 평양방송)

-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가 미카엘 장 캐나다 총독에게 6월 30일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평양방송이 6일 보도

3 대남정세

■ 정부, '금강산피살' 합동조사단 구성(7/13, 연합)

- 정부는 13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관련 통일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함. 합동조사단은 금명간 제1차 회의를 개최,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

■ 금강산 체류 관광객 13일 전원 귀환(7/13, 연합)

- 금강산에 체류 중인 남측 관광객 350명이 관광 일정을 마치고 13일 귀환함에 따라 금강산에 있던 관광객 전원이 철수함. 현재 금강산에는 남측 사업자와 현대아산 직원 등 1천500여명이 잔류하고 있으며 현대아산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일부 직원의 철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
- 반면 개성관광의 경우, 7월 12일 532명이 들어간 데 이어 13일도 동수의 관광객이 버스편으로 방북 길에 오름. 통상 개성을 방문할 수 있는 1일 관광객은 최대 560명 수준인데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예약 취소가 별로 없이 거의 만석을 기록 중임.

■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 발표(7/12, 연합)

- 북한의 금강산관광 사업 담당 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내고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에 "유감"을 표시했으나 우리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현장 조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피살된 관광객이 자신들의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한 점을 지적, 책임을 남측에 넘기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함.

■李大통령, 北에 "전면적 대화하자" 제의(7/11,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전

면적 남북대화를 제안,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행한 개원연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

-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과거 남북간에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또 “남북한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라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호혜의 정신에 기초해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

■ 50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7/11, 연합)

- 7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금강산 특구내 골프장 인근 해변가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여·53·서울 노원구)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짐. 당국과 현대아산측에 따르면 박씨는 11일 새벽 금강해수욕장에서 고성읍쪽으로 해변을 따라 1km정도 걸어가다 민간인통제구역 울타리를 넘어가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박씨는 걸어가는 과정에서 첫번째 북한군 초소는 그냥 지나쳤으나 두번째 초소에서 피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은 “박씨가 수차례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와 사격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샘복지재단, 北에 의약품가방 1만개 전달(7/10, 연합)

- 기독교 국제의료 지원단체인 샘복지재단(대표 박세록)이 8월 4일부터 두달간 42억원어치의 의약품을 담은 ‘사랑의 왕진가방’ 1만개를 북한에 보냄. 이 단체는 10일 ‘2008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따라 미국의 세계의료선교회로부터 기증받은 4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포함한 기초 의약품을 부산과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 신의주로 전달

■ 2009년 남북협력기금 어떻게 편성(7/10, 연합)

- 통일부가 최근 마련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쌀과 비료 지원량으로 통일부는 2008년도 대북 쌀·비료 지원량을 각각 40만t과 30만t으로 책정,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된 지원 예정량보다 각각 10만t씩 줄어든 것으로, 2007년 수준이지만 국제적인 곡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않은 물량

■ 개성공단 北근로자 3만명…숙소문제 시급(7/9, 연합)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 수가 최근 3만명을 돌파하면서 작년 남북간 합의 사항인 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9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72개 업체에 3만84명에 달하며 올해 말이면 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개성과 인근 지역 주민들로, 88대의 통근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으며 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통근버스를 100대 추가 투입하기로 해 한동안 근로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2009년까지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이미 분양 받은 업체들이 입주를 포기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공단 관계자들은 우려
- 남과 북은 2007년 12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1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단 근로자 숙소를 건설키로 했음. 당시 양측은 2008년 초 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착공키로 합의했지만 대화가 중단되면서 숙소부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임.

■ 남북, 경의선열차 1주간 운행 중단(7/7, 연합)

- 남과 북은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일(8일)을 즈음해 7~11일 문산-봉동간 경의선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발표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김주석 애도기간(7~9일)을 즈음해 철도 운행을 5일 정도 휴무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양측은 7일 운행 중단에 들어가 14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

〈첨부 1〉 ‘금강산 피살’ 정부 성명[전문]

『정부는 우리 측 관광객이 북측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남북 당국간 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하면 우리 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북측 군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저항의사도 없는 것이 분명한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잘못된 조치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한 사건 발생 후에 즉각적으로 우리 측에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응당한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5시간 동안이나 이러한 비극을 방치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측 지역에 관광을 간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은 이미 출입·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상호 협조 하에 반드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측은 우리 측의 진상 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당국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라고 본다.

북측도 관광객으로 간 평범한 여성이 자기측 군인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만큼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남북대화에 의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첨부 2〉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 [전문]

『남조선 관광객이 금강산에 왔다가 7월 11일 새벽 4시 50분경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고 경위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 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비법적으로 울타리 밖 우리측 군사통제구역 안에까지 들어온 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남조선 관광객은 신새벽에 명백히 표시된 경계 울타리를 벗어나 신발을 적시면서 혼자 우리 군사통제구역 깊이까지 침범하였다.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한 그를 발견하고 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하였으나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은 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측에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하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서 우리는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고 경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이미 사고 발생시 현대측 인원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한 조건에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

7.14-7.20

7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러시아 무용공연 관람(7/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베료즈카 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무용단의 미라 콜조바 단장과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임시대리대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한 무용단의 방북 공연에 사의를 표함.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7월 11일 제280군부대 시찰 소식 후 엿새 만임.

나. 정치 관련

■ 北, 李대통령 연설에 새 제안 전무(7/20,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7월 11일 국회 시정 연설은 “반통일적 입장과 대결적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
- 신문은 이 대통령이 “북핵 해결이 선결 과제”라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에 대해 “미국의 ‘선 핵포기’ 주장에 추종해 ‘핵문제 우선론’을 내들고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북남관계가 최악의 지경에 처했는데도” 같은 말을 다시 했으며 이는 “‘비핵·개방·3000’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결국 ‘대화 재개’를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빈말로서, 대결적이며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에서 달라진 것이란 하나도 없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

■ 北, 주민들에 '정신력 극대화' 주문(7/18; 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오늘의 총진군은 사상의 총진군이다' 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부강조국 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이룩해 나가는 사상의 총진군이라는 데 오늘의 총진군의 근본 특징이 있다"고 강조
- 신문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 침투책동을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단호히 짓부셔 버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원칙과 입장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금성철벽"이라고 주장
- 15일 노동신문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자'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체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여 나가는 오늘 사상사업에서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 北, '금강산 피살' 북한내 비보도(7/14, 연합)

-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의 담화를 사건 발생 하루만인 12일 오후 7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내보냄. 이어 오후 8시 15분과 오후 10시 대남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 두 차례 반복했을 뿐 북한 주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를 통해서도 14일 오전 현재까지 다루지 않고 있음.

■ 6·15선언 외면하는 한 대북제안 불통(7/14, 조선신보)

-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표명을 (남북) 대화재개의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선언의 이행에 대한 입장표명을 피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북남관계 개선은 언제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주장

다. 경제 관련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대형산소분리기 본격가동(7/20, 조선중앙방송)

■ 北내각, '국경무역 관리규정' 채택(7/18,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은 최근 '국경교두(국경다리) 종합무역장 관리운영 규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민주조선이 18일 보도, 신문은 "규정에는 국경교두 종합무역장의 사명과 관리·운영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규정의 적용대상 등이 밝혀져 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신문은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경교두를 통한 대외경제 사업에서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국경교두 종합무역장 관리·운영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됐다"고 덧붙임.

■ 네덜란드 기업투자단, 9월 방북 北과 합의(7/18, 자유아시아방송)

- 네덜란드 '시장개척 사업단'이 대북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한을 방문키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네덜란드는 최근 북핵 문제나 정치적 긴장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네덜란드 기업들의 북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며 올해 초부터 민간 자문회사인 지아이피(GIP) 컨설턴트, 네덜란드 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장개척 사업단의 방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

■ 北, 발명·특허 활성화, 생산 정상화에 기여(7/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최근 발명과 특허기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생산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올해 들어와 과학자 기술자들 전국 각지의 일꾼(간부)들과 근로자들이 발명사업을 힘있게 벌여 가치있는 발명 및 특허기술을 수많이 내놓음으로써 공장기업소의 기술개선과 생산운영의 정상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그러나 발명·특허기술의 개발 실적을 구체적 수치로 밝히지는 않음.

■ 北주민, 3분의 2 하루 두끼 식사(7/17, 세계식량계획)

- 북한 주민 약 3분의 2가 식량난으로 하루 두끼 식사를 하고 있다는 세계식량계획(WFP)의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17일 알려짐. WFP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사자가 속출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근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 北주재 서방외교관, 대규모 기근징후 無(7/16, 자유아시아방송)

- 현재 북한에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기근 징후는 없으며 한국의 일부 대북 지원 단체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사 경고는 과장된 것이라고 “북한에 상주하는 서방국가 고위 외교관”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은 유럽연합(EU)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최신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언급
- 그는 “평양 상주 외교관들 사이에 회람된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경사면을 깎아 경작지로 만들어 식량생산을 늘리고 있는 데다, 시장을 통해 식량의 절반 가까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 “그러나 북한의 동북부 지역에는 식량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 北상원세멘트, 상반기 계획 완수(7/15, 조선중앙방송)

- 이집트의 오라스콤그룹 계열사가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가 상반기 생산 계획을 완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오라스콤은 2007년 7월 상원기업소의 지분 50%를 취득하면서 1억1천5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그후 시멘트 계열사를 프랑스 건설회사에 모두 팔면서 관련 분야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오라스콤 계열사를 인수한 프랑스 회사가 북한의 시멘트사업에 계속 투자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함경북도까지 키위 재배(7/14, 조선신보)

- 북한에서 ‘왕다래’로 불리는 키위가 개성과 평양은 물론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여러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14일 보도

■ 北, 주변국서 평양된장 합작 요청(7/12, 통일신보)

- 평양 대동강식료품공장에서 만든 ‘평양메주장’이 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변국에서도 적극적인 교류와 합작을 요청하고 있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라. 군사 관련

■ 北, 립팍-을지군사연습 연일 비난(7/20, 통일신보: 7/20, 우리민족끼리: 7/19, 노동신문)

- 통일신보는 20일 미국 주도의 ‘립팍’ 군사훈련과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대해 “이러한 군사적 책동은 공화국(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 선포”라며 “우리 공화국은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같이 준비돼 있다”고 반발
- 통일신보는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불장난 소동’이라는 글에서 “최근 미국과 남조선(남한)의 북침전쟁 준비소동이 도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립팍 합동군사연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글에서 “립팍 연습은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와 선제타격을 노린 불장난 소동”이라며 이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미국, 일본과 ‘3각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려는 야망의 발로”이자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

■ 北, 한미UFG연습에 자위적 조치 단호 대처(7/18,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8일 대변인담화를 통해 8월 실시될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을 “우리(北)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 선포”라며 “강위력한 자위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군사적 대결 속에 화해가 있을 수 없고 침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공고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한미가 거론하는 “대화”와 ‘평화’, ‘관계개선’이란 빈말에 불과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대결과 전쟁 뿐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北, 항모 레이건호 입항 “북침책동” 비난(7/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미국의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호의 부산항 입항을 “북침 선제타격 기도”라고 비난, 통신은 군사소식통을 인용, “미제 침략군 호전광이 남조선에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기동·전개시키고 있다”며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기어든 데 이어 17일에는 유도탄구축함 맥캡프벨호가 평택항에 닿을 내렸다”고 주장

※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국 해군과 친선교류 및 승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7월 14일 부산항에 입항

■ 北, 국방력 강해야 ‘배짱대로 해’ (2008년 2호, 사회과학원 학보)

- ‘사회과학원 학보’ 2008년 2호는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하고 그 위력을 강화해야 나라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며 군사력 강화 당위론을 주장, 김창경 부교수(박사)는 17일 ‘강력한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의 상징이며 부강번영의 근본담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빛내나가려 해도 국방력이 강해야 한다”고 강조

■ 北, 샤프사령관 ‘폭동·반란전술’ 발언 비난(7/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대화 상대방에 대한 도발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북한이 이라크 현지 무장세력의 폭동 및 반란 전술을 한미연합군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을 “망발”이라며 “매우 불손하고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 노동신문은 “풍부한 전투경험과...현대적인 공격 및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북한)의 자위적 무장력을 이라크의 비정규적인 무장세력에 비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

- 신문은 샤프 사령관이 한미 양국의 '대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우리를 걸고 남조선에 현대적인 공격수단들을 끌어들이어 제2의 조선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

■ 北,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추구는 범죄적 행위(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3각 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냉전시대 "북남대결의 과거를 되살리는 범죄적 행위"라고 비난, 신문은 한·미·일간 "3국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 등은 3각 군사동맹이 "본격적인 가동단계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는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미·일·남조선의 군사행동"이라고 주장

■ 北, 美 미사일방어체제 비난(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미국은 평화와 군축의 흐름에 역행해 핵위협, 무력증강 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음. 신문은 '군비경쟁의 장본인은 규탄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여기(MD)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새로운 핵 무기 개발과 생산, 배비(배치)를 다그치고 있다"면서 "미제의 핵무력 증강, 군비확장 정책에 의해 세계에서는 새로운 군비경쟁, 핵 대결의 위험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세는 더욱 긴장해지고 있다"고 주장

마. 사회·문화 관련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홍콩서 공연(7/20, 평양방송)

- 북한의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14일부터 16일까지 홍콩의 홍콩종합대학회관과 예술학원극장, 홍콩문화센터 등에서 공연했다고 평양방송이 20일 보도

■ 조선중앙TV, 태풍경보 발령(7/20,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0일부터 북한 지역도 제7호 태풍 '갈매기'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19일 예보하고 경제부문의 안전대책을 당부하고 아울러 "7월 하순에 우리나라는 주로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강냉

이(옥수수) 농사에서 장마철 습해와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 北, 임진왜란 의병장 이정암 묘 발견(7/19, 조선신보)

-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개성에서 임진왜란 당시 연안성 전투의 지휘자인 의병장 이정암(1541-1600)의 묘를 찾아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FIFA, 평양서 北감독 대상 첫 강습회(7/19, 조선신보)

- 국제축구연맹(FIFA)이 7월 3일부터 평양에서 북한 남녀 감독을 대상으로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9일 보도, 그동안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매년 한 두 차례씩 평양에서 감독과 심판 등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개최해 왔으나 FIFA가 북한에서 강습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번 강습회는 2008년 상반기 조선체육지도위원회 대표단의 스위스 방문 때 FIFA 측과 합의한 교류계획에 따른 것임. 8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강습에는 평양시, 리명수, 율미도, 기관차체육단 등 각급 체육단의 남녀 감독 30여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FIFA가 추천한 스위스인 앤디 에글리씨가 강의를 맡고 있음.

■ 北전화번호부에 휴대전화·컴퓨터통신 신청 양식(7/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전화번호부를 보면 북한 당국이 일반전화 이외에 휴대전화와 컴퓨터통신의 개설 신청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북한 당국은 2000년대 들어 늘어나고 있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양식을 추가한 것으로 보임. 전화번호부에는 노동당과 행정부처 등 각 기관의 조직이 평양을 비롯해 12개 도시별로 상세히 수록돼 있으나 주소는 병기되지 않았으며,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기밀관련 기관은 생략돼 있거나 일부만 소개돼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설명

■ 평양 주요거리 아스팔트 재포장(7/17, 조선신보)

- 북한이 최근 석달 남짓한 기간 평양 중심가 도로 90만㎡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했다고 조선신보가 17일 보도, 신문은 이번 공사로 모란봉, 비파, 영

웅, 봉화, 북새강안, 개선문, 룡남산 거리 등 평양 시내 여러 거리가 새롭게 단장됐다면서 현재 도로 주변의 건물 보수, 녹지와 가로수 정리, 경계석 보수 및 설치가 한창이라고 소개

- 신문은 특히 평양 중심가인 보통강, 모란봉, 중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색과 문양의 보도블록이 깔렸다면 “현재까지 23만여㎡의 걸음길(인도) 보수, 60여만㎡의 공공건물과 살림집 외장재 바르기, 9만8천여㎡의 녹지가 정리됐다”고 전언

■ 北, 장마피해 예방에 총력(7/16, 조선신보)

- 장마철을 맞아 중앙기관은 물론 각 시·도·군 전역에 홍수피해 예방지휘부를 설립하고 24시간 비상대기에 들어갔다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조선신보는 올해 장마철이 평년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북한은 홍수방지를 위해 6월 내각에 ‘큰물피해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전력공업, 석탄공업, 농업, 국토환경보호 등 각 성과 중앙기관을 망라한 ‘큰물피해방지연합지휘부’를 설립했다고 보도
- 각 도·시·군 차원에서도 ‘큰물피해지휘부’를 조직하고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가 2007년 홍수 피해지 가운데 미복구 대상의 복구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움. 또한 내각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기상수문국과의 긴밀한 연계아래 일(日)·주(週) 단위 기상자료를 통보받아 신속히 전파하고 해당 성·중앙기관들이 시멘트, 강재, 목재 등을 비롯한 수해방지 물자를 최우선 공급하도록 했다고 신문은 소개

■ 北 무더위, 수영장 연일 초만원(7/16, 조선신보)

- 북한에서도 무더위를 맞아 각지의 수영장 물놀이 시설이 “연일 초만원”이라고 조선신보가 16일 소개

■ 北, 대동강 홍수예방 ‘비상체제’ 돌입(7/15, 평양방송)

- 2007년 대동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경험했던 북한의 ‘대동강큰물(홍수)지휘부’가 올해에는 일찌감치 폭우 피해방지 비상체제에 돌입

■ 北, 외국어교육 아이디어 짜내기(6/26, 교육신문)

- 북한 대학들이 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교육신문은 ‘교육방법을 부단히 개선해 외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대학의 외국어 교육 방법 “혁신” 사례를 자세히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박의춘, 싱가포르 향발(7/19,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연례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연단 상(相)회의(아세안 연례 외교장관 회의)와 이란에서 열리는 빨럭불가담나라(비동맹국) 외무상 회의에 참가할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북한)대표단이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 통신은 또 북한 대표단이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도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김숙, 금강산피살과 6자회담은 별개(7/17,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금강산 피살’ 사건과 관련,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그는 “북핵문제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니 쉽게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北검증 작업, 美 적대포기와 진도맞출 것(7/15, 연합)

- 북한이 이미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 진도를 보아가며 병행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

- 조선신보는 6월 10~12일 열린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한 결산기사에서 “2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조선(북한)의 공약은 무력화(북능화)와 핵신고”인데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가 발효되지 않았고 5자의 경제적 보상조치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10·3합의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검증 작업에 솔선 나서야 할 까닭이 없다”고 언급

나. 북·중 관계

■ 中, 금강산 피살사건 불개입 시사(7/17, 연합)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현장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해 이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침. 류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남북 양측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힘.

■ 北, 中 봉제설비 생산기업과 합작 추진(7/15, 연합)

- 중국 최대의 공업용 미싱생산업체인 중제(中捷)미싱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김철민 조선방직복장협회 베이징(北京)대표처 수석대표가 7월 10일 이 회사를 방문해 공업용 미싱기 구입 및 합작생산 문제를 논의

다. 북·러 관계

■ 北·러,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위한 합작회사 설립(7/17, 연합)

- 북한과 러시아는 나진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 17일 러시아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RZD 무역회사에 따르면 RZD와 북한의 나진항이 각각 70%와 30%의 지분으로 설립한 이 합작 회사는 향후 49년간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등록되며, 나진항에 40만TEU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
- ※ 지난 4월 24일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연장 54km의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

라. 북·일 관계

■ 北단체, 日 ‘독도 도발’ 南정부 싸잡아 비난(7/19,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7/19, 우리민족끼리; 7/18,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19일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며 이명박 정부와 연계해 비난
- 조국전선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변인은 일본의 행보를 “노골적인 독도강탈책동”으로 규정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힘. 또 “독도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 반동들의 역사 왜곡과 독도 강탈책동은 우리 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재침의 전주곡으로서 앞으로 들이닥칠 침략의 광풍을 예고해 주고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고 도발적인 망동”은 “바로 이명박 패당의 친일사대 매국책동이 가져온 결과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독도문제와 이명박 정부를 연계시켜 강도 높게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해설서에 들어있는 독도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위대의 역할을 교육하도록 한 대목만 문제 삼아 일본의 “재침책동”을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조선민족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

3 대남정세

■ 정부, 對北 물자제공 잠정 보류(7/18, 연합)

- 정부는 금강산 피살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남북간 합의에 따라 북에 보낼 예정이던 각종 물자의 공급을 보류하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18일 알려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군(軍) 통신선 개선을 위한 장비·자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내부 장비·비품 등 북한에 제공하려고 준비해온 물자들의 공급을 사건 해결

뒤로 미루기로 했음.

- 또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사업 주체인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지원하는 방식으로 면회소 내부에 들어갈 장비·비품을 조달, 복송하기 위해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41억원의 집행도 보류할 예정
- 정부는 이 외에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옥수수 지원건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국민 정서를 감안, 당분간 중단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ARF서 '금강산 사건' 공식 제기(7/18, 조선일보)

- 정부는 7월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전체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능한 한 회담 결과물인 의장성명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北 조사 거부땀 개성관광 중단 검토(7/18, 조선일보)

- 정부는 북한이 끝내 금강산 피격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성관광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7일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회의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현대아산 측에 요청했다"고 언급

■ 금강산 협력사 직원 추가철수(7/17, 연합뉴스)

- 현대아산은 17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직전 1천350명이었던 현지 근무 직원 수가 17일 현재 1천10명까지 줄었다고 밝힘. 이는 7월 15일 현재 현지 직원이 1천70명까지 줄었던 데 이어 이틀간 60명이 더 빠진 것으로, 영업이 중단된 음식점과 상점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추가로 철수한 것이라고 현대아산측은 설명
- 한편 개성관광은 큰 타격이 없이 평소의 영업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도, 北라면공장 건립 보류(7/17, 전라북도)

- 전북도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추진해온 라면공장 건립사업이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임.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시·군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평양시 인근에 하루 최대 5만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통일부의 승인 문제와 북한 측의 밀가루 조달 능력 결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전북도는 북한 측에 라면수프 제조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국내 라면 제조업체들과 접촉했으나 업체들이 최근의 경기상황과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기술 이전을 꺼려 더욱 난감한 상황임.

■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제안(7/17, 연합)

-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지난 90년 이래 중단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재개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다”며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 60주년 경축 기념식 경축사에서 “꽁꽁 막혀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의장단이나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먼저 교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 개성공단 건물 골조 붕괴, 北인부 사망(7/17, 연합)

- 개성공단 내에서 건축중이던 건물의 골조가 쓰러져 북한 인부 한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침.
- 17일 개성공단지원단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께 개성공단내에 건축 공사중이던 섬유업체 평안(주)의 제2공장 건물 골조가 옆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인부 중 한명이 숨지고 4명(중상 2, 경상 2)이 다쳐 개성 내 병원으로 옮겨짐.

■ 피격사건 당일, 금강산 전화 2시간 동안 차단(7/17, 연합)

-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당시 현대아산이 금강산 현지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국제전화 회선을 2시간 가량 끊었던 것으로 밝혀짐. 현대아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앰블런스가 금강산 특구 내를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등 부정확한 소문이 나돌아 박씨의 시

신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까지만 일시 전화를 차단했다”고 주장

■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문답(7/16, 연합)

-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은 16일 계동 현대사옥에서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북측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남측의 시각과 정서, 심각한 여론을 전하고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한 점이 방북 성과로 생각된다”고 밝힘. 또 윤 사장은 “합동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해 현장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다시 방북할 계획”이라고 주장
- 윤 사장은 또 “북측은 이번 사건이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 합의서 위반이라기보다는 불법침입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

■ 포스코, 철광석 수입 협상차 또 방북(7/15, 연합)

- 포스코가 북한 철광석 수입을 위해 실무자를 또 다시 북한에 파견, 앞서 김동진 포스코차이나 사장은 6월 24일 북한의 대남 민간경제협력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철광석을 시험 구매 방안 등을 논의

■ 정부 “3개 합의 위반” 대북통지문 발송했으나 북(北), 수신 거부(7/15, 연합)

- 정부는 1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진상 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대북(對北)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수신을 거부, 북한은 12일에도 우리측이 보내려던 통지문을 받지 않음.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은 ‘통지문을’ 받으라는 상부 위임이 없어서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했다”고 발표, 정부는 구체적으로 박씨 사건이 ▲(남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한 금강산 등 체류 합의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 1998년 7월 북측 사회안전부장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 1998년 6월 현대와 아태평화위 계약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부산-금강산 관광열차 운행 잠정 중단(7/15, 연합뉴스)

-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던 금강산 관광열차 운행도 잠정 중단, 15일 코레일 부산지사에 따르면 오는 30일 운행예정이던 '금강산 바캉스 특급열차' (예약인원 120명)와 8월 2일 출발예정이던 관광열차(예약인원 250명)가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으로 취소됨.

■ 홍준표, 北에 '남북정치회담' 제안(7/14,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통한 '남북정치회담' 을 북한에 공식 제안
- 홍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의하고 "남북의 의회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 그러나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진상규명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첨부1〉 '금강산 피살' 대북통지문 [전문] (07/15)

『우리측은 7월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우리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육안으로 사람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저항의사가 없는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발생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우리측에 통보없이 방치한 행위 역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남북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에 따라 이를 제지하고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는 상기 합의서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난 1998년 7월 9일 당시 북측 사회안전부장이 우리측에 보낸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통해 우리측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배치된다.

그리고 1998년 6월 22일 현대와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에 체결한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제4조에는 “아태측은 북측 관할구역 안에 들어오는 관광객, 현대측 실무대표단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북측 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 및 남북 당국간 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와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을 민간에게 맡겨 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측은 황부기 통일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금강산 현지에 파견하고자 하며, 현지조사활동 과정에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남북간 정보교환과 협력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2조에 근거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7.21-7.27

7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교육·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정전협정 55돌 경축행사 진행(5/27,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정전협정 체결 55돌을 경축한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7일 전승기념탑, 4.25문화회관, 주체사상탑 광장 등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각 계층 근로자와 학생들도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 주석 동상을 찾아 참배했고, 당·정·군 간부들은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전승기념탑을 찾아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제성호 인권대사 내정자에 반감 표출(7/27,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7월 23일 성명을 통해 제 교수를 인권대사로 내정한 “망동을 단죄했다”면서 성명을 소개하고 제 교수에 대해 “동족 대결의 피눈이 되어 돌아친 극악한 민족반역자”라고 반감을 드러냄.

■ 정전협정 55돌 “對美 승전” 강조(7/26, 통일신보; 7/26, 노동신문; 7/27, 우리 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단결된 인민의 정신력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날은 우리 공화국(북한)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했다고 강조하고 통일신보도 “3년 간의 가열 치열한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며 “조선 인민은...세계의 면전에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렸다”고 주장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난(7/2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정전협정 체결 55주년인 27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면 평화를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참화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통일운동 발전을 가로막는 반공화국 대결정책’ 제목의 논평에서 실용주의에 기초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

남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요인”으로 비난하며 현 정부가 이러한 대북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오늘의 파국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조선(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

■ 北농민단체, 전원회의 개최(7/23, 평양방송)

- 농민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이 22일 평양에서 제5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평양방송이 23일 보도
- 강창욱 농근맹 위원장과 중앙위원,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근로단체 역할 강화 지시” 집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방송은 소개,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나. 경제 관련

■ 戰後때처럼 경제건설 총돌격전 호소(7/27,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27일 6.25전쟁 직후의 전후복구사업 때와 같이 “총돌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전 주민에게 촉구
- 평양방송에 따르면 신문은 정전협정 체결 55주년(7.27)을 기념한 ‘당의 선군영도 따라 백전백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 제목의 사설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으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경제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 北 함경도·량강도 식량위기 상황(7/26,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 북한의 함경도와 량강도가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웹’이 26일 발표
- 릴리프웹은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7월 22일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 최근 몇 달 간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함경북도, 량강도 전역과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극심한 식량 및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
-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불충분한 식량공급, 식생활 다양성 부족, 영양실조 증가, 전염병 가능성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8~9월에는 ‘인도주의적 긴

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

- 릴리프웍은 아울러 북한의 다른 지역이 현재 '만성적인 식량난' 상황이지만 '극심한 식량 및 생계위기'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WFP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직원수를 10명에서 55명으로 늘리는 등 대북 구호복구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임.

■ 국제사회 지원 후 北쌀값 안정세(175호, 오늘의 북한소식; 7/25, 연합)

- 북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6월부터 잇따르면서 북한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5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175호에서 "5월 말 황해남·북도를 중심으로 (kg당 북한돈) 4천원 이상 치솟았던 쌀값이 6월 들어 조금씩 떨어지더니 7월 들어 2천500원대에서 전역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 평양, 함북 청진, 함남 함흥 등 북한의 주요 도시 시장의 쌀값은 7월 15일 기준, 2천500~2천700원이며 옥수수는 1천300~1천500원임.
- 소식지는 6월 러시아에서 지원한 3천t가량의 밀가루와 미국이 보낸 밀 3만 7천t이 북한에 반입된 데 이어 외부로부터 식량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 한편 이모작 작물인 감자와 밀, 보리 수확이 이뤄지면서 식량난이 극심했던 황해남·북도의 사정은 다소 풀렸으나 척박한 지역인 강원도와 자강도의 식량난은 여전하다고 소식지는 언급

■ 먹는문제 풀리면 두려울 것 없어(7/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일심단결이 있고 강력한 군력(軍力)이 마련돼 있는 조건에서 먹는 문제만 풀리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올해 농업증산을 거듭 독려, 조선중앙방송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보도에서 "농사는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쌀이 있어야 공장도 돌릴 수 있고 강성대국도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
- 방송은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사회주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첫째 가는 중대사"라며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려면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 방송은 이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며,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과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언급

■ 北태권도복, ‘백호’ 외국서도 호평(7/24, 조선신보)

- 북한에서 태권도가 대중화되면서 도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 태권도 애호가와 수련생들에게도 도복을 제공하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 산하 태권도복공장은 연간 10만여벌의 도복을 생산, 이 도복에는 백호라는 상표가 달려 있는데 “백호’ 태권도복은 이미 ITF와 세계의 태권도 애호가, 수련생들 속에서 확고히 공인된 도복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주장

※ 북한 도복의 모양은 남한과 차이가 나는데, 상·하복에 모두 ‘ITF’ (국제태권도연맹)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사범들이 입는 도복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선수복과 달리 상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검은 선이 그어져 있음.

■ 北, 과학기술분야 남남협력 실현 강조(7/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발전도상나라들이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협력과 교류를 적극 발전시킨다면 제국주의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산설비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날 ‘협력과 교류의 강화는 새 세기 발전의 절실한 요구’ 제목의 논설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을 엮어매어놓고 착취와 약탈을 더욱 강화하지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속심(속셈)”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은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

■ 北방송, 식량난 ‘외부요인’ 으로만 호도(7/2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북한의 식량난은 언급하지 않은 채 “식량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해외의 식량 수급 불안정 요인 4가지를 언급, 방송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보도물에서 "전문가들은 오늘의 식량부족 원인을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며 2005년 유럽의 흉작과 호주의 가뭄 피해, 원유가 폭등에 대처한 각국의 곡물 이용 생물연료 증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및 인도의 곡물 소비 증가, 지구온난화 가속화와 농업투자 감소를 가리킴.

■ WFP, 北식량 최악상황 넘겨(7/23, 연합)

-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과 감자, 밀, 보리 등의 수확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넘겼으며 이에 따라 추수 이전 아사자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쉐 팡 박사가 주장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쉐 팡 박사가 "미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지원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이 하루에 세 끼 먹을 것을 두끼로 줄이는 등 소비를 줄일 수 있지만 아사나 기근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

■ 北, 2009년 몽골에 건설노동자 파견(7/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몽골 정부와 체결한 '노동자 파견 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건설노동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방송은 몽골 언론보도를 인용, "몽골 의회는 7월 20일 북한과 몽골간에 체결한 노동자 파견에 관한 기본 협정을 승인했고, 몽골 사회복지노동부는 빠른 시일안에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몽골 외교통상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 몽골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 규모와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 현장, 그리고 최저 임금 등 노동 조건과 복지문제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짐.

다. 군사 관련

■ 北김일철, 경제건설 잘해야 반미대결서 승리(7/26, 조선중앙방송)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정전 협정 체결 55주년(7.27)을 맞아 열린 보고대회에서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경제건설을 잘하는 것은 반제 반미 대결전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주장

- 김 인민무력부장은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55주년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인민군 장병들은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벌여 전투력 강화에서 보다 큰 전환을 일으켜 나가고 혁명적 경각성과 전투적 긴장성을 견지하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며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과 남조선 호전분자들이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군사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반미 대결전을 선군조선의 최후 승리로 총결산할 것"이라며 "일본 반동들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초래할 파멸적인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하며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

■ 北조평통, 주적 발언 강력 대응(7/2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7/24, 조선중앙방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북한 주적 발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조평통은 23일자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 장관이 국회 본의회에서 "우리(北)를 걸고 최대의 주적이니 뭐니 하는 악의에 찬 망발"을 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단정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비난, 특히 "6·15 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전면 차단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 존과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걷어치우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데로 나와야 할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주적론까지 내들고 북남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파국적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 北, 美, 정치적 목적 대북 군사 압박(7/2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정치적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나 “파국”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
- 신문은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가’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대령급 접촉에서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통보한 데 이어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부산 입항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고의로 긴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
- 이어 신문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벌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행위 “를 하고 있는 까닭은 “외교적 대화와 병행해 군사적 압력과 위협을 적극 따라세운다면 상대방의 기를 꺾고 중대한 정치적 양보를 받아내며 대화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고 타산(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라. 사회·교육·문화 관련

■ 평양 실내 스케이트장 피서지로 인기(7/26, 통일신보: 7/27, 우리민족끼리)

- 평양의 실내 빙상경기장인 빙상관이 삼복더위를 피하려는 주민들로 붐빈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빙상관이) 여느 날에는 (빙상관이) 전문 빙상선수들의 훈련장이나 경기장으로 이용되지만 일요일이나 명절날을 비롯한 휴식일이면 으레 일반 손님의 문화정서 생활을 위해 성의껏 봉사한다”고 소개

■ 北응원단, 28일 중국 입국(7/27, 연합)

- 중국의 복수 대북소식통들은 27일 “북한 올림픽응원단이 28일 선양(瀋陽)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는 응원단 규모는 18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북한 응원단은 평양에서 국제열차를 타고 선양으로 들어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 응원단은 일

단 선양에 도착해 본격적인 응원 준비에 돌입하게 되며, 올림픽 기간 북한 팀 경기가 있는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선양 등지를 돌며 현지 북한인들이 합류한 가운데 대대적인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언

■ 김일성전집 제74권을 출판(7/26, 조선중앙통신)

- 조선노동당출판사가 '김일성전집' 제74권을 출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책에는 1981년 8월부터 12월까지 김일성 주석의 연설, 담화 등 47건이 실려있음.

■ 아시아양궁연맹, 평양서 감독 대상 강습(7/26, 조선신보)

- 아시아양궁연맹(AAF)이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각급 양궁감독을 대상으로 강습을 실시, 조선신보는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진행된 강습에서는 최근 새롭게 달라진 양궁경기규칙, 활과 화살 비례의 선택방법을 비롯한 양궁기재 조종법, 서기, 활줄 당기기 자세, 활줄놓기 등 양궁의 기본기술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

※ AAF는 현재 기아자동차의 정의선 사장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1983년 초대협회장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맡은데 이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BNG스틸 유홍종 회장 등 한국이 계속 회장직을 이어 오고 있음.

■ 평양교예단 첫 유럽 단독공연(7/26, 조선신보)

- 평양교예단이 오는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유럽에서 처음으로 단독공연을 갖는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평양교예단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개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2개월 간 줄넘기, 널뛰기, 힘장사, 철봉비행, 비행가, 중심조형 등 10여 가지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교예단이 유럽 나라들에서 단독공연을 펼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

■ 英강사, 北대학 영어교수 실력 편차 大(7/26,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 대학 영어교수들의 실력이 초급에서 중상급까지 편차가 크다고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국인 강사가 인터뷰
- 2006년 9월부터 영국문화원의 대북 영어강사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니컬러스씨는 26일 미국의소리방송과 인터뷰에서 “김형직사범대학 영문학부 강사와 교수들은 영어회화 중급 수준, 학부생은 중하급이나 초급”이고 “평양 이외 지역에서 사범대로 수업을 받으러 오는 지방(사범대학) 영어교수들은 초급에서 중상급 정도”라고 언급

- 그는 영국문화원이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활용해 대학생과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두달 코스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며 학생을 위한 강의는 90분 수업 45차례, 교수는 43차례라고 설명, 북한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고 순종적이며 예의 바르다”고 평하면서 “학교에서 북한 교수들과 함께 일하지만 방과 후 같이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임.

※ 영국 정부 산하의 영국문화원은 2000년부터 북한에 3명씩 영어강사를 파견해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대학, 김형직사범대학에서 450명 정도의 교수와 학생을 교육해왔으며 오는 9월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관장하고 북한 당국과 의견을 조율할 선임강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

■ 발해·고려史 연구토론회 개최(7/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발해 건국 1천310주년과 고려 건국 1천90주년을 맞아 24일 평양에서 발해와 고려 역사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집단체조 ‘아리랑’ 8월초~9월말 공연(7/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집단체조 ‘아리랑’과 ‘번영하라 조국이어’가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
- 새로 만든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어’는 북한의 지난 60년을 모두 5장 12절로 나눠 묘사한 것으로, 공장·기업소 근로자와 각급 학교 학생, 유치원생 등 수만명이 출연하고 아리랑공연과 겹치지 않도록 낮시간대에 공연

■ 곡창지대 황해도 100~135mm 폭우(7/2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3일 자정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개성을 비롯해 황해남도 룡연, 태탄, 장연, 웅진, 벽성, 배천, 강령, 황해북도 장풍 지역에서 100~135mm의 “비와 폭우”가 내렸으며 평양, 평남 평성, 황북 사리

원, 황남 해주, 강원 원산에서는 “비와 소낙비”가 내렸다고 보도하고 24일 밤과 25일에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평성, 사리원, 해주, 원산 등지에서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

■ 北10대, 러시아어 올림픽서 돌풍(7/24, 조선신보)

- 북한의 10대 학생들이 6월 23~29일 모스크바 푸슈킨국립러시아어대학에서 열린 제12차 국제학생 러시아어 올림픽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선신보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평양외국어대학 부설 외국어학원생이 최우수상 2명, 1등상 7명, 2등상 2명의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며 북한 학생들은 이전 5차, 6차, 11차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고 보도

■ 북한엔 ‘단고기’가 최고(7/24, 조선신보)

- 북한에서 여름철 북한 보양식으로 가장 인기있는 음식은 단연 ‘단고기’ (개고기) 탕요리임. 조선신보는 24일, “19일은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이었고 조선(북)에서 초복날이 오면 사람들은 단고기장 음식을 내는 식당으로 제일 많이 찾아간다”며 “시내에서 단고기장 음식으로 유명한 평양단고기집, 문흥단고기집, 장진단고기장집을 비롯한 전문단고기장집들에서는 초복날의 단고기 음식을 맛보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쳤다”고 소개

■ 북송 비전향장기수 리인모 동상 건립(7/23, 조선중앙통신)

- 지난 1993년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리인모(2007년 6월 사망)씨의 반신동상이 평양시 통일거리에 세워져 23일 제막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동상은 “수인복 차림으로 철쇄에 묶인 두 주먹을 억세게 틀어쥐고 있는 모습”이며, 제막식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김기남 당 비서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보도

■ 북경올림픽에 11개종목 63명 참가(7/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올림픽위원회 체육분과위원회의 정해만 부위원장은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에 10여개 종목 6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에는 리금숙을 주장으로 한 여자축구팀과 여자 유도 계순희, 안금애가 출전, 또 역도의 차금철, 임용수, 박현숙과 레슬링의 차광수가 참가하며 권은실(여), 손혜영(여, 이상 양궁), 김정수, 류명연, 박정란(여), 조영숙(여, 이상 사격), 김성국(복싱) 등도 올림픽 무대에서 기량을 겨룬다.

■ **쌍방향 화상강의 프로그램 개발(7/22, 조선중앙통신)**

- 김형직사범대학이 컴퓨터를 통해 화상강의와 질의응답, 시험까지 가능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대학 교육정보 센터의 리진섭 소장은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원격강의 체계”와 함께 “수학, 논리학, 물리 가상실험 체계를 비롯해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중·고교) 학생의 과외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유치원용 프로그램인 우리말 배우기, 셈세기, 시창 등도 내놨다”고 언급

■ **유럽 감자요리책 번역출간(7/22, 조선신보)**

- 외국문도서출판사에서 유럽의 각종 감자 요리를 소개한 책 ‘감자음식 500가지’를 번역, 출간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조선(북한)에서 경제적 의의가 큰 농작물의 하나인 감자를 주민의 식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책을) 번역 출판했다”고 설명

■ **중국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 877명(7/22, 연합)**

- 중국 교육부는 22일 2007년 말 현재, 중국이 접수한 북한 유학생은 장기 유학생 703명, 단기 유학생 174명 등 모두 877명이라고 발표

■ **국제수학올림피아드 7위(7/22, 연합)**

- 북한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7.10~22)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로 종합 7위를 기록, 북한은 총점 173점을 얻어 2007년 베트남 대회에서 8위를 했을 때의 151점보다 22점 많이 얻었음.
- 이 대회 1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이어 2위는 러시아, 3위는 미국, 4위 한국 순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박의춘, ARF도 ‘행동 대 행동’ 원칙 참고해야(7/2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6일 박의춘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 연설 내용을 상세히 보도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박 외무상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내놓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은 오늘에 와서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찬동 밑에 사실상 하나의 행동규범으로 확립되었다”며 “우리는 실천으로 검증된 이러한 신뢰구축 방도가 연단(ARF)의 사업에도 건설적으로 참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박 외무상은 남북관계와 관련, “연단의 일치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하는 정권이 출현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는 선군정치 결실인 우리의 전쟁 억제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
- 박 외무상은 “조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9·19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하고 핵문제 해결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ARF의장성명, ‘금강산 피살’ 문구 삭제(7/26, 연합)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반영됐던 ‘금강산 피격’ 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선언’ 관련 문구가 최종 문서에서 삭제,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오늘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싱가포르 외교 차관과 만나 10·4선언 관련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10·4선언 관련 문구를 빼면서 금강산 피살 관련 문구도 같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 北, 한국軍 시설도 핵사찰 요구(7/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앞으로 이뤄질 핵신고서의 검증과정에서 주한미군 시설 뿐 아니라

한국군 시설에 대한 사찰도 요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4일 보도

- 방송은 익명의 미국 내 외교전문가의 언급을 인용,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영토에 직접 들어가 비핵화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최근 베이징 6자회담을 포함해 지금까지 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해왔다”고 주장
- RFA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검증체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7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핵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북한 핵시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모든 종류의 검증을 받고 있고, IAEA의 세이프가드 하에 있다”면서 “북한이 원한다면 이(한국에 대한 검증)를 주선할 수도 있다”고 언급

나. 북·미 관계

■ 北, 美의 평화협정 체결 용단 촉구(7/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정전협정 체결 55주년(7.27)을 하루 앞둔 26일 “미국은 오늘의 역사적 흐름과 정세발전 추이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조선 정전협정의 조인 일방이며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실제적 당사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미국은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평화제안들을 모두 부정하거나 외면해 왔다”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현 정전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우발적 요인에 의한 군사적 충돌도 파국적인 전쟁도 막을 수 없다”면서 “조선반도에서 정

전상태가 완전히 종결되려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돼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 열쇠”라고 강조

■ 북·미 전쟁상태 속 일방적 핵포기 불가능(7/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승리”라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55돌(7.27)을 맞아 “전쟁상태에서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군민(軍民)의 목소리”라고 강조
- 조선신보는 북한과 미국이 아직도 “교전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미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조(북)미 사이에 기술적으로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낙관적이다”라며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핵포기는 적대국의 위협 앞에서 총부리를 내리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고, 일방적 무장해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강조
- 또 “제3단계(핵폐기)에서 취하게 될 행동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정치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데 맞게 조선이 핵시설을 무력화하고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현 단계보다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북·미, 7월 말쯤 ‘검증협의’ 착수(7/25, 연합)

- 북한과 미국은 북핵 핵심현안인 검증계획서(프로토콜)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내주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6자회담 참가국들은 7월 말이나 8월 초 중국 선양(瀋陽) 등에서 비핵화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북·미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검증 계획서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외교소식통은 25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 11일까지 검증체계 구축이 마무리되고 검증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인 만큼 북한과 미국이 곧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미국은 7월 10~1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의 기간

북한에 전달한 4페이지 분량의 검증계획서 초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언급

■ 유엔, 대북 고위급 대화채널 복원 추진(7/25, 연합뉴스)

- 유엔이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북한 내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북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또 유엔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일정 궤도에 오른 이후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도 이뤄질 전망
- 유엔의 고위 관계자는 “모리스 스트롱 전 유엔 대북특사가 물러난 뒤 지난 3~4년간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이 중단됐었는데 이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유엔의 대북 사업 등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유엔의 대북 관계를 전담할 간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언급
 - ※ 스트롱 전 특사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 시절 대북특사로 활동하다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리 연루 의혹으로 2005년 7월 물러났고 이후 유엔의 대북 고위급 대화채널은 중단

■ 라이스, 45일내 北테러지원국 해제 불가 시사(7/25, 연합뉴스)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가 당초 예상됐던 오는 8월 11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
- 라이스 장관은 24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문제와 관련, “45일 통보기간은 최소한 통보기간(minimum notification period)”이라면서 “북한 신고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효할 지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
- 또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검증방안 초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이제 공은 북한쪽에 넘어가 있다”면서 “모든 참가국들은 북한이 검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시, 독재정권 예시하면서 北은 미거론(7/25, 연합뉴스)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4일 전세계 독재정권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아 최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이후 북미간 관계개선 기류를 반영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내 대외원조 및 개발업무 지원기관인 국제개발청(USAID)에서 제2기 부시 행정부의 통치이념 중 하나인 '자유(Freedom Agenda)' 를 주제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7년간 우리는 이란,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와 같은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독재정권 사례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음.

■ 美, 北에 ‘금강산피살’ 남북대화 촉구(7/24, 연합)

- 미국이 지난주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에 금강산피살 사건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24일 알려짐. 또 중국 측도 최근 북한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대표단, 박의춘·라이스 상봉 아주 유익(7/24, 연합)

-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북한 대표단이 24일 전날 열린 비공식 6자외교장관 회담 과정에서 북·미 외교장관 회동 사실을 확인하고 “아주 유익했다”고 평가
- 북측 대표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통해 알겠지만 어제 6자 외무상회담 테두리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여가시간에 박의춘 외무상과 라이스 장관간 상봉이 있었다”면서 “상봉은 아주 유익했다”고 언급, 리 과장은 또 “이 상봉에서 박의춘 외무상은 현 단계에서 9·19 공동성명 상의 2단계 행동조치를 잘 마무리하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
- 그는 이어 검증체계 문제와 관련, “검증은 우리 하나만 검증하는게 아니라 6자에 대해 모두가 자기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문제”라면서 “또 이것은 지난 7월 베이징에서의 합의사항을 따른 것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만큼 검증 역시 이 원칙에 따라 각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리 과장은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 사건은) 외무성 관할이 아니며 북남문제”라고 재차 답변을 회피

■ 오바마 ‘北핵무기 8개’ 발언(7/24, 연합뉴스)

-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23일 이례적으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개수가 8개”라고 구체적인 수를 언급, 오바마는 또 이스라엘이 작년에 공습한 시리아의 핵 시설이 북한의 핵시설과 비슷한 모델을 이용해 개발하고 있던 시설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

■ 힐, 北에 과거 핵활동 검증방안 제시(7/22, 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은 이미 북한에 과거 핵 활동 검증 방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 아세안지역포럼(ARF) 참석 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힐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미국의 제안은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에 전달됐으며 북한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 백악관, 북한은 여전히 ‘악의 축’ 일부(7/21, 연합뉴스)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여전히 ‘악의 축’ 일부로 믿고 있다고 테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21일 언급, 페리노 대변인은 (핵 폐기로 다가가는) 북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포기의 반대급부로 제시된 인센티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 그는 부시 대통령이 두 나라를 여전히 ‘악의 축’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그들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포기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들을 (악의 축이라는) 카테고리에 남겨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다. 북·중 관계

■ 노동신문, 一國兩制 양안관계 지지(7/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22일 중국과 대만간 양안관계의 진전을 소개하면서 “‘한 나라, 두 제도’ 노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고 나라의 통일과 양안의 평화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중국의 대만통일 원칙인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지지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한나라, 두 제도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과 대만간 정기 항공노선의 운항 소식을 전하

고 이를 “서로 신뢰하고 공통점을 추구하며 통일과 번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려는 중국과 대만의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

■ 올림픽 기간, 北·中 접경 교량 모두 폐쇄(7/21, 연합뉴스)

- 중국은 올림픽 기간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경 교량을 모두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21일 “중국이 자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해 중국을 떠날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과의 접경 교량도 잠정 폐쇄할 것”이라고 전언
- 이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교량을 폐쇄하는 이유는 탈북자나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보안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

라. 북·일 관계

■ 北역사학자, 日 독도 생트집 용납 불가(7/26, 통일신보)

-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리광희 박사는 통일신보에서 “제 땅도 아닌 독도를 내놓으라고 생트집을 거는 일본의 침략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도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고증해주는 조선지도들 비롯한 옛문헌들이 수많이 보존돼 있다”면서 “거기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

■ 노동신문, 日 배상 통해 과거청산(7/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일본에 대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촉구, 신문은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과거청산의 책임’ 제목의 논평에서 “전범국인 일본은 한사코 과거 죄행을 인정하지 않고 그 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고 있다”며 “그들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감행한 온갖 죄행을 부정하고 찬미하면서 과거 청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특히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풀어야 할 정부적인 문제”라며 “일본군 위안부 범죄 문제는 법적인 배상으로 처리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 일본의 민간기금 구상은 “(일본)정부는 기

금의 운영비만 내고 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준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日 과거범죄 반드시 결산해야(7/2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4일 1907년 ‘정미7조약’ 체결 101주년(7.24)을 맞아 일본의 계속되는 “침략야망”을 경계하고 전대미문의 일본 과거범죄에 대해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고 주장

■ 北, 日MD, 동북아 안보 파열구(7/23,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3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노력을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
- 신문은 ‘또 다시 되살아난 미사일 광증’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자위대의 9월 중순 패트리엇 3(PAC-3)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지적, “일본은 안보상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미사일 방위체계수립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제 일본의 손에 완성된 미사일 방패가 쥐어지는 경우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은 기본적으로 완성되게 된다”며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 재침 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고 현실적 위협을 띄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

마. 기타 외교 관계

■ 박의춘 외무상, 베트남 도착(7/26, 조선중앙방송)

- 박의춘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마치고 25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 아세안 우호협력조약 가입(7/24, 연합)

- 북한이 24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 박의춘 외무상과 아세안 가입 10개국 외교장관들은 2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북·아세안 평화·우호협력 조약식’을 갖고 북한과 아세안 간의 불가

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약에 서명

- 북한 대표단 대변인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조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아시아 자주권의 원칙과 아세안 친선 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내 모든 나라와 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지역 평화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동남아 우호조약 가입을 환영하며 가입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
- ※ 1976년 아세안 가입국끼리의 협약으로 시작된 아세안 우호협력 조약에는 북한을 포함해 총 2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에 가입

■ 평양서 北·이집트 친선모임(7/23, 조선중앙통신)

- 이집트 혁명 56돌을 기념한 친선모임이 23일 북·이집트 친선학교인 평양 김성주소학교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자리에는 이스마일 압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주북 이집트 대사와 서호원 북·이집트 친선협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北·싱가포르 외교장관 회담(7/23, 조선중앙통신)

- 싱가포르를 방문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22일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회담에 북한측 대표단과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 싱가포르 외무부의 제2상임비서 등이 참석했다며 “쌍방은 두 나라 사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상호) 관심사인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

3 대남정세

■ 개성병원 남북협진 강화(7/26, 연합)

-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는 북한 치과 의사가 남측 진료소에 상주해 남측 의사들과 협력진료를 하고 남측 의사들이 북측 진료소에서 북한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등 개성병원의 남북협력 진료가 강화됐다고 26일 발표

- 정근 그린닥터스 상임공동대표는 7월 24일 개성공단에서 림홍배 북측 진료소장 등 북측 대표단과 만나 협진강화에 합의, 이에 따라 북측 최금철 치과 의사가 당일부터 남측 진료소에서 남측 의사와 함께 매달 북측 근로자 30명에게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있으며, 남측 의료진 3명도 매주 목요일 개성병원에서 북측 근로자들을 치료하게 됨.

■ 금강산 피살사건 합조단장 발표(7/25, 연합)

-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을 조사해온 정부합동조사단의 황부기 단장은 2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고(故) 박왕자씨의 사망 지점이 북측의 최근 설명과 100m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김태호 경남지사 방북 '일단 연기' (7/25, 연합)

- 경남도 김종진 행정안전국장은 25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와 경남 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는 최근의 남북 상황을 고려해 8월 3일부터 5일까지 계획했던 대표단 방북을 다음 기회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북측 일정상 9월 중에는 아리랑 공연 등 일정이 있어 9월 말을 전후해 새로 일정을 잡아 통일부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정부, 남북자 위로금 8억여원 심의(7/25, 연합)

- 정부는 25일 오후 제8차 남북자피해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를 열어 남북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8억1천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
- 위로금 지급은 2007년 10월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 남북자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 4월 첫 위로금 지급 결정을 시작으로 6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모두 29억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위로금은 총 53억원임.

■ 北, 남북 민간교류 '8·15 이전, 9·20 이후' 에 하자(7/24, 연합뉴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운동본부측은 당초 8월 21일 평양에서 북한과 함께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북측과 상호 합의해 행사를 9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갖기로 함.
- 양측이 일정 조율을 하는 과정에 북한은 7월 12일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명의로 운동본부측에 팩스를 보내 "8월 15일 이전이나 9월 20일 이후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준공식을 예정보다 앞당겨 8월 12일 갖는 방안을 제안

■ 정부, 민간단체 대규모 방북에 부정적(7/23,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 아리랑 공연 관람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인사들의 대규모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짐.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아리랑 참관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인사들의 대규모 방북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전에도 남북간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남북간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서 "원칙은 변함없지만 그러한 원칙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방북 심사에서 '상황논리'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28-8.3

7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예술공연 관람(8/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757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김 위원장은 현철해·리명수 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리용철·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군 지휘관 및 당 간부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예술선전대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선전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
- 김 위원장은 앞서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해군 제155군부대 예하 구분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김정일, 군부대 시찰(8/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1622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부대를 방문해 훈련상황을 지켜본 뒤 “전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기본담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김 위원장은 시찰을 마친 뒤 부대에 망원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선물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번 시찰에는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나. 정치 관련

■ 北, ‘금강산 사건’ 주민선전 시작(8/3,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발생(7.11) 20여 일만인 3일 공식 보도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알리기 시작

- 조선중앙TV는 3일 오전 아침 방송에서 배경 화면 없이 여성 아나운서가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 중앙TV 아나운서는 담화 전문을 소개하며 북한군이 향후 대응 조치로 제시한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남측 인원·차량 군사분계선 엄격 통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 등을 엄숙한 목소리로 강조
- 조선중앙방송도 3일 아침 같은 내용을 처음 소개했고,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도 일제히 이 소식을 내보낸 이후 뉴스시간마다 반복 보도
- 북한은 담화에서 남측이 “마치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에 들어온 침입대상을 이른 새벽에 산책하는 비무장관광객인줄 뻔히 알면서도 ‘과잉대응’한 것처럼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며 사건 발생지역이 “우리 군대의 엄격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정황에 따라 즉시적으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이라고 강조한 뒤 “넘어서는 안될 경계울타리를 벗어나 관광객이 우리측 군사통제구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죽음을 당하는 일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
- 아울러 “우리 군대가 취한 정정당당한 군사적 조치가 북남사이에 체결한 금강산관광법이나 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것처럼 법석 고아대고 있는 이유”를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려는 (남한 정부의) 고의적인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 때문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 ‘10·4선언’ 삭제 비난(8/1,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10·4선언관련 서술이 나중에 삭제된 것은 남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10·4선언을 반대하는” 행위라고 비난
- 신문은 ‘10·4선언을 반대하는 역적 행위’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ARF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것을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드러내놓았다”고 주장
- 신문은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국회라는 공식 장소에서 한 자기 발언마저 국제무대에서 공

공연히 뒤집어엮었다며 “이제는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

■ 北식량난은 외부탓, 살길은 자력갱생(7/24, 민주조선; 7/2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이제는 어디서 쌀을 가져 올 데도 없고 또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의 당국이 최근 자신들의 식량난 책임을 외부요인에 전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세계적인 식량 위기상황과 그 심각성을 언론 매체들을 통해 반복 전파하는 가운데 ‘자체 해결’을 강조하면서 하는 주장(식량확보보다는 식량난 이유 설명에 주력)
- 북한 당국은 특히 식량문제 해결이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이기 전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체제와 연결시키기도 함.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는 7월 26일에만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연쇄적 후과’, ‘세계적 식량위기 엄중’,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 ‘중국, 식량절약 사업’ 등을 방송
- 7월 24일 북한 농업성 최현수 부국장도 민주조선과 인터뷰에서 국제 곡물가의 급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이제는 식량을 주겠다는 나라도 없고, 줄 형편에 있는 나라도 없다”며 “믿을 것은 오직 매개 나라 인민 자신의 힘 뿐”이라고 강조

■ 北최고인민회의 선거, 11월로 연기(7/30, 연합))

- 북한이 올해 5년의 임기가 끝나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8월 초순께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1월로 연기했다고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이 30일 주장
- 좋은벗들은 소식지에서 연기 이유는 “9월 9일 정권 수립 60돌을 맞아 기념 행사를 치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도 오징어 풍년(8/1, 연합뉴스)

- 북한의 동해안에서도 올해 오징어 풍년이 들어 식량난에 허덕이는 내륙지방 사람들이 너도나도 오징어잡이를 위해 동해로 몰려들고, 여자들은 오징어를 나르거나 말리는 샅별이에 나서고 있다고 대북 인권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의 소식지가 보도
- 소식지는 북한에서 “올해는 제일 못 사는 사람과 꽃제비도 낙지를 배불리 먹는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징어가 풍년이며 7월 초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수확량이 증가해 함경북도 라진, 청진, 김책, 함경남도 신포, 강원도 원산 등 동해안 일대에는 오징어잡이 배를 타려는 외지인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설명
- 소식지는 오징어 160마리를 말려주면 20마리를 노임으로 받고, 비가 오는 날엔 100마리 정도 말려줘도 20마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팔면 하루 일당 5천원~8천원을 손에 쥐 수 있다고 소개하고 오징어 잡이 배를 타면 3개월간 북한돈으로 수백만원까지 벌 수 있고, 오징어를 운반하고 말리는 작업을 해도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설명

■ WFP평양소장, 2주내 한국에 대북 식량지원 요청(8/1, 연합뉴스)

- 장 피에르 드 마저리 WFP 평양사무소장이 “앞으로 2주내 한국을 포함한 각 국에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드 마저리 소장은 7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조속히 북한에 식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다가오는 몇달동안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추수를 앞둔 시점에서 각 가정의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 그는 WFP가 지난 6월 북한에서 8개도, 53개군을 방문해 350건 이상의 면접을 통해 식량수요 조사를 했으며 “2004년 이래 현지실사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고 “조사 결과에 상당히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
-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그는 통상적으로 한해 54만t이 부족한데 2007년 427만t이 생산돼 11만t이 부족하며, WFP 지원분 8만t, 미국과 중국

의 2008년 식량지원분 각 20만t을 감안하면 65만t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
- 드 마저리 소장은 북한 식량난의 원인으로 2년 연속 수해,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 감소와 더불어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북한 국내의 곡물 운송난을 꼽고 “올해 기름값이 50% 이상 올라 곡물이 충분히 생산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운반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

■ 내각은 黨의 경제정책 집행기구(7/24,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내각의 결정과 지시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문건”이라며 “조항별로 어김없이 집행”할 것을 강조
- 신문은 ‘내각의 결정과 지시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이자’는 사실에서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지도 관리하는 경제사령부”라면서 “당의 노선과 경제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내각의 결정, 지시가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
- 신문은 “법적 성격”을 띠는 내각의 지시와 결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지도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때 달려 땀띠기식(임시방편)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을 깊은 연구와 구체적인 타산(계산) 밑에 전망성있게 설계하고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임.

■ 농업생산은 심각한 정치문제(7/24, 민주조선; 조선중앙방송)

- 북한 농업성의 최현수 부국장은 “오늘 농업생산을 늘리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이기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운명, 더 나아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 최 부국장은 북한의 농업생산의 저하의 한 원인으로 자연재해 외에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 책동”을 들기도 함.
- 조선중앙방송도 7월 24일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사회주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첫째 가는 중대사”라고 주장

■ 北구제역 계속 발병, 방역사업 진행(7/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소, 돼지 등에 발생하는 전염병인 구제역이 사라지지 않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 기구의 크리스찬 마차이카 긴급구호사업 국장이 29일 발표,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최근까지 100건가량의 발병 사례가 보고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

- 2007년 초엔 평양 인근 농장에서 소 466마리와 돼지 2천630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돼 살처분됐음.

■ 北, 農農격차 완화 고민(2008년 2호, 경제연구)

- 경제연구는 “산간지대 농민의 생활수준은 별방(평야)지대 농민에 비해 의연히 뒤떨어져 있다.”며 북한에서 평야의 곡창과 산간지역간 농민들의 생활수준 격차와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데 따른 고민을 드러냄.
- 경제연구는 특히 “농촌 지대 사이 차이는 농업 생산력 발전 수준과 농민의 생활수준 차이가 된다”면서 “산간지대의 낙후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인 농업을 빨리 발전시킬 수 없으며, 농업 근로자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
- 이러한 생산력 및 생활수준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연구는 ▲산간지대에 적합한 농기계 보급을 비롯한 농업 기술장비 지원과 공업 생산력 균형배치 ▲가축과 과일나무 등 산간의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의 지역화 및 전문화를 내놓음.
- 경제연구는 “협동경리에서 창조된 분배 몫의 크기와 부업에서 얻는 현금 수입”을 합친 농가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업생산을 전문화, 다각화하고 부업생산을 늘려 산간지대 농민의 수입을 빨리 늘려야 한다”고 강조

■ 경제연구, 예산의 횡령·유용·전용 통제 강조(2008년 2호, 경제연구)

- 경제연구는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
- 경제연구는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며 ▲재정규율을 엄격히 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
- 경제연구는 재정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재정기관과 기관·기업소의 재정관리부서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물론 재정검열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기업소들에 재정검열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검열을 강화할 것을 주문

■ 장사 단속에 평양시민도 고통(7/28, 연합뉴스)

- 북한당국이 28일 현재 평양을 비롯한 전역에서 비사회주의그루빠(비사그루빠) 검열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평양시민들도 살기 힘들어져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평양은 북한의 어느 지역보다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히' 주던 배급도 한 달에 5~10일 분량으로 줄어듦. 따라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거나 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먹고 살 방도가 없어졌음. 그러나 당국은 이런 현실을 놓고 "사회주의 수도의 면모를 손상시키고 나라 망신시킨다"며 비사그루빠와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졸업생들을 풀어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대대적인 검거와 단속벌이고 있음.
- 단속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면 즉각 지방으로 추방시켜 주민들로서는 억울하지만 입도 병긋할 수 없음.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서 24절기 설명 CD 인기(8/2,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에서 입춘, 하지, 백로 등 24절기를 소개한 CD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조선의 24절기' 라는 CD에서는 1900~2050년의 양력과 음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24절기 기상·기후의 특징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그림, 음성 등이 담겨있고, 지구의 운동, 달의 모양과 운동, 태양의 운동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리언(이언: 날씨 현상과 관련된 향간의 속담)' 도 소개

■ 평양, 찜통더위에 맥주집 인기(8/2, 조선신보)

- 습기가 많은 삼복더위가 이어지면서 맥주집들은 오후 5시만 되면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일제히 문을 여는데, 무더운 삼복더위가 이어지는 요즈음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고 신문은 보도
- 현재 평양시에는 2002년 5월부터 가동한 대동강맥주공장에서 만든 맥주를

판매하는 150여 곳의 '대동강맥주집' 과 1946년 설립된 평양맥주공장의 제품을 파는 수십개의 '평양맥주봉사소' 가 운영

- 평양맥주공장은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전통적인 맛' 을 독특하게 계승하고 있어 "평양맥주는 대동강맥주에 못지 않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손님들이 "대동강맥주는 가스 함량이 많아 시원하고 쨍하다(톡 쏜다)"거나 "평양맥주는 구수하고 상쾌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

■ 평양식당들, 남녀평등법 기념 여성 우대(8/2, 조선신보)

- 평양시내에 있는 식당들이 '남녀평등권법령 발표일' 을 맞아 여성들을 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 조선신보는 법령 발표 기념일인 7월 30일 남성이 여성을 앞세우고 나선 노인 부부, 중년 부부, 청춘 남녀 등 수많은 쌍의 남녀가 식당을 찾았다고 보도했으나 '우대' 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음.
- ※ 북한은 1946년 7월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한 데 이어 '사회주의헌법' 제 77조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北, 독도의 다양한 이름 소개(8/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독도는 조선의 섬들 가운데서 별명이 가장 많은 섬이기도 하다"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독도의 다양한 이름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강조

■ 北, 최홍희 태권도 백과사전 발간(8/1,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에서 국제태권도연맹(ITF) 창립자인 고 최홍희 총재가 집필한 '태권도백과사전' (전 15권)을 펴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총 4천800 페이지 분량의 이 사전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함께 출간됐으며 최 전 총재의 경력, 태권도 발전사와 기술, 태권도인들의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특히 5가지 태권도 동작 구성과 함께 3천200여 가지에 달하는 동작을 사진과 함께 담았음.
- ※ 최 전 총재(1918~2002)는 함경북도 명천 출생으로, 남한에서 대한태권도협회(1959)와 국제태권도연맹(1966)을 차례로 창립하고 1972년 캐나

다로 이민한 후 북한에서 태권도 붐을 일으켜 '북한 태권도의 대부' 로 불림. 최 전 총재가 정립한 태권도 규칙과 기준을 따르는 북한은 평양 신 미리 애국열사릉에 있는 그의 묘소에서 추모행사도 개최하고 있음.

■ 아리랑 공연 '일시 중단' 설(8/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대규모 집단체조인 '아리랑' 을 올해 공연 후 중단하고 고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는 2012년 새로운 내용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남측 관광객 확보 문제?)

※ 아리랑은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맞아 2002년 4월 처음 상연된 후 매년 '재형상(개작)' 작업이 이뤄져왔음.

■ 김정일, 음식 못하는 여성은 불합격(2008년 6월호, 조선여성)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음식을 거론하면서 "음식은 여성의 미(美)"라며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 못하는 여성은 사실상 여성으로서는 불합격"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여성 월간잡지 '조선여성' 최근호(2008.6)가 소개

- 잡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0여년 전인 1979년 3월 한 여성간부와 음식을 주제로 대화하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알뜰한가 하는 것은 그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면 알 수 있다"며 "여성들은 물론 품성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

- 이어 그는 "음식을 늘 대강대강 만들어 먹이는 여성과 사는 남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이라며 "늘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자기에게 참다운 사랑을 바치지 않는 안해(아내)와 한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 그는 "정성이란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말했다는 것

- 김 위원장은 또 "음식은 과학"이라며 "여성들이 음식을 잘 만들려면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경험도 쌓아서 음식에 대한 지식을 깊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음식 한가지라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고 탐구하고 노력하는 바로 여기에 여성들의 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잡지는 소개

■ 개성시에 홍수 피해 발생(7/31, 조선중앙TV)

- 개성시의 여러 곳에서 최근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
- 방송은 “얼마 전 갑자기 들이닥친 강한 폭우와 비바람으로 개성시 안의 여러 곳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개성시 판문점리와 동창리, 립한리를 비롯한 시 안의 전반적인 리(里)들에서 1천493정보(1정보는 3천평)의 논과 40정보의 밭들이 침수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피해상황을 화면과 함께 보도, 조선중앙TV는 “17개소에서 1천138m의 도로가 심하게 파괴됐고 수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졌다”며 “지금 시에서는 큰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서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덧붙임.
- ※ 이와 관련, 개성공단 지원단 관계자는 “개성지역에 7월 24일 하루동안 180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보고는 받았다”며 “하지만 개성공단은 하수처리 등에 큰 문제가 없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 北영화 소재로 남녀간 애정관계 증가(2008년 2호, 예술교육)

- 북한 영화에서 ‘선군시대’에 맞는 인간과 생활을 그리기보다 남녀간 애정관계 같은 것에 눈돌리거나 사무실이나 집안 세트를 호화롭게 꾸미는 등 “비본질적이고 사말(些末, 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세태적인 생활”에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최근 북한 영화의 이러한 동향은 북한의 조선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 김완중 서기장이 계간지 ‘예술교육’ 2008년 2호에 쓴 평론에서 지적, 그는 “인민의 사상교양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영화보다는 선정적 내용에 영화적 기교를 중시하는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

■ ‘세계 말라리아의 날’ 행사 개최(7/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세계 말라리아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행사에는 보건성과 평양시 보건부문 관계자, 북한주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리봉훈 보건성 부상과 아르빈 마수르 세계보건기구(WHO) 평양대표부 대리대표가 연설

- 또 행사 참석자들은 평양시 중화군 룡산리 인민병원을 방문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이 병원의 예방활동을 참관

※ WHO는 매년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2001년부터 이를 지원해왔고 2008년에도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제 사업을 위해 약품 및 진단 장비, 교육 및 기술지도 등 분야에 현금과 현물 합쳐 총 118만달러 상당을 지원

■ 노동신문, 여성들에 더 큰 역할 독려(7/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북한에서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62주년을 맞아 여성들에게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을 촉구

■ 北, 교육기관들에 철저한 수해예방 당부(7/17, 교육신문)

- 교육신문은 "장마와 큰물(홍수) 피해가 설마 우리 단위에까지 미치겠는가 하는 만성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각급 학교에서 수해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 좋은벗들, 北 판교읍에 식량난 비방글등 불평 확산(7/29, 연합)

- 유엔 식량관련 기구가 최근 북한의 함경도와 량강도의 식량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도 '만성적인 식량난' 상황인 것으로 분류한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식량난에 대한 불평·불만이 확산되고 비방글이 나붙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9일 주장

- 소식지는 "강원도 판교군 판교읍에 식량 사정과 관련해 사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곳곳에 나붙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비방문중 1차로 회수된 것만 60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언

- 소식지는 "비방문이 나붙은 곳은 즉각 봉쇄"됐으며 "검찰소, 보위부, 보안소는 긴급 합동회의를 연 뒤 통행을 차단하고 외부인들을 검열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

- 소식지는 "백날 시찰하러 다니면 뭐하나. 백성들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라며 노골적인 불평·불만이 퍼지고 있다"면서 "당국에서는 '말 반동'을 주시하며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런 소리를 잠재울

만한 묘책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

■ 北식량난 한쪽에선 ‘피자’ 만들기 소개(2008년 5월호, 천리마)

- “빼짜는 이렇게 만드세요.” 잡지 천리마(2008.5월호)가 이탈리아 요리인 피자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 북한은 피자를 ‘빼짜’로 표기하고 있음.

■ 북한선수단 본진, 2일 오전 베이징 도착(7/28, 연합)

-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리선호 서기장이 이끄는 북한선수단은 2일 오전 9시45분 고려항공 직항편으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유도와 탁구, 역도, 레슬링, 복싱, 사격, 체조, 마라톤, 여자축구, 양궁, 다이빙 및 수중체조 등 11개 종목에 선수 63명과 경기·본부임원 71명 등 총 134명을 파견해 역대 최대 규모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성 김, 北·中과 북핵 검증의정서 협의(7/31, 연합)

- 대북협상 특사로 내정된 성 김 미국 국무부 전 한국과장이 31일 오후 중국에 도착해 중국 및 북한과 북핵 검증의정서에 대한 세부협의를 들어감.
- 앞서 손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전 과장의 방중 일정을 공개한 뒤 “그는 중국과 북한의 협상 파트너들을 만나 북핵 협상의 진전을 모색하고 의정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北, 핵검증 때 샘플채취 불허(7/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핵신고 검증을 위한 영변 핵시설의 방문은 허용하겠지만 샘플 채취는 불가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방송은 ‘미국의 정통한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 “북한은 5mw 원자로와 재

처리시설, 다른 영변시설에서 핵샘플 채취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당초 의사를 거둬들였다”면서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회담 때 이 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전언

■ 北, 美 위협 강화 땐 핵무력 계속 강화(7/29, 민주조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29일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책동이 강화되면 우리 공화국(북한)도 부득불 위력한 자위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어째서 사태를 왜곡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언급
- 민주조선은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최신 군사장비들을 집중배치하고 각종 군사연습을 벌임으로써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자극하고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적대관계의 청산에서 “관건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버리는 데” 있지만 “미국으로선 아직까지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나. 북·미 관계

■ 북·미, 8월 11일전 검증체제 추가협의를 할 듯(8/3, 연합)

- 미국과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 11일 이전에 핵 검증체제 협의를 마무리짓기 위해 조만간 핵심 당국자간 추가회동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특히 검증체제와 관련된 쟁점인 샘플채취와 불시방문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 선언을 시한 이후로 연기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음.
- 6자회담과 비핵화실무그룹회의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과 미국간 협의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조율이 안될 경우 11일 이전에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3일 밝힘.
- 이 소식통은 “미 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절차상 시한(8월 11일)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협의에 주력하고 있으나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베이징에서 진행된 성 김 미국무부 대북협상특사와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간 협의이후 양측이 추가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美 그레이엄, 김영대부위원장 면담(7,31: 8/2, 조선중앙통신)

- 미국 종교지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31일 북한을 방문, 방북중인 미국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그레이엄 목사는 2000년 5월과 2002년 6월에 각각 방북한 적이 있으며 2005년과 2006년 8월에는 방북한 특별보좌관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선물을 보내기도 했음. 특히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마음대로 백악관을 드나들 정도로 부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 지도자 사이의 간접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됨.

■ 美의원, 北에 관광객피살 공동조사 촉구(8/1, 연합)

-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북한측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 하원의원이 최근 미 의회에서 북한측에 박씨 피살사건 남북한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31일 확인됨.

- 미 하원에 따르면 태디우스 매코터 의원(공화, 미시간주)은 30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7월 11일 발생한 북한 초병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박씨 총격 피살사건을 언급, “박씨 사망사건은 국제적 정밀조사 가치가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박씨 피살사건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결정 및 의회 통보가 나는 물론 다른 의원들에게도 선부르고(premature),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illconsidered)는 견해를 갖게 한다”고 주장

■ 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참석(8/1, 연합)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1일 상원 리셀빌딩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

- 힐 차관보는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해 2단계를 마무리하는 국면에 이르는 진전을 거뒀지만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도달하려면 북한의 핵 무기와 핵프로그램 포기 그리고 핵시설 해체, 핵물질 이전, 북한 비핵화 검증 등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문제들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때까지 구체적이고도 솔직한 대화를 북한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대가로) 북한과 보다 더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인권문제는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
- 힐 차관보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지역에서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
- 특히,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재미교포 김동식 목사의 문제를 북한에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부시, 北에 핵포기 결단 촉구(7/31, KBS)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월 5~6일 한국방문을 앞두고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한다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의문”이라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면 미국 및 다른 6자회담 관련국들과 지금과는 다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침. 부시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내려야 할 선택이고 우리는 이미 선택했다”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을 촉구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관련,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핵 검증 대상에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만아니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핵이전활동에 대한 검증이 모

두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힘.

- 부시 대통령은 또 “우리(미국)로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요구한 것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듣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이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존중하는 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는 또 “일각에선 내가 단지 일을 진전시키는 것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나는 결과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힘.
- 부시 대통령은 ‘평양에 북미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 “우리의 초점은 6자회담 안에서의 관계”라고 답변

■ 노동신문, 北·美평화협정 체결 거듭 주장(7/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정전협정 체결 55주년에 즈음해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유명무실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거듭 촉구
- 신문은 ‘평화협정 체결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데 근본 장애는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라며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종식시키고 조미 사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中대사관, 중국군 창설 기념연회 개최(8/2, 조선중앙방송)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쑨옌핑(孫延風) 무관이 중국군 창설 81돌에 즈음해 1일, 대사관에서 북한 군 관계자들을 초청, 기념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
-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군 간부들과 북한 주재 외국 사절과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됐으며,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도 참석

■ 김영남, 中올림픽 성공 기원(8/1,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일 방북 중인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 만나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리징텐(李景田)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연구실 주임 겸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中스포츠업체, 北대표팀 공식후원(7/31,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의 스포츠용품 전문업체가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팀을 공식후원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중국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에 본사를 둔 ‘차이나 홍싱(鴻星) 스포츠 리미티드’ 라는 업체가 2007년 북한 올림픽대표팀 및 여자축구 대표팀과 후원계약을 맺고 7월까지 운동복, 양말, 운동화 등 필요품 지원을 마무리했음.
- 이 업체는 ‘정복하라’는 뜻의 ‘Erke(鴻星爾克)’ 라는 브랜드로 각종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 선수들도 같은 로고가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올림픽에 출전
- 업체의 제니 여 부사장은 북한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희망과 의지가 높는데 “북한이 금메달을 따다면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먼저 (후원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언급, 이 업체는 북한 팀 후원 계약이 베이징올림픽까지이며, 향후 후원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FA는 보도

■ 中공산당 대표단 방북(6/28, 연합)

- 중국 공산당 대표단 6명이 28일 오후 북한 노동당 중앙국제부의 초청을 받아 북한 방문,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리징텐(李景田)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연구실 주임 겸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보도

라. 북·일 관계

■ 北, 日문화재약탈 사죄·반환 요구(8/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일제때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문화재 약탈을 “인류 문명에 칼질한 엄중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사과와 반환 등을 통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신문은 “일본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죄도 없이 약탈한 문화재를 계속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반환에 대해 어떤 담보나 약속도 없이 수염을 내리쉴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조선문화재 파괴, 약탈 죄악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

■ 北, 발견·선점면에서도 독도는 한민족 것(8/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일 역사와 지리적 측면은 물론 무인(無人)지역과 주인이 없는 섬의 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며 그 논거를 소개

■ 日침략범죄 반드시 결산(8/1, 일제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 북한의 ‘일제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는 1일 일제의 징병제 시행 65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일제의 침략범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
- 이 단체 대변인은 담화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동의 원인으로 남쪽의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면서 “과거에 구애되지 말아야 한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대일관계 언급을 지적

■ 北, 日 재침 목적 의도적 영토분쟁 주장(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난하면서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목적은 “그를 구실로 재침을 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北, 日 독도강탈 용납 불가(7/29, 역사학학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역사학학회'는 2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해외침략 야망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티끌만치라도 침해당하는 경우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

마. 기타 외교 관계

■ 박의춘 북한 외무상 귀국(8/2, 조선중앙방송)

- 박의춘 북한 외무상 귀국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와 이란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참석한 뒤 2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글린 포드 EU의원 방북(8/1, 조선중앙통신)

- 유럽의회 내 대표적 '북한통'으로 알려진 영국 노동당 소속 글린 포드 의원 일행이 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포드 의원은 최근 10년간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2005년 7월에는 유럽의회 차원의 북핵 해결 지원을 목적으로 남·북한을 연쇄 방문하기도 했으며 2008년 3월에도 방북했음.

■ 北, 비동맹회의 채택문건 그대로 보도(8/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 채택문건 중 남북관계 부분을 가감 없이 그대로 소개
- 조선중앙방송은 "상(장관)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과 2007년 10월 4일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이미 채택된 기타 모든 북남 사이의 공동성명과 합의들에서 천명된대로 조선 인민 자신의 진정한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시했다"고 보도

■ 유엔, 北에 200만달러 긴급기금 지원(7/31,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 유엔이 200만달러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을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기구와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존 홀름스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이 밝힘.

- ※ 유엔은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첫 CERF 할당 계획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등 14개 지원 대상 국가를 지정했지만,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음. 올해 두번째 CERF 지원 대상에 오른 국가는 북한 외에 차드(680만달러), 이라크(500만달러), 아프가니스탄(460만달러), 시리아와 스리랑카(각 400만달러), 브루나이(360만달러) 등임.
- 릴리프웬은 이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50만뉴질랜드달러(약 3억7천만원)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

■ 北교향악단, 영국 공연 9월 이후로 연기(7/31, 연합)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이 재정 후원이 유보된 데 따라 당초 예정됐던 9월에서 그 이후로 미뤄짐. 공연을 추진해온 영국인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는 교도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서울과 뉴욕도 방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
- 그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연주가 150~160명과 지원 인력들이 움직이는데 최소한 79만2천 달러가 소요되는데, 일정이 연기된 것은 공연을 지원하기로 했던 은행이 후원을 유보한 데 따른 것임. 이 은행이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클라크는 한국과 미국 정부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방문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

■ 北매체, 베트남 서기장, 10·4선언 지지(7/29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최근 베트남을 방문, 농 득 마잉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을 면담했을 때 마잉 서기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베트남은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3 대남정세

■李大통령-北김영남, 8일 베이징서 회동 예정(8/3,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이 8월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8~9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오찬에서 김 위원장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3일 전언
- 이 관계자는 “후 주석의 초청 오찬에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나란히 초청을 받았으며, 같은 테이블에 좌석이 배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남북한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北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 요약(8/3, 연합)

- 북한은 3일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의 특별담화 형식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경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남한 정부의 대응기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면서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등 반발 조치를 발표
- 담화는 피살된 관광객의 군사통제구역 침범 목적 등 “우리로서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따지지 않고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감의 뜻도 표명했는데 남한 정부가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이번 자신들의 조치에 대한 남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더욱 대립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

■민노당 지도부, 8월말 평양 방문(8/1, 연합)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지도부와 당원들이 8월 21일이나 22일부터 닷새간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
-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이 전날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민노당 평양방문 일정에 합의했다”고 발표

- 방북단은 지도부와 당원 등 6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전세기를 이용, 김포-평양간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며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양당 대표회담을 비롯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정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 민노당이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방북하는 것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 남북 불교도, 평양서 해외 문화재 반환 협의(7/31, 연합)

- 불교 관련 단체들이 8월 초 북한 평양을 방문, 북측 관계자들과 '해외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방안을 협의
-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의장 김원웅 전 국회의원)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스님) 등은 8월 5일부터 4박 5일간 평양을 방문해 일본 공내청에 보관된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북측과 협의한다고 30일 발표

■ 통일부, WFP 공식 대북지원 요청시 입장 결정(7/30, 연합)

- 통일부는 30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세계식량계획(WFP)이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올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힘.

■ 코레일, 실향민 위한 개성관광열차 운행(7/30, 연합)

- 코레일 전북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실향민 등을 위한 개성관광열차를 오는 9월 7일 한 차례 운행한다고 발표

■ 정부, 개성공단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7/30, 연합)

-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30일 "오늘 개성공단 건설현장, 시공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공사 점검단 편성 방안은 물론 개성공단 내 도로·건물 등 토목 공사 안전점검 일정,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발표
- 정부의 안전점검 방침은 개성공단 내에서 안전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김 대변

인은 발표, 안전점검은 이르면 8월 말께 실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음.

■ **對남북협력사업자 감독·행정조치권 강화 (7/30, 연합)**

-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와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검사·조사 권한을 명문화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정지도 가능하도록 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31일 예고할 예정

<첨부1>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08.03) 요약

◇담화 발표 배경

우리는 지금도 사살된 관광객이 남들이 깊이 잠든 이른 새벽에 무슨 목적으로 넘어서는 안될 경계 울타리를 넘어 들어왔는지, 또 군사통제 구역안에 깊숙이 들어와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고 경위가 어떠한지 비록 당사자가 자기의 불찰로 불상사를 당하였지만 그가 같은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유관부문을 통해 유감의 뜻도 표명하였다.

하지만 (남한측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구실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일과 같이 무분별한 반공화국(반북) 대결 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여 왔다.

여기에는 이명박 자신과 통일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앞장 서고 있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정당, 단체들이 합세하고 있다.

우리는 (남한측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걸고들며 계속 분주탕(소란)을 피우고 있는 조건에서 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소동은 불순한 기도밑에 제 나름의 추측과 판단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의도적으로 벌리는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다.

◇사건 경위 설명 되풀이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안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침입 대상을 발견한 것은

지난 7월 11일 새벽 4시 50분경 경계 울타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이었다.

당시 전투근무중에 있던 우리 군인은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의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 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서라고 규정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침입자는 거듭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황망히 달아나기 시작하였으며, 공탄까지 쏘며 어떻게 하나 멈춰세우려는 우리 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죽음을 초래하였다.

금강산 군사통제구역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대의 엄격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정황에 따라 즉시적으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이다.

(남한 국군의 경우에도) 상대가 자기의 관할통제 구역안에 들어서면 먼저 경고신호를 하고 불응하면 경고사격을 하게 돼 있으며 그래도 불복하면 조준사격을 한다는 이른바 ‘교전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 관광객이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멈춰서라는 우리 군인의 요구에 응하였더라면 죽음을 당하는 일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터놓고 말하여 군사통제구역 안에 불법침입한 그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말이지 우리로서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 현장조사 요구 거부

현지조사에 대해 말한다면 죽은 당사자를 금강산관광지에 상주하고 있던 남측 인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넘겨받아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금강산관광법과 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광지안에서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제하여 놓은 것이다.

(남한 정부는) 이러한 규제사항들이 마치도 관광지 밖에 있는 우리 군사통제구역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현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사태에 몰

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데로부터 그 이행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재개'에 대한 떠벌임이 여론환기를 위한 빈 냇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북한군의 조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남한 정부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1. 우리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다.
2.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할 것이다.
3.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의 북남관계가 파국적인 사태로 번져가는 경우 시대와 민족 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8.4-8.10

8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북한군 여성중대 시찰(8/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3407부대 산하 3대혁명붉은기 여성중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김 위원장은 부대를 방문해 훈련을 지켜보고 근무 상황을 파악한 뒤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
- 시찰에는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김정일, 함남 양묘장 시찰(8/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리원군 산림경영소의 양묘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김 위원장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과 함께 그 보호관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우리 나라의 기후 후 풍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얻어내고, 그것을 널리 퍼치기(퍼뜨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동행
- 앞서 김 위원장은 함경남도 함주돼지공장과 함주평풍덕염소목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김정일, 잇단 군부대 시찰(8/4, 8/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중흡7연대칭호’를 받은 북한군 제3704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통신은 8월 들어 일요일인 3일을 제외하곤 매일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부대에서 훈련 실태와 정치사상 교육에 대해 보고받고 “군대에서 사상사업에 계속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전군을 우리당의 혁명사상으로 꼭 들어찬 사상의 순결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시찰에는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수행

- 앞서 김 위원장은 북한군 1366군부대와 제1353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나. 정치 관련

■ 당·군·정 간부 백두산 답사(8/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과 군, 정부 간부들이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백두산 밀영' 현지지도와 '정일봉' 명명 20돌을 맞아 백두산을 답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통일정책해설서에 “흡수통일론” 반발(8/9, 통일신보; 8/10,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남한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08 통일정책 해설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라는 대목을 강조한 것은 “북의 제도를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족대결의 심화와 분열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해설서에 소개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반통일적 정체에서 추호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

■ 北단체, 南정부에 구속학생 석방 촉구(8/9, 범청학련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8/7, 조국전선 대변인 담화)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9일 남한 정부가 남한 사회에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촛불시위 등과 관련해 체포·구속한 학생과 주민들을 석방하라고 촉구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대변인도 7일 담화를 발표해 이명박 정부가 남한 사회를 “신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

■ 노동신문, 南 대결관념 버릴것을 촉구(8/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대결관념을 버리는 것은 시대와 민족의 요구' 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남조선에서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인 ‘주적’ 론이 공공연

- 히 머리를 쳐들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직접 겨냥해 이같이 주장
- 신문은 “북과 남은...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면서 “동족과 대결하려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북남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며 통일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반민족적이며 반 통일적인 사상관념”이라고 주장

■ 北, 경제원조에 강한 경계감 표출(8/7, 민주조선)

-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조선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 원조에 대해 “새로운 착취와 약탈의 한 형태”라고 폄하하며 “이윤이 없으면 원조도 없다”고 강한 경계감을 표출
- 민주조선은 ‘새 사회건설에서 자기 힘에 의거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글에서 “외세에 의존하면 무진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망할 수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상기시킴.
- 신문은 아울러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발전도상 나라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갈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남남(南南)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 자립과 민족적 번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

■ 北 농장 ‘대의원’ 활동(8/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양시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의 위영애(42) 관리위원장의 일상모습을 자세히 소개
- 조선신보는 대의원들 중에는 평양시 도시관리소 작업반장, 일용품공장 직장장,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평범한 집단의 책임자들’이 많다면서 대의원들은 “절대다수가 자기의 본업”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 대의원의 “특징”이라고 언급
- 위 위원장은 대의원으로서 1년에 1~2차례 정기대회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나 각종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일상 모습”이며 “모내기로 시작되는 농사일은 물론 농장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분초를 아끼고 동분서주한다”고 신문은 보도
- ※ 남한의 국회의원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5년마다 선거가 이

튀지며 현재의 제11기 대의원은 2003년 8월3일 선거(인구 3만 명당 1명)를 통해 모두 687명이 선출, 이들 가운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제 649호 선거구)을 비롯해 당·정·군 주요 인사들은 물론 계순희(유도), 정성옥(마라톤)과 같은 스포츠 스타도 포함

■ 北박길연, 외무성 부상 복귀(8/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박길연(65) 전 유엔주재 대사가 외무성 부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이징올림픽 개최식 참석차 평양을 출발한 소식을 전하면서 “외무성 부상 박길연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함께 떠났다”고 보도
 - ※ 박 부상은 2001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유엔주재 대사로 활동, 그는 1982년 외교부(현 외무성) 미주국장을 거쳐 1985년 유엔주재 대표부 참사, 1991-96년 유엔주재 대사를 역임했으며 귀환 후 외무성 부상에 임명돼 2001년 유엔주재 대사로 다시 임명될 때까지 활동
 - ※ 현재 북한 외무성에는 박의춘 외무상, 강석주 제1부상과 함께 김창규(내부행정), 김계관(핵문제), 김영일(아시아), 궁석웅(유럽), 김형준(중동·아프리카), 최수현(국제기구) 부상 등이 지역 및 분야별로 활동

■ 北, 10·4선언 이행 투쟁(8/6, 평양방송; 8/5, 노동신문)

- 평양방송은 6일 “현 시기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데서 그 무엇도 이 북남선언들(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대신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와 통일의 길에 조성된 “엄중한 파국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자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 의지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
- 노동신문도 5일 ‘자주통일, 평화변영 위업의 이정표’라는 제목의 글에서 “10·4선언은 민족의 공리공영을 도모하고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라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여기에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주장

■ 北, 새 세대 ‘혁명전통 계승’ 강조(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강성대국’ 건설은 물론 사회주의 고수를 위해 “혁명전통의 계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노동신문은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역사적 뿌리이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설을 통해 “혁명전통의 빛나는 계승 속에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고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번영이 있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기관·기업 등에 석탄 자체조달 독려(8/2, 민주조선)

- 북한 당국이 대규모 탄광 개발 외에도 지역마다, 부문마다 중소 규모의 탄광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개발할 것을 독려, 민주조선은 2일 “중소 탄광을 통해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것은 나라의 지하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며 “대규모 탄광들이 채굴 가치가 없어 손대지 않은 구역, 이미 채굴이 끝난 구역에서 중소탄광을 실속있게 운영해 남아 있는 석탄을 모조리 캐내야 한다”고 강조

※ 북한 내각은 2006년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해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허가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

■ 北, 북부지역에 밤·호두나무 재배 연구(8/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각종 경제림 조성과 함께 생육가능 지역 확대에 노력, 조선중앙방송은 9일 북부지역인 자강도 산림과학연구소가 “밤나무 불완전 재배지대”였던 자강도 여러 지역에 밤나무를 번식시키는 한편 “호두나무, 분지나무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수종의 나무를 풍토 순화시켜 안전재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

■ 평양시 재활용 생필품 2천종 전시(8/8, 조선신보)

- 8월 1일부터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2천종에 달하는 재활용 생필품을 선보였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는 공장 노동자와 노년층, 주부들이 “해당 단위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주민세대에 잠겨 있는 자재를 회수, 이용해 필요한 각종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 평양시 23개 구역 및 군내 공장과 기업소의 생활필수품 직장, 작업반과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가내편의봉사원이 참가했다고 소개하고 이전 전시회에는 섬유제품이 많이 출품됐지만 올해는 장기관, 옷놀이판을 비롯한 전통놀이 기구, 단추, 옷솔, 머리핀, 완구 등 각종 일용품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도

- 전시회를 주최한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이번 행사기간 기술교류와 경험교환도 진행한다고 발표

■ 2008년 北수확량 현지조사 재개 전망(8/8, 미국의소리방송)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05년부터 중단된 북한 내 농작물 수확량 조사를 올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청 팡 FAO 아시아 담당관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
- 팡 담당관은 VOA와 전화 통화에서 “FAO가 올해 북한에 수확량 조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받으면서 보다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확량 증산과 식량안보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FAO의 작황 조사를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 팡 담당관은 “북한 당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장마철의 날씨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오는 9월 초에 북한에 관련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WFP, 5억8천만 달러 대북구호 프로그램 실시(8/7,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 세계식량계획(WFP)이 9월부터 62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긴급구호사업(EMOP)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웹’이 7일 발표
- 이에 따르면 WFP는 대북 긴급구호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보다 폭넓은 기부를 받기 위해 대북 구호복구사업(PRRO) 예산안도 대폭 수정·보충
- WFP는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평양, 량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의 131개 군에서 구호활동을 펼 것이라며 곡물 47만

1천t, 콩 5만 4천t, 기름 1만 6천t, 칼슘 강화 식품 9만 1천t을 지원할 예정, 그러나 릴리프웍은 9월 시작되는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미언급

■ 北, 식량 절약은 식량 생산과 같다(8/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식량 위기'가 세계적인 추세여서 자체 해결이 최선이라며 "식량 절약이 식량 생산과 같다"고 '절약'을 강조

■ 北, 대용비료 생산 안간힘(8/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7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대용비료 생산을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대용비료 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평양 순안구역내 협동농장들을 소개

■ 北, 식량대책으로 '林農복합영농' 확대(8/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산악지형인 스위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악 경사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황해북도 수안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벌여온 '경사지 관리대상 계획'을 올해부터 황해북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임농 복합경영이란 경사지에서 토양 침식을 막아 장기적으로 토지 생산성을 높이려는 토지관리 방식으로, 북한은 "동일한 토지구획 안에서 농작물 생산과 입엽, 목축업 생산을 동시에 또는 교대로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는 지속적 토지관리 체계"(조선신보, 2007.7.18)

■ 北, 올해 곡물 170만t 증산 전망(8/6,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쌀 40만t을 포함해 170만t 정도 늘어나 570만t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추정, 6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웍'에 따르면 FAO는 세계 식량 현황을 종합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쌀 생산량이 2007년 120만t에서 올해 160만t, 옥수수는 130만t에서 200만t, 그 외 잡곡류는 150만t에서 210만t으로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北, '우리식 철 생산' 강조(8/4, 평양방송)

- 북한이 원자재와 에너지난 속에서 자체의 원료와 기술로 철강재를 생산할 것을 꾸준히 강조, 평양방송은 4일 “최근 철강재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 있다”며 “북부와 서부에 있는 금속공장에 주체철 생산공정이 완비돼 생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
- 방송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보산제철소에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다고 소개
- 북한에서 ‘주체철 생산’이란 “나라의 긴장한(부족한) 원료와 연료를 적게 쓰면서 철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철강 생산을 일컫는 말로, 최근 금속산업 현대화를 이러한 공정의 도입과 연관짓고 있음.

■ 北, 광산 흙잡돌로 '해상숲' 조성(8/4, 조선중앙통신)

- 황해남도 은률군에 있는 은률광산의 장거리벨트 컨베이어 주변이 '해상숲'으로 변모해 새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소개, 중앙통신은 “서해 기슭에 있는 은률광산의 벨트컨베이어수송선을 따라 풍치 수려한 푸른 숲이 펼쳐졌다”면서 “바다 위에 선경을 펼친 푸른 숲으로 지금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
- 북한은 이 컨베이어로 옮긴 버력과 박토(노천 채광시 광물을 덮고 있는 흙이나 암석을 거뒀던 것)를 이용해 금산포 앞바다에 있는 능금도와 응도를 거쳐 쥐섬을 향해 방조제를 건설해 수십만ha의 새 땅을 간척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국제적십자사연맹 재해대책 전수받음(8/10, 연합)

- 북한 적십자사가 올 상반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으로부터 자연재해나 비상사태 대응 방안을 전수했다고 IFRC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소개
- 북한 적십자사는 2007년 IFRC의 동아시아지역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재난방지(CBDP)'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적십자사를 방문했고, 2008년 5월에는 중국 적십자사가 북한을 방문

■ 김정일, 선진 과학기술 적극 수용 강조(2008년 2호, 정치법률연구)

- 북한의 계간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2008년 2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외의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고 전언,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연구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연구한다고 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연구한 과학기술을 자체로 다시 연구하느라 10년, 20년씩 머물거리다가는 오히려 과학기술이 뒤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
- 해외의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여도 “혁명의 이익과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주장

■ 北 학술지, 범죄인 인도문제 기술(2008년 2호, 정치법률연구)

- 정치법률연구는 “범죄자 인도 요청에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조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는 범죄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 이 학술지는 범인이 자국 국적자이거나 범행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을 때, 또 정치범인 경우에도 범인의 외국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
- 특히 정치범 문제와 관련, 학술지는 정치범을 정치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받았거나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경우, 특정한 정치 및 종교조직에 가입해 인도시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오늘 국제사회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치범) 비호권은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외국인 망명자를 보호해 주는 국가의 합법적 권리로, 비호권 행사에서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

■ 올림픽 개막식 주요장면 녹화방영(8/9,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TV는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의 주요 장면을 하루만인 9일 녹화 방영
- 조선중앙방송도 9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 사실을 보도하고 이번 대회가 24일까지 계속되며 육상, 축구, 권투 등 28개 종목에 302개 세부 경기들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각지의 체육관과 경기장에서 진행된다고 소개

■ 청소년 민족체육대회 폐막(8/8, 조선중앙통신)

- 전국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체육유희경기대회가 8일 평양의 모란봉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번 대회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태권도, 씨름, 그네뛰기 등의 종목을 겨뤄 황해남도 와 평안북도가 종합 1위를 차지

■ 北집단체조, '아리랑' 에 부각된 '영변' (8/8, 조선신보)

- 8월 4일 공연을 시작한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제사회에서 핵시설로 유명한 영변을 별도의 장면으로 다루면서 비단생산지로 크게 부각
- 신문에 따르면 작년까지의 아리랑에는 영변처녀들의 비단짜는 모습을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담은 2장 6경 '더높이 더빨리' 에 일부 체조동작으로서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에는 2장 안에서 독자적인 장면으로 분리해 다룸.

■ 北청소년, 수영 열기 '후끈' (8/8, 조선신보)

- 북한 전역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수영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7, 8월 해양체육월간' 을 맞아 북한당국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영보급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평양의 창광원과 반월도수영장을 비롯한 각 지방의 소·중학교나 대학 수영장, 바다가, 강·하천 등이 온통 수영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음.

■ 평양서 궤도전차 전복, 학생 400명 부상(8/8, 데일리NK)

- 북한 평양에서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연습을 위해 이동하던 학생들을 태운 궤도전차가 전복돼 400여명이 부상했다고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가 8일 보도
- 이 매체는 '평양의 소식통' 을 인용, "지난 7월 20일 낙랑구역 선교구역 방향에서 전차 4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아리랑 연습에 참가하려던 학생 40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이중 60여명은 부상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도

■ 北개성 등 황해도 침수피해 심각(8/5, 연합)

- 개성시를 비롯해 황해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7월 24일 폭우로 1천800ha가량의 논밭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수해를 입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5일 소식지가 보도
- 소식지는 개성시내 도로와 철도가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심하게 파손됐으며 인근 농장의 가축이 떠내려가기도 했다면서 당일 밤 거리에는 차량이 돌아나디며 긴급 대피 방송을 했다고 보도, 특히 "개성시에 주둔하는 2군단 군인들은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독을 다시 쌓는 작업을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불어나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소식지는 말하고 "당시 지휘관들이 즉각 군대를 철수시켜 아파트로 대피시킬 정도로 폭우가 무섭게 쏟아졌다"고 덧붙임.

■ 방북자들, 평양도 물가폭(8/5, 연합)

- 북한의 대표 도시 평양도 외국인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른 것 같다고 최근 방북했던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전언, 이들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특성상 북한의 일반 주민보다는 대남사업 부서의 관계자나 호텔·식당 종업원 등 '특수 계층'을 만나기 때문에 평양의 일반적인 물가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물가가 오른 것 같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임.

■ 北, 여성·출산건강 5개년계획 추진 중(2008년 8월호, 조국)

- 북한의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가 여성 건강 및 출산관련 문제의 해결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5~09년 전략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조국 8월호에 따르면 이 5개년 계획은 '봉사에로'라는 명칭을 가졌으며, 이 구호는 '봉(봉사 문제), 사(사춘기 문제), 예(에이즈 문제), 르(류(유)산문제), ㄱ(옹호활동 문제)'의 5개 글자와 자모를 조합한 것이라고 알려짐.
- 북한의 가족계획협회는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사무소의 기술지원을 받아 "재생산(출산) 건강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작성

■ 北, '아리랑' 공연 대내외에 적극 선전(8/5, 조선중앙방송; 8/4, 조선중앙통신; 8/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4일 시작한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대내외에 적극 선전
- 조선중앙방송은 5일 아침뉴스를 통해 아리랑의 개막 공연 소식을 전하며 “인류문화예술의 귀중한 재보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모여 온 수만명의 각 계층 근로자들로 차고 넘쳤다”고 소개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밤 “출연자들은 우아한 음악무용과 기백 넘친 집단체조, 특대형 영사막과 배경대, 화려한 전광장치와 레이저 조명 등으로 거대한 입체적 공간에 황홀한 예술의 신비경을 펼쳐놓았다”고 전언
- 북한은 또 평양에 상주하는 미국 AP통신의 TV영상뉴스 공급 자회사 'APTN' 이 4일 평양에서 공연 실황을 편집해 외부로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北, '세계 모유수유주간' 행사 개최(8/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세계 어머니젖먹이기(모유수유)주간(8.1~7)' 을 맞아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시 보건간부와 북한 주재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행사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여학생, 중국어 세계대회 우승(8/4, 조선중앙방송)

- 북한 평양외국어대학의 외국어학원 6학년 최혜영·최지혜 학생이 7월 15~30일 중국 지난(濟南)시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중학생(중·고교생) 중어경연' 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

■ 北함남·황남에 美지원 밀 분배(제 호, 오늘의 북한소식; 8/4, 연합)

-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일부 지역에서 미국이 지원한 밀과 옥수수가 분배되기 시작해 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이 '위기' 를 넘기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4일 보도

■ 北보건성, 말라리아 최근 재발(8/4, 조선신보)

- 북한 보건성의 리봉훈 부상이 “조선(북한)에서 오래 전에 없어졌던 말라리아가 다시 발생했다”고 발표, 리 부상은 7월 30일 평양에서 처음 열린 '세

계 말라리아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근 주변나라들에서 말라리아 발생자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같이 말하고 “화학예방법을 비롯한 각종 예방수단을 총동원해 말라리아를 결정적으로 퇴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정부, 6자 합의 대북 에너지설비 전달(8/8, 통일부)

- 통일부는 8일 “지난해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서 합의된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중 일부를 최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발표
- 이번에 제공된 물량은 환강 600t과 박강판 80t으로, 정부는 8월 2~6일 북한 평양과 남포에 공무원 3명을 파견해 이들 물자를 인도
 - ※ 정부는 한국 지원분(중유 20만t 상당) 가운데 이번에 전달된 자재를 포함, 현재까지 중유 12만4천t에 해당하는 물자를 지원

나. 북·미 관계

■ 北, 美 연합공군훈련에 한국 참가 비난(8/10, 우리민족끼리; 8/9, 통일신보)

- 북한 언론매체는 남한 공군이 미국 네바다주의 벨리스공군기지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 훈련(8.9~23)에 16년만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관계 악화를 노린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논평에서 “파탄에 직면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위한 분위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남한이 미국 현지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
- 통일신보도 9일 레드 플래그 훈련이 “조선반도 유사시를 겨냥한 전쟁연습”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남관계가 과거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

■ 北,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멸된 조직… 美는 악용말라(8/8,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 판문점 대표부는 8일 발표한 상보(詳報)에서 “미군 측은 저들의 (남한 내) 무력증강과 정전협정 위반행위들이 폭로되게 되자 1956년 6월 9일 자기 측 지역에 있던 중립국 시찰소조를 강제로 추방했고 19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는 정전협정 제13항목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공식선언했다”며 “결국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됐다”고 주장
- 대표부는 “이런 미국이 오늘에 와서 전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스웨덴 성원을 판문점에 그대로 붙들어두고 그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사람들을 기만하는 유치한 연극을 벌이고 있다”며 미군이 이들을 동원해 화요일마다 판문점에서 회의를 갖고 군사분계선 상에서 편지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 대표부는 이어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

■ 北, 美, 6·25전쟁 민간인 학살 사죄 주장(8/8,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8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은 조선전쟁(6.25전쟁) 시기 감행한 민간인 대학살 만행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또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침략자들을 ‘혈맹’ 으로, ‘우방’ 으로 받들면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송두리째 섬겨 바치고 있다”고 비난

■ 北, 美BGN 지명 표기오류 비난(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으로 표기한 데 이어 백두산과 천지를 중국령으로 표기한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은 ‘무식한 자들의 어리석은 망동’ 제목의 논평에서 “지명표기는 예로부터 국제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기관들이 지명들을 제멋대로

쓰고 있는 데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분쟁을 조성해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어리석은 타산이 깔려있다”고 언급

■ 北, 미국 인권특사 개성방문 거부(8/7, 통일부)

- 북한이 다음주 방한하는 제이 레프코위츠(Lefkowitz) 미국 대북 인권특사의 방북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발표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최근 레프코위츠 특사가 방한기간인 8월 1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7월 28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초청장 발급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특사의 방문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절했다”고 언급
- 북한은 거부 사유에 대해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이 적합하지 않다”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北 “美식량 배 도착했다” 첫 보도(8/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미국이 기증하는 식량을 실은 두번째 배가 4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간략히 보도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 가운데 1차분 첫 항차인 밀 3만7천t은 지난 6월 29일 남포항을 시작으로 함경남도 흥남항과 함경북도 청진항에 분산 입항했으며, 이번에 도착한 1차분 2번째 항차는 옥수수 2만3천t으로 이뤄졌음.

다. 북·중 관계

■ 中, 北과 접한 백두산 남쪽 정식 개방(8/10, 창바이산(長白山)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중국이 백두산 등산로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접하고 있는 남쪽 등산로를 정식 개방한 것으로 확인, 10일 중국 지린(吉林)성 산하 창바이산(長白山)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관리위는 8월 6일 백두산 남쪽 산문에서 등산로 정식 개방 행사를 가졌음.
- 남쪽 등산로는 중국에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북, 서, 남 3개 등산로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접한 관광코스, 지금까지 간간히 비공식적으로 관광

객의 입산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정식 개방은 이번이 처음임. 특히 백두산 남쪽 등산로는 너비 200m, 깊이 170m, 전장 20km에 달하는 압록강대협곡을 볼 수 있는 관광코스로서 중국에 있는 3개의 백두산 등산로 가운데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

■ 北김영남, 中지도부와 3차 연쇄회동(8/10, 연합)

- 북한의 지도자급 인사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9일 귀국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박 3일의 베이징(北京) 체류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등 3명의 지도부와 잇따라 회동을 갖는 바쁜 일정을 보냄.
-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 가운데 후 주석을 포함해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9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3명과 연쇄 접촉을 가진 인사는 김 상임위원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짐.

■ 中시진핑, 정세 어떻게 변하든 北과 친선(8/9,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전통적인 중,조(북) 친선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불패의 이 친선이 끊임없이 발전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9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 상임위원장과 담화에서 또 “조선 당과 정부는 중국이 중대하고 관건적인 시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줬다”면서 “조선이 이번 올림픽경기대회 개막행사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중국 정부와 인민에 대한 힘있는 지지”라고 강조

라. 북·러 관계

■ 北김영춘, 러시아와 협력 긴밀해질 것(8/8, 조선중앙방송)

-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러시아와 수교 60돌을 맞아 교류 및 상호협

력 확대를 강조했다.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8월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과 2002년 러시아 방문을 기념해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개최한 연회에 참석, “조(북)·러 외교관계 설정 60돌을 맞는 올해 쌍방의 깊은 관심과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호혜적인 협조와 교류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에서 호상(상호)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것”이라고 강조
- 이날 연회에 김 부위원장과 함께 박의춘 외무상, 박경선 노동당 부부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 방북(8/5, 조선중앙통신; 8/7, 조선중앙방송)

- 알렉세이 메르시아노프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이 5일 방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러시아 철도공사는 북한의 라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에 17억5천만 루블(미화 약 1억달러)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진항의 화물접수를 위한 컨테이너 처리장도 건설할 예정
- ※ 메르시아노프 부사장은 지난 3월에도 방북, 북한과 라진-하산간 철도 연결과 라진항 개선 사업 등을 논의하고 합의 문건을 채택
- 알렉세이 메르시아노프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이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러 두만강 국경선 협상 착수(8/6, 러시아외교부)

- 두만강(17.5km)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선 재획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6일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2008년말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 질서에 관한 새 조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실무자 회의를 열기로 합의
- 양국이 국경선 재획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 2000년 평양에서 두만강 하류 국경획정을 위한 협상을 벌인 이후 8년 만임.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85년 북한과 조(朝)-소(蘇) 국경조약을 체결했고 1990년 국경 설정 의정서에 서명
- 두만강 하구는 여름철 수위가 높을 때는 하상이 이동, 물에 잠겨 보이지 않

다가 겨울철 수위가 낮을 때는 새로운 모래밭이 드러나면서 북·러 양측이 국경의 기산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에 따라 양국은 2000~2003년 국경 공동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두만강 국경표지 유지 실태와 지형 변경에 대한 실사를 벌여 수로가 바뀌고 1990년 세워 놓았던 국경 표지도 상당수 유실된 것을 확인됨.

■ 북·러, 라진-두만강 철도임대 계약(8/7, 조선중앙방송)

- 함경북도 라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간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6일 '라진-두만강 철도임대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은 이날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라진-두만강 철도 개보수와 이달 중 라진항 컨테이너 처리장 착공식 개최에도 합의
- 평양 회담에는 북측의 김 철 철도성 부상과 러시아의 알렉세이 메르시아노프 철도공사 부사장,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임시대리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철도임대 계약은 '라선(라진·선봉) 국제짐함(컨테이너)수송 합영회사'와 북한 철도성 산하 동해철도회사 간에 이뤄졌음.
- 조선중앙방송은 회담에 앞서 양측이 라선 국제짐함수송합영회사 이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 합영회사 사장이 임명하고 회사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

마. 북·일 관계

■ 北·日 국교정상화 전 원폭피해자 원호 주장(8/8,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계성훈 서기장은 "(북·일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일본이 조선(북한)에서의 피해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문서를 전면공개하고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8.11~12, 중국 선양)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두 편의 기사를 잇따라 내고 "조선은 조일(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 측이 원자탄피해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뤄야 한다는 입

장”이라고 강조

- 신문은 북한에서 확인, 등록된 원폭 피해자 1천911명 가운데 현재 382명이 생존해 있다며 실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자료나 문서가 없어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

바. 기타 외교 관계

■ 이탈리아서 北도서미술전 개최(8/10, 평양방송)

- 이탈리아·북한문화협회가 7월 25~27일 이탈리아에서 북한 도서미술전시회를 열었다고 평양방송이 10일 보도, 이탈리아의 국제문화축제 기간에 열린 이 전시회엔 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문헌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함께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들이 소개됐다고 방송은 설명

■ 평양교예단 유럽 개막공연 매진(8/9, 미국의소리방송)

- 첫 유럽 순회공연에 나선 북한 평양교예단이 개막부터 매진사례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9일 보도
- 미국의소리방송은 8월 1일 평양교예단 개막공연이 열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립 카레극장 1천600석이 매진됐다고 50여 명의 곡예사가 고난도 동작을 선보일 때마다 객석에서 환호가 쏟아졌다고 보도, 평양교예단은 8월 암스테르담 공연(8.1~31)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9.4~28)와 뒤셀도르프(10.2~15)에서 계속 공연할 계획

■ IPC, 北에 장애인올림픽 참가 권유(8/8,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북한에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9.6~9.17) 참가를 권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스테피 클레인 IPC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
- 클레인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제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고, 올해 대회를 앞두고도 7일 현재 참가 신청서를 내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장애인들의 발전을 위해 국제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다”고 언급

※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2007년 8월 방북한 중국 장애인연합회 대표단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측은 올해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조선신보가 2007년 9월 27일 보도

■ 카스트로, 北과 관계강화 강조(8/8, 평양방송)

- 피델 카스트로 전(前)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쿠바와 북한 사이의 관계는 더욱 강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평양방송이 8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카스트로 전 의장은 8월 23일과 25일 쿠바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기고한 '두 조선'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쿠바는 현재 조선(북한) 정부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보도

■ 폴란드 수교 60주년 전시회 개막(8/7, 조선중앙통신)

- 폴란드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남포시 인민위원회와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폴란드 체육선전물 및 사진전이 6일 남포극장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이날 개막식에는 리길춘 남포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장과 로만 이바슈케비츠 폴란드 대사가 참석

3 대남정세

■ 금강산 1차 철수대상, 11일 전원 귀환(8/10, 연합)

- 북한이 금강산 1차 철수대상으로 적시한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 면회소 인원들이 11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
- 북측은 지난 3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불필요한 남측인원' 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9일 추방조치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히고 1차 철수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한 남측 당국 관계자 전원' 으로 지목, 북측이 추방대상으로 적시한 한국관광공사 직원은 2명, 금강산 면회소 관계자는 9명임. 이들 9명은 각각 현대아산 3명, 현대건설 4명, 동의건축디자인 소속 2명으로 모두 민간인이며 정부

당국자는 현재 한명도 체류하고 있지 않음.

- 관광공사는 11일 시설 관리인원 철수와 함께 면세점 물건도 빼올 예정임.
- 또 11일에는 10명 내외가 철수할 계획이며 오는 14일까지 모두 148명이 철수해 금강산에는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인원 117명 정도만 남게 될 예정

■ 북한주민 1명 서해상으로 월남(8/9, 연합)

- 북한 주민 1명이 8일 오후 9시경 경기도 김포 인근 해상을 통해 월남, 정부 소식통은 9일 “이 남성의 귀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 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北, 금강산 南당국인원 전원 추방(8/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9일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8월10일부터 실시한다”면서 “1차적인 추방은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해 남측 당국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발표
- 북한군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은 8월 3일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남측의 현장 조사 요구를 재차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9일 북한의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책임자’가 “계획대로 특별담화에 밝힌 군사적 조치들을 정식 실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측 군부”에 보냈다고 일제히 보도, 이에 따르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당국인원 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추방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발표

■ 전교조 訪北 신청, 통일부 불허(8/7, 통일부)

- 통일부는 7일 전교조가 8월 10~14일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낸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라기보다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라고 신청을 반려한 것” 언급

■ 대전코레일, 9월 30일 개성관광열차 운행(8/7, 연합)

- 코레일 대전지사는 추석을 맞은 실향민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9월 30일 당일 일정으로 개성을 다녀올 수 있는 '고려 500년 도읍지 개성기차여행' 상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

■ 현대아산, 北에 7월분 금강산 관광 대가 전달(8/7, 문화일보)

-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전까지의 7월분 금강산 관광 대가로 69만여 달러(7억여 원)를 8월 초 북한측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문화일보가 보도
- 문화일보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8월 1일 금강산 관광대가로 69만5250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 7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11일까지 금강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1만380명, 관광 대가로 1인당 평균 67달러를 지급한 셈임.

■ 유엔사, 북한군 시신 1구 8일 송환(8/7, 연합)

-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유엔군사령부가 8일 오전 11시 판문점에서 군사정전 위원회를 통해 북한군 시신 1구를 북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발표, 유엔사는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측에 시신 송환 의사를 전했고 북측은 6일 시신을 인수하겠다고는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귀환국군포로 정착 지원책 마련키로(8/6, 연합)

- 정부는 6일 제15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열고 귀환 국군포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집중 논의
- 문성묵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6일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통일부, 5일 금강산서 21명 자진철수(8/6, 통일부)

- 정부는 6일 금강산에서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추방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 "어제 금강산에서 업체 관계자 21명이 자진 철수했다"고 발표, 김호

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북측의 요구에 의한 추방은 아니다”라고 언급

- 5일 철수한 인원은 금강산 골프장 관련 사업자인 에머슨퍼시픽 직원 16명, 농협 직원 1명, 기타 협력업체 관계자 4명 등 21명임. 6일 오전 현재 금강산 지역에는 내국인 227명, 외국인 508명 등 735명이 체류 중임.

■ 전북도, 北 돼지공장 관리 양호 확인(8/4, 전라북도)

- 전라북도는 지난해 도와 시·군의 지원하에 북한 남포시에 설치한 돼지사육 농장의 관리 및 사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발표
- 전북도는 김승수 대외협력국장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유창희 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직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북한 남포시 대대리 ‘우리민족 돼지사육 농장’을 둘러보았으며 이같은 현지실태를 확인했다고 설명

8.11-8.17

8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 김정일, 군부대 시찰(8/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826부대 산하 구분대(대대급 이후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김정일은 교양실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과 침실, 식당, 콩창고, 축사를 둘러봤으며 군인들에게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선물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군부대 방문에는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 ※ 올해 들어 10일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공개시찰은 총 69회로, 군부대 방문 및 군관련 활동이 38회(55%), 경제부문 20회(29%), 외빈 접견 등 대외활동 5회(7%), 기타 6회(9%) 순

나. 정치 관련

■ 北학술지, IMF 美의 세계제패 금융도구(2008년 2호, 정치법률연구)

- 정치법률연구 2008년 2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도 오늘도 미제의 세계제패 전략을 금융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도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학술지는 ‘국제통화기금 대기차관협정의 반동적 본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는 국제통화기금을 통하여 세계 각국 특히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한 금융적 지배와 약탈을 강화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
- 학술지는 이어 IMF의 대기차관협정은 “성원(회원)국들을 재정금융적으로 지배하고 예측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됐으며 “국제통화기금은 대기차관협정을 포함하는 낡고 불공평한 법 제도들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긍정적인 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

■ 北, 美 ‘유화전략’에 경계심 강조(8/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세워 사상을 무너뜨리는 “유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계”와 “극복”을 강조, 노동신

문은 ‘유화전략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이라크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 무저항 상태에 빠뜨리고 이라크를 쉽사리 가로타고 앉았던” 미국이 “이런 수법으로 우리 공화국(북한)을 어찌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런 “유화전략은 당근과 채찍전술에 바탕을 둔 침략과 간섭전략”이고 “당근전술로 회유기만하여 이 나라들이 안일해이해지고 무경각해지면 무력 간섭과 침략을 강행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농민단체, “식량절약사업 동참” 강조(8/16, 조선중앙방송)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자력갱생” 뿐이라며 농민들을 대상으로 “식량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방송은 “농근맹 중앙위원회가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처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자기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농근맹원들을 더욱 분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나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다”고 보도
- 특히 이 단체는 “식량절약사업에 모든 농근맹원이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계획”을 세워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해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언
- ※ 농근맹은 농장원과 농업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맹원수는 13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北 “강성대국 건설 총공격전” 독려(8/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신문은 광복 63주년을 기념한 ‘위대한 수령의 조국해방 업적은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화국(북한) 창건 60돌(9.9)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드세찬 공격전을 벌여... 자랑찬 성과를 안고 승

리의 대축전장에 금지 높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

- 또 신문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할 수 있게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계속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며 전투훈련 강화, 군부대 지원 확대 등을 주장

■ 北학술지 ‘폭리·블로소득 계약’ 단속 강조(2008년 2호)

- 학술지가 개인간 계약관계에서 ‘자본주의적 요소’ 등을 철저히 척결할 것과 위법적인 거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 계약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할 데 대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별적 공민들”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해하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이며 ▲위법적인 민사거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北 “강성대국 건설 총돌격전” 촉구(8/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정권수립 60주년(9.9)이 되는 9월을 “커다란 성과”로 맞이해야 한다면서 전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전”, “공격전”을 벌일 것을 촉구
- 이어 신문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 이용해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면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며 “자력갱생”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9·9절’ 맞아 郡에서도 집단체조 공연(8/16, 조선중앙TV)

- 북한 정권 수립(9.9) 60주년을 맞아 대(大)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과 별도의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여’ 가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공연 중인 가운데 군(郡) 단위에서도 소규모 집단체조가 만들어져 공연되고 있음.
- 조선중앙TV는 16일 저녁뉴스를 통해 황해남도 연안군에서 최근 집단체조 (매스게임) ‘장군님(김정일)과 연백발’ 이 진행됐다고 보도
- ※ 북한에서 집단체조는 ‘아리랑’ 의 평양 공연 이외에도 평안남도(2005.10)

와 자강도 강계시(2007.5)에서 도 단위로 제작돼 공연한 바 있으나 군 단위에서 만들어져 공연한 것이 보도된 것은 이례적

■ 北, 황북 사리원에 주택 1천가구 건설(8/17, 평양방송)

-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1천 가구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또한 평안북도 안주시에서는 수천㎡에 2층 규모의 수영장과 이발소, 남녀 목욕탕 등의 문화시설을 갖춘 ‘은덕원’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

■ 北배구팀, 중·러와 공동 훈련(8/17, 조선신보)

- 북한 배구팀이 올해 하반기 중국, 러시아 배구팀과 공동 훈련을 하고 국제 대회에도 참가한다고 조선신보가 조용기 북한배구협회 서기장의 말을 인용해 17일 보도, 북한 여자배구팀은 8월 중 중국 랴오닝(遼寧)성 여자배구팀과, 11월에는 북한 남자배구팀이 평양에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지나모 남자배구팀과 각각 공동 훈련을 한다고 신문은 보도

■ 北, 전통 가정생활·풍습 도서 보급(8/16, 통일신보)

- 북한에서 전통적인 가정 생활과 풍습을 소개하는 ‘조선민속가정생활풍습’이라는 책이 최근 발간돼 보급되고 있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이 책은 가족의 구성, 상속 풍습, 친척의 구성과 범위, 성과 본, 족보, 혼인 풍습, 아기 출생 후 풍습, 상례와 제례 풍습, 가정 예절, 풍습의 계승발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 설, 정월대보름, 추석은 비롯해 조상 대대로 전해진 민속명절은 물론 민속 관련 토막상식과 일화, 세계 여러 나라 민족 생활풍습도 소개

■ 北, 日강점기 ‘선구자’ 여가수들 소개(8/16,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일제 강점기 신극운동단체인 ‘토월회(土月會)’ 소속 윤심덕, 리애리수, 리경설 등 여성가수들을 “현대 가요보급의 선구자”라며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소개
- 신문은 먼저 우리 나라 현대가요의 첫 여가수로 알려진 윤심덕이 1920년대 중엽 일본에 건너가 활동하다가 귀국 길에 극작가인 남편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진 사실을 소개하며, 그녀가 “죽음으로 일제에 항거했다”고 평

■ 박현숙 첫 금에 평양시민 '환희' (8/16, 조선신보; 8/12, 조선중앙TV)

- 박현숙(23)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여자역도 63kg급에서 우승해 북한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자 올림픽 메달에 목말라 하던 평양시민들은 짜릿한 '환희'를 맛봤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신보는 조선중앙TV가 12일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박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보도한 뒤 "올림픽 소식에 눈과 귀를 강구던(기울이던) 국내의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모두가 환성을 올리는 환희의 순간이었다"고 당시 표정을 소개

■ 北, 中 올림픽 기간 '아리랑' 관광 홍보(8/16,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은 8일 시작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체조 '아리랑' 관람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
- 방송은 북한의 '조선여행사'가 미국 내 관광상품 판매 대리인으로 '미주동포전국연합'의 서건일 부회장을 선정한 데 이어 미주 한인동포들을 겨냥해 '아리랑' 공연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 2~7박 일정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
- 방송은 "1인당 비용은 2박 3일 기준으로 1천달러 정도"로 "관광객들은 중국 선양에서 조선여행사 직원의 안내로 비자와 항공편을 예약한 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 북한관광 상품에는 아리랑 관람을 포함해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인민대학습당 등 평양시내와 개성, 향산, 남포를 둘러보는 일정이 들어있음.
- 서건일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아리랑 관람을 원하는 미주 한인들의 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관광비용도 싸게 책정했다"며 "여태까지 폐쇄됐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북한 사격스타 김정수, 도핑 적발(8/15, 국제올림픽위원회)

- 북한의 사격스타 김정수가 도핑에 적발돼 메달을 박탈 당했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5일 남자 50m 권총과 10m 공기권총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북한 김정수가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

■ DHL, 9월 평양국제영화제 후원(8/15, 연합)

- 북한이 9월 평양에서 개최하는 제11차 평양국제영화제를 평양에 지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택배전문기업인 DHL이 후원, DHL은 15일 벨기에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평양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pyongyanginternational filmfestival.com)를 통해 “제11회 평양국제영화제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영화제가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영화산업에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북한의 유일한 국제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제는 1987년부터 2~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데 제10차 영화제는 2006년 9월 개최, 올해 영화제는 9월 17~26일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장편, 다큐멘터리, 단편 등 부문별 작품 경합은 물론 특별영화 상영과 영화 교류를 위한 협의도 진행

■ 北쌀값 다시 오름세(제189호, 오늘의 북한소식)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때 내림세였던 북한내 쌀값이 이달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좋은벗들이 주장

- 지난 5월 kg당 4천원까지 올랐던 쌀값은 미국의 식량지원 소식이 퍼지면서 하락하기 시작해 지원 식량이 분배되자 7월 하순엔 2천300~2천400원으로까지 떨어졌으나 8월 초 다시 2천900~3천50원으로 올랐음.

■ 北에서도 ‘썬크림’ 사용 확산(8/14, 조선신보)

- 북한 평양에서 이달 초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시작된 이후 여성 출연자들 덕분에 ‘썬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특수를 맞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각 지역 공업품 상점과 직매점들에서 ‘은하수’라는 상표의 자외선 방지 크림이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출연자들에게 인기”있다고 소개

■ 北측 백두산 골짜기에 ‘만년 얼음동굴’ (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측 백두산의 일부 골짜기에 사시사철 눈과 얼음이 녹지 않는 최장 200m의 얼음동굴들이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 뉴질랜드, 北과 철새 공동조사(8/14, 자유아시아방송)

- 뉴질랜드 민간 철새연구소가 도요물떼새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공동조사 방안을 북한 당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이르면 2009년 4월 북한의 조류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 압록강 하구 철새 서식지에 대한 환경연구를 시작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국가 학위·학직 수여(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13일 과학연구와 교육사업에 적극 기여한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학직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화학공학연구소 연구사 리호경에게 '원사' 칭호가 주어졌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대학원) 지도교원 김원일, 평양건설건재대학 교원 리수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사 리행호,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 연구사 림춘렬, 중앙광물자원조사단 교관 허성권, 평양의학대학 실장 김태원, 의과학원 정신신경의학연구소 연구사 정연우 등에게는 '후보원사' 칭호가 수여됐다고 통신은 보도

■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8/13, 조선중앙통신)

- 청년절(8.28)기념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13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김중린 당 비서와 변영립 국가과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시회에는 청년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내놓은 수 백건의 정보기술(IT)제품을 비롯해 2천여 건의 발명 및 신기술 혁신 자료들이 출품됐다고 통신은 소개

■ 北금메달 박현숙은 '공훈체육인' (8/13, 연합)

- 베이징 올림픽 여자역도 63kg급에서 우승해 북한 역도 사상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겨준 박현숙(23) 선수는 남한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전도유망한 선수로 '공훈체육인' 칭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

■ 北오가산자연보호구에 수령 1,100년된 주목(8/3, 노동신문)

- 북한 자강도 화평군에 있는 오가산자연보호구에는 1천330종의 동식물 자

원이 분포돼 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12일 입수된 이 신문은 오가산자연 보호구는 아한대성과 온대성 식물분포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식물의 종 구성이 다양하다면서 이 곳에는 739종의 식물이 자라고, 39종의 산짐승, 135종의 조류, 10종의 파충류, 8종의 양서류 등이 서식한다고 보도

■ 北과학원, AI 亞形 감별법 개발(8/11, 조선중앙통신)

- 국가과학원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전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 '1~15까지의 HA아형(亞形) 감별법'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성 김 특사 방중에도 北·美 회담 무산(8/16, 연합)

-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성 김 대북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으나 북한 측 협상 파트너가 중국에 오지 않아 북미 회동이 결국 무산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성 김 특사의 방중 기간에 협상 파트너인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한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운항일인 14일을 비롯해 16일에도 리 국장을 비롯한 북한 측 인사는 오지 않음.
- 이를 두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아직까지 검증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어 북미 회담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
- 한편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인 북핵 프로그램 검증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방안을 협의

■ 北신문, 美국방전략보고서 비난(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미 국방부가 새 ‘국방전략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대화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반발, 신문은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국방전략보고서는 “국방성 내부 문제가 아니라 현 미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며 “미국이 흑심을 갖고 우리 나라와 대화를 표방하며 대 조선 적대시 압살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도 자기의 결심대로 결정권을 선택하고 나갈 것”이라고 주장

나. 북·미 관계

■ 美조지아대, 북한 식량난 해소 적극 지원(8/14, 연합)

- 미국 조지아대학(UGA)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종자개발과 농업기술의 이전 등 농업분야에서의 대북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중, 조지아대는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캇 앵글 농대학장과 대학부설 국제문제연구소(GLOBIS) 소장인 박한식 교수 등을 평양에 보내 북한 농업과학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난 2001년 조지아대 농대와 농업과학원간에 체결했던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다. 북·러 관계

■ 김영남, 러 대통령에 축전(8/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 광복 63 주년을 맞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축전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보다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

■ 러 대통령, 남북 건설적 협조발전 지지(8/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5일 광복 63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교환하고 양측 간의 관계 발전을 기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 호칭 없이 국방위원장 명의로만 보낸 축전에서 양측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면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밝혔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지역 전반의 안전과 안정 강화를 위해 조선의 북과 남 사이의 건설적인 협조발전을 지지한다”고 강조

라. 북·일 관계

■ 조총련 교육간부 대표단 방북(8/16, 평양방송)

- 송근학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조총련 초중급학교 교장대표단과 강경익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총련 교육간부 대표단이 1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日 독도영유권 지속 땀 파국사태 초래(8/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분쟁 조작 책동”을 계속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파국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 신문은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위험한 군사적 책동’ 제목의 글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들고 나와 긴장을 격화시키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재침전쟁을 일으킬 위험한 흥계를 꾸미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

■ 日 식민지배·자원약탈 배상해야(8/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지하자원 약탈에 대해 일본이 “배상”할 것을 촉구, 신문은 광복 63주년을 맞은 15일 ‘일제의 날강도적인 지하자원 약탈죄행’ 제목의 글에서 “일본의 과거역사는 침략과 약탈의 역사”라며 “범죄의 역사는 덮어버릴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다”고 강조

■ 日·北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8/14, 연합)

- 일본과 북한은 13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끝난 6자회담 실무회의에서,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가능한 한 가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

- 또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북한의 조사위원회가 재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북한이 조사의 진행 결과를 일본에 수시로 전달 하며 ▲일본이 관계자를 면담하고 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 등 3가지 방안에 합의
- 일본은 북한의 조사위원회가 발족하는 시점에 맞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 북 경제 제재 중단 ▲항공 전세기의 입국 불허와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 등 인적 왕래 규제 등 2가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

■ 북·일우호여성대표단이 방북 후 귀국(8/13, 조선중앙방송)

- 시미즈 스미코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일본부인연락회' 대표를 단장으로 한 북·일우호여성대표단이 13일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 '조사 후 日향배' 에 주목(8/13, 조선신보)

- 북한이 일본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재조사의 성공을 위해선 일본의 후 쿠다 정부가 "재조사의 귀결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조선신보가 13일 주장
- 조선신보는 "2004년에도 재조사는 있었지만 당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대 결정책을 버리고 싶지 않아 '가짜유골설' 을 꾸며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도 "조(북)일관계가 악화된 속에서 재조사의 '결과' 를 받게 되면 그 내용 여 하를 불문하고 (일본의) 반대세력들은 기승을 피우며 두 나라 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자고 할 것"이라며 주문

마. 기타 외교 관계

■ 駐쿠바 대사관 카스트로 생일축하연회 개최(8/16, 평양방송)

-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82회 생일을 맞아 8월 13일 쿠바 공산당과 외무성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축하 연회를 열었다고 평양방송이 16일 보도

■ 北총리, 베트남 재해 위로전문(8/16,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는 16일 응웬 쩌우 쩌우 베트남 총리에게 전문을 보내 북부 베트남지역의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 미래숲, 평양 숲섬 11만㎡ 임대(8/17, 연합)

-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식수운동을 벌여 온 (사)미래숲(대표 권병현)이 8월 5월 북한의 대남 경험창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와 평양 시내 숲섬의 부지 10만8천900㎡(3만3천평)를 5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됨.

■ 7월 대북 관광객 전월대비 62% 감소(8/17, 통일부)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따른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대북 관광객이 6월에 비해 6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에 따르면 7월 대북 관광객은 전달인 6월의 5만6천776명에 비해 62.2%, 2007년에 비해 19.1% 감소한 2만1천445명에 그침. 특히 금강산 관광객은 6월에 비해 77.9% 감소한 9천838명에 불과했고 개성 관광객도 6월 1만2천161명에서 4.5% 정도 줄어든 1만1천607명으로 집계됐음.
- 7월 남북간 교역액은 1억8천74만8천 달러를 기록, 2007년 7월 1억8천356만4천 달러에 비해서는 1.5% 감소하고 6월 1억4천653만8천 달러에 비해서는 23.3% 증가, 거래 유형별로 보면 개성공단 등 상업적 거래는 1억7천438만7천 달러로 2007년 7월 1억3천536만7천 달러에 비해 28.8% 증가
- 반면 대북지원과 사회문화 관련 거래 등 비상업적 거래는 636만1천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 4천819만7천 달러에 비해 86.8%가 줄어듬.

■ 북 어선 충돌, '동이1호' 거제 귀항...해상서 조사(8/15, 연합)

- 8월 12일 새벽 북한 해역에서 북측 어선과 충돌했던 남측 모래운반선 동이1호(658t)가 14일 오후 늦게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 정박, 13일 오후 6시 40

분께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남측으로 넘어온 동이 1호는 동해를 거쳐 당초 예정시간보다 4시간여 늦은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거제시 고현항 앞 해상에 닿을 내림.

■ 北, '중전 형식' 초청장 재발송(8/14, 연합)

- 북한은 최근 자신들이 남한의 방북 희망자나 단체들에 보낸 초청장의 형식과 문구가 바뀐 것에 우리 정부 당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초청 대상 측의 요청에 따라 새로 중전 형식과 문구의 초청장을 보내온 것으로 14일 확인
- 북한은 8월 들어 남한 단체에 '초청장'이라는 제목없이 '○○ 앞'이라고 단체명만 적은 문서를 보내고, 내용도 '○○을 ~에 초청하며' 라는 문구를 '○○가 ~를 방문하는 데 동의하며' 로, '방문(또는 체류) 기간 편의와 신변 안전을 보장' 한다는 문구를 '체류기간 편의를 보장' 한다고 바꿈.
- 이에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에 신변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며 북측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초청장을 받아낼 것을 권고했고, 북측은 이들 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단체에 종전 양식의 초청장을 다시 보내고 있음.

■ 北, '편의보장'에 '신변안전' 포함돼(8/13, 연합)

- 북한이 최근 남한의 방북 희망자에게 보내는 초청장에서 '초청'이라는 말 대신 '동의'라는 표현을 쓸 뿐 아니라 '편의 제공과 신변안전 보장'이 '편의 보장'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
- 이에 따라 통일부는 방북자의 신변안전을 우려, 방북승인을 신청한 민간 단체들에 방북에 앞서 북측에 팩스를 보내 '초청'으로 고치고 '신변안전 보장' 대목을 다시 넣어달라고 요청할 것을 권유하며 승인을 보류했다가 단체들의 반발과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방북을 허용

■ 北전통문, 선박 충돌은 남측 부주의에 기인(8/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남한 모래운반선과 북한 어선간 충돌사고에 관한 대남 통지문에서 "남측 모래운반선 선장이 피곤해 하는 선원들을 재우고 혼자서 배를 몰다가 앞에 있는 우리(북)측 어선을 가려보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고 사고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북한의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북측 군사 실무책임자' 명의로 된 이 통지문은 이러한 사고 경위에 대해선 “모래운반선 선원들이 일치하게 시인하였다”고 덧붙임.

■ 北, 금강산 면세점 물품 반출 불허(8/12, 통일부)

-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2일 “어제 금강산 면회소의 물품을 반출하려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반출하지 못했다”고 밝힘. 통일부 관계자는 “빼와야 하는 식료품이 900박스에 달해 전수검사를 해야한다며 북측 세관이 물품 반출을 불허했다”며 “추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반출날짜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 南北선박 동해상서 충돌…2명 실종(8/12, 연합)

- 남한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한측 어선이 12일 오전 동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사고 직후 남측 선원들이 북한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북측을 상대로 사실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
-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늘 새벽 2시 25분께 북한 장전항 동북쪽 4.9마일 해역에서 남측 모래운반선과 북측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측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은 우리 선박에 의해 구조됐고 2명은 실종상태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통신은 보도, 남측 모래운반선은 부산의 영암대불건설 소속 '동이 1호' (658t)로 장전항 일대의 모래를 적재한 뒤 거제항으로 운항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고 북측 어선은 20마력 급의 소형인 것으로 전해짐.
- 사고 당시 동이 1호에는 10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우리측 인명피해는 없었음. 사고 직후 동이1호는 곧바로 장전항으로 이동했으며 탑승 선원들은 현재 북측 당국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발표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8.18-8.24

8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매체,李大통령 UFG·인권 발언 비난(8/23, 통일신보, 8/24, 노동신문)

-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 첫날 국무회의에서 국지적 분쟁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책동”이라고 비난
- 통일신보는 ‘극도의 대결망언, 전쟁폭언’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을 “사실상 공화국에 대한 엄청난 도발이고 도저히 용납 못할 전쟁폭언”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대결기도를 드러낸 불순한 인권소동’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적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꾸며내고 그것을 여론화해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흐려놓는 동시에 북남대결을 고취하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 압살의 범죄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흉악한 야망의 발로”라고 비난

■ 北외무성, UFG때문 美검증 요구에 더 각성(8/20, 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핵문제와 관련해 들고 나오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검증’과 같은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 더더욱 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은 18일부터 남조선 전역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있다”며 “이 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으로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이 추구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북남대결 정책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

■ 北, 통일부 새정부서 '분열부' 로 변해(8/2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분열부로 변한 통일부 제목의 글에서 최근 통일부가 전교조 등의 대규모 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분열부로 변했다”고 비난
- 신문은 김 장관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다른 나라들에 ‘햇볕정책’, ‘포용정책’의 지지를 구걸하는 데 앞장” 섰다가 이명박 정부에선 “반공화국 대결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고 불신을 나타내고 “김하중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시하는 이명박의 눈에 들려고 분열부의 역을 놓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신문은 통일교육원장에 당초 거론되던 홍관희씨가 아닌 박상봉씨가 임명됐음에도 “북남대결 광신자로 소문난 홍관희란자를 통일교육원장 자리에 앉혔다”고 ‘오보’를 해 남측 정세 변화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음.

■ 北, 속에도 없는 남북대화 비난(8/19, 민주조선; 8/19 평양방송)

- 민주조선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 “평화정책”을 말한 지 3일만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
- 평양방송은 ‘조국통일 3대원칙’ 가운데 ‘평화통일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미군 철수와 남북간 군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나. 경제 관련

■ 北천연기념물, 웅진 참김 소개(8/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황해남도 웅진 앞바다에 분포돼 있는 참김은 품질이 좋고 원종 보존에도 가치가 커 북한 당국이 천연기념물(제134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음. 웅진 참김은 서해 웅진 앞바다의 파도, 룡호도, 신도 등의 주변에 분포돼 있고, 이들 바다 수역 1천200ha의 면적은 ‘웅진수산자원보호구’로 설정돼 참김 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 웅진 참김은 외화벌이용 수출 상품으로도 한몫하고 있음.

다. 군사 관련

■ 北김정각, 한·미 전쟁책동 수수방관 않을 것(8/24, 연합뉴스)

- 북한 인민군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24일 남한과 미국의 “전쟁준비”로 한반도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미 군부와 남조선 호전세력의 반공화국 전쟁책동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그는 24일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 48주년 중앙보고대회 경축보고에서 “조선반도에는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호전세력과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집요한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
- 김 제1부국장은 “우리는 전민족의 통일의지가 집대성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라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통일세력의 분열책동을 짓부수고 평화변영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는 김정일이 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기 직전인 1960년 8월25일 김일성 주석과 함께 ‘근위서울 류경수 105땅크(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8월 25일을 기념하는 행사는 2005년부터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

■ 북한군, 을지연습 철회 촉구(8/18,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평양방송)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18일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훈련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즉시 즉각 중단을 요구
-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군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했다”며 “미 군부의 새로운 전쟁 각본에 따라 감행되는 이번 합동 군사연습은 우리의 전략적 거점에 대한 미제 침략군의 중·장거리 정밀타격과 신속 기동타격의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새로운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
- 담화는 이어 “미국의 집요한 적대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전쟁억제

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며 “이것은 오늘 우리 군대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주장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뒤흔기 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있는 때에 벌어져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평양외국어학원 비결은 ‘몰입식’ (8/23, 조선신보)

- 최근 각각 중국과 러시아가 주최한 중국어 국제경연과 러시아어 국제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북한의 평양외국어대학 부속 평양외국어학원 학생들은 고교급에서 북한 최고의 외국어 엘리트들임. 이 학교 학생들은 수업은 물론 일상에서도 전공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전공어의) 100% 생활화’ 라는 몰입식 교육을 받는다고 조선신보가 23일 소개
- 평양외국어학원은 우리 식으로 하면 고교 과정에 해당, 외국어 엘리트층의 엘리트가 모인 평양외국어학원엔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를 비롯해 8개 외국어 강좌가 만들어져 있고, 학생들은 일반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음.
- 조선신보는 평양외국어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높은 언어는 “세계 공통어로 인정돼 있는 영어”이고, 그 다음이 중국어, 러시아어 순이라고 설명, 학교는 중국어와 러시아어의 ‘100% 생활화’ 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외국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고회로를 만들어낸다고 덧붙임.

■ 北, 허기 늦추는 콩국수 개발(8/23, 조선신보)

- 북한의 교육성 산하 실험기구연구소가 일반 국수에 비해 식사 후 허기가 늦게 찾아오는 새로운 콩국수를 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2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 콩국수는 콩과 옥수수를 일정 비율로 섞어 면발을 뽑은 것으로, 북한에서 끈기가 없는 콩으로 국수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는 것

■ 北, 철새 보호 대외협력 강화(8/22, 조선신보)

- 북한이 뉴질랜드 '미란다자연기금' 과 연계해 철새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벌이는 등 철새 보호를 위해 대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 지난 5월 초 뉴질랜드에서 떠난 붉은배도요새와 큰뒷부리도요새 등이 황해남도 은률과 평안남도 문덕에서 발견된 뒤, 북한의 조선자연환경보호기금과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연구사들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조사·감시활동을 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소개

■ 北, 식량난속 이상화물 계속 건립(8/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혁명사적비 ‘빛나라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불멸의 영도 자욱이여’가 함경북도 경성애자공장에 건립됐다”고 보도, 이 공장은 김 주석 부부와 김정일 위원장이 모두 각각 시찰
- 조선중앙통신은 7월 김 주석 부자와 관련된 ‘혁명 사적’ 표식비도 자강도 희천시 평원담공장을 비롯해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다고 소개. 또한 북한은 8월 들어선 자강도 고평군, 강원도 세포군, 황해남도 신원군 등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모자이크 벽화를 잇따라 건립했다고 보도

■ 재미동포 北아리랑 관광단 모집(8/22, 민족통신)

-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우리관광여행사(대표 이종찬)가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북한 집단체조 ‘아리랑’ 관광단을 모집했다고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이 보도
- 여행사의 관광 일정에 따르면 22일까지 방북 신청서를 제출한 재미동포는 중국을 경유해 9월 6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평양 시내와 고려의학병원, 룡강 온천, 서해갑문, 판문점, 묘향산 등을 둘러봄. 9월 6일까지 신청서를 내는 2차 관광단은 9월 20~27일 방북할 예정
- 여행사는 관광단 모집 대상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재미동포이며 1인당 관광경비는 미국-중국간 항공료를 제외하고 아리랑 공연 관람비 150달러와 호텔 숙박료 등을 포함해 2천250달러임.

■ 北, 전 주민 체력검정 실시(8/12, 민주조선)

- 북한이 8~9월 두달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장인 '인민체력검정'을 위해 "100% 참가, 100% 합격"을 독려, 북한의 인민체력검정은 1948년 7월 인민위원회 교육국 명령으로 공포된 이후 남자 9~60세, 여자 9~55세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태권도, 대중 율동체조, 달리기, 높이뛰기, 수영, 행군, 턱걸이, 수류탄 던지기 등 11개 종목에 대해 실시
- 민주조선은 "인민체력검정 사업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며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8~9월 인민체력검정 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모두가 합격"할 것을 촉구

■ '9·9절' 기념 대학생 IT전시회 개막(8/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정권 수립 60주년(9.9)을 기념한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전시회'가 2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김중린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진 교육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으며, 700여 건의 발명·기술 제품이 전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새 집단체조 공연 '번영하라 조국이어' (8/21,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새로 만든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어'는 북한 정권 60년 역사를 60분에 걸쳐 서사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조선신보가 소개
- 북한의 대표적인 대집단체조인 '아리랑'이 평양 룡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밤 공연'을 하기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이 집단체조가 '낮 공연'을 하고 있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집단체조가 동시에 공연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환영 경축장과 서장, 종장을 포함해 모두 6개 장과 12개 절로 구성된 이 공연은 체조대, 배경대(카드섹션), 음악 등이 어우러져 고 김일성 주석의 '혁명 업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영도"를 선전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번영하라 조국이어'는 8월 12일 평양 룡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됐으며, '아리랑'은 8월 4일 개막돼 9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

■ 北 춘궁기 농장별 20~30여명씩 사망(제194호, 오늘의 북한소식; 8/21, 연합)

- 북한의 일부 협동농장에서 4~6월 춘궁기에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등으로 농장별로 20~30여명씩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1일 주장, '오늘의 북한소식' 제194호에 실은 '2008 춘궁기 농민 아사 통계' 자료를 통해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농장에서 35명, 황북 신계군 정봉리농장과 황주군 흑고리농장에서 각각 32명과 28명, 강원 판교군 지하리농장에서 29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평양시 강서군 잠진리 농장에선 6명이 '폴독'으로 사망했다고 보도

■ 北, 첫 '축산사전' 발간(8/21, 조선신보)

- 농업출판사가 축산관련 용어들을 총정리한 '축산사전'을 북한에서 처음 발간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사전에는 "집짐승 사양관리, 먹이의 특성과 생산 및 가공, 품종과 번식, 축산기계와 축산경영 등 각 분야의 연 3천500여 개 올림말이 수록돼 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 이번 사전 집필에는 북한의 축산분야 원사(최고 권위자 1인에게만 수여되는 학위), 교수, 박사 등 9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축산사전'을 목표로 축산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경험들을 집대성하고 다른 나라들의 자료도 깊이 있게 연구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

■ 北도마 금메달, '자매의 힘' (8/21, 조선신보)

- 여자체조 도마에서 북한에 베이징 올림픽 2번째 금메달을 안긴 홍은정은 언니인 수정씨도 체조선수로 평양시체육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은메달을 따기도 함. 세계체조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로서 '공훈체육인' 칭호를 받은 수정씨는 베이징 올림픽에 북한 여자체조에 배정된 출전권이 2명이고 이중 도마는 1명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했음.
- 자매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고 결국 올해 6월 올림픽 출전자로 동생이 낙점, 세계선수권대회 4위였던 동생이 은메달리스트인 언니를 눌렀음.

■ 정권 60돌 맞아 평양 새단장(8/21, 평양방송; 8/17, 조선신보)

- 북한 매체들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일(9.9)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라는 평양 시내 곳곳의 거리와 건물·시설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사실을 반복해 보도
- 평양방송은 21일 평양시가 대표적인 ‘새 단장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만수대거리 개선 공사의 경우는 7월 11일 착공식 이후 “여러 사업소의 건설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수십개에 달하는 건물들의 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끝내고 골조 조립공사를 벌여 나가고 있다”고 보도
- 방송은 또 개선거리, 칠성문거리, 모란봉거리, 문수거리를 비롯한 10여개 거리의 살림집(주택)과 봉사망(상가)의 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
- 또 영광거리, 승리거리, 창광거리, 개선거리 등에서는 주택과 공공건물의 나무 창문을 산뜻한 수지창문으로 교체하고 주택 베란다에 깨끗한 미닫이창을 설치하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전골요리, 1인자 김경숙씨(8/20, 조선신보)

- 평양의 보통강변에 있는 청류관 주방장 김경숙(43)씨가 뛰어난 전골요리 솜씨로 손님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0일 소개, ‘고3급’ 요리 기술 자격과 ‘공훈요리사’ 칭호를 가진 김 주방장은 1986년부터 청류관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요리기술 개발 노력으로 전골요리 1인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

■ 좋은벗들, 北해주시, 어린이 우선 식량 배급(8/19, 연합)

- 황해남도 해주시가 식량난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초등학교 연령대 고아들의 숙식과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에 식량을 우선 공급해 해주시 주민들이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보도
- 이에 따라 해주시 초등학교는 규정량에 약간 못 미치지만 밀과 옥수수를 7대 3으로 섞은 밥을 하루 세끼 어린이들에게 배식하고 반찬으로 남새(채소)와 소금물에 배추 섞은 국을 주고 있음.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정부, 北검증안하면 에너지지원 속도조절(8/21,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핵 6자회담 산하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북핵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도 논의, 미국 측의 동의도 얻어낸 것으로 알려짐.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는 7월 12일 종료된 수석대표회의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검증체계 구축 시한과 관련, “10월말까지 에너지 지원과 불능화가 완료돼야 하는데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10월을 시한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

■ 김숙, 검증체계에 북·미 이견…인내심 필요(8/20, 연합뉴스)

-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핵 검증체계 구축과 관련,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
-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최근 미·북 간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 집중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미·북 간에 내용상의 이견이 남아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언급

나. 북·미 관계

■ 北·美 뉴욕서 핵검증 문제 협의(8/22, 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은 22일 뉴욕에서 회동,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 프로그램 검증체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임. 성 김 미국 대북협상 특사는 북한 협상파트너와의 협상에서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한 후 워싱턴 D.C.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협의는 3주전 베이징에서 북미가 북핵 프로그램 검증방안을 논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림. 앞서 성 김 특사는 8월 14일부터 베이징에서 중국의 북핵담당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지만, 북측 인사와는 만나지는 못해 별다른 소득없이 이번 주 귀국
- 미국은 특히 플루토늄 뿐만아니라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우리농 농축의 흑 등도 포괄적으로 핵검증체계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다. 북·일 관계

■ 北,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8월중 개시(8/23, 도쿄신문)

- 북한은 일본과 양국 정부 실무자 협의에서 합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재조사와 관련, 8월중 재조사를 개시할 방침임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3일 보도
- 신문은 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8월 11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瀋陽)에서 개최된 양국 실무자 협의회가 끝난 뒤 “1~2주 이내에 조사를 재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힘. 일본은 협의에서 재조사에 대해 생존하는 납치피해자를 찾아내 귀국시키는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채 “재조사를 한다”는 표현만을 한 것으로 알려짐.

■ 北, 신사참배는 군국주의 교육 공간(8/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일본의 전·현직 장관 등 고위급이 8월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재침의 길로 더욱 출달음치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비난, 신문은 “(일본) 국민들 속에 군국주의 침략사상을 불어넣는 것”이 신사참배의 배경이라며 “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의 침략역사와 야마토(大和)정신을 계승하도록 국민을 무장시키는 일종의 교육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

라. 기타 외교 관계

■ 아세안 창립 41주년 연회 개최(8/22, 조선중앙통신)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창립 41주년을 기념한 연회가 22일 평양주재

촌 하이 캄보디아 대사와 레 반 쿠 베트남 대사, 차런 와린타라삭 라오스 대사, 라히미 빈 하룬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일 부상 등이 초청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시리아 대사에 최수현 부상 임명(8/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시리아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최수현이 임명됐다”고 보도

※ 최 대사는 북한 외무성에서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으며 외무성 국장을 거쳐 1986년부터 외무성 부상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로 연설하거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와 협상에 주로 나섰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아동기금 등 유엔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

※ 북한 외무성에선 현재 박의춘 외무상, 강석주 제1부상 아래에 김창규(내부행정), 김계관(핵문제 및 대미관계), 김영일(아시아), 궁석웅(유럽), 김형준(중동·아프리카) 부상이 지역 및 분야를 분담

3 대남정세

■ 민노당·北조선사회민주당, 日규탄 공동성명(8/22, 연합)

- 민주노동당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일본은 독도 침략과 재일동포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 양당은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성불가침의 영토”라며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독도 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은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려는 야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

- 양당은 이어 “우리 두 당은 일본이 재침의 헛된 꿈을 버리고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악에 대해 성의 있게 사죄하고 배상하며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남북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中 상하이 개최(8/21, 대한축구협회)

- 한국과 북한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B조 조별리그 1차전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대한축구협회는 21일 “FIFA(국제축구연맹)와 북한 축구 협회가 9월 10일 평양으로 예정돼 있던 최종예선 1차전을 상하이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며 “국기와 국가 사용, 응원단 문제 등은 FIFA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
- 북한은 3월 한국과의 월드컵 3차 예선 평양 홈경기에 앞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FIFA기(旗)와 FIFA가(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FIFA의 중재로 상하이로 옮겨 경기를 치른 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홈 경기를 상하이에서 개최, 경기 시간 및 경기장은 추후 통보될 예정

■ 1~7월 민간서 北에 식량 4천t 지원(8/20, 통일부)

- 올해 1~7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 지원량이 4천t 규모에 이른다고 통일부가 20일 발표, 이 기간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쌀 150t, 밀가루 3천500t, 옥수수 550t임.
- 또 이 기간 정부의 기금지원액을 제외한 순수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액은 318억원으로, 2007년 같은 기간 312억보다 다소 늘었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
- 반면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2천617명으로, 2007년 같은 기간 4천450명보다 줄었음.

■ 통일부, 남북교역 절차 간소화(8/19, 통일부)

- 정부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교역 물품 반출·반입 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승인 대상 품목도 축소, 통일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역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예고
- 이에 따라 남북교역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품목 중 관세율이 낮고 위장반입 등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없는 견사, 포켓용 라이터, 무연탄 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 반출입 승인 처리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10일로, 물품 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함.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8.25-8.31

8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마음먹으면 언제든 위성발사 가능(8/31,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8/30, 통일신보)

- 평양방송은 31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1호 발사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북한)는 마음만 먹으면 목적인 실용위성을 성과적으로 임의의 시각에 쏘 올릴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주장
- 통일신보도 ‘광명성 1호’ 발사 후 10년간 “공화국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면서 “(이 기간) 자위적 전쟁억제력이 훨씬 강해졌다”고 강조

■ 노동신문, 주민 사상교육 강화 촉구(8/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사회주의의 변질”이 곧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된다며 주민 사상사업의 강화를 촉구, 신문은 논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나가야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를 강화”할 수 있다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째 잡아먹게 된다”고 주장

■ 9·9절 기념 ‘사면’ 대폭 축소(제200호, 오늘의 북한소식; 8/29, 연합)

- 북한 당국이 정권 수립 60주년(9.9)과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을 기념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사면이 당초 예상과 달리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9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00호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재판소는 당 중앙위원회 지시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사회적 범죄자들에 한해 형기를 1년정도 감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이미 작성됐던 대사령 대상자 초안은 모두 취소”돼 “실제 풀려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北, 6·15선언, 10·4선언 입장-이산가족상봉 연계(8/29,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 조선적십자회(북적) 중앙위원회는 29일 통일부가 주관한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중단시킨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가소로운 잔꾀이며 어릿광대극에 불과하다”고 비난
- 북적 중앙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내고 “더우기 엄중한 것은 남조선 당국이 이산가족들을 위로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번 행사를 우리(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극단한 반공화국 선전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미국 민주주의가 국제기준 아니다(8/2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9일 민주주의는 수출이나 수입할 수 없고 미국과 같은 특정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
- 매체는 북한식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에게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혁명의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그런 민주주의가 “선군정치에 의해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

■ 9.9절 앞두고 “총돌격” 촉구(8/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정권 수립 60주년(9.9)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모든 청년들에게 “강성대국의 높은 영마루를 향해 총돌격해 나가자”고 촉구, 신문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청년들의 영웅적 기개를 남김없이 펼치자’는 제목의 ‘청년절(8.28)’ 기념 사설에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새로운 비약의 진격로를 힘있게 열어젖혀야 한다”고 강조

■ ‘개혁·개방거부’ 김정일 발언들 소개(8/27,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대량아사가 발생하던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때 개혁·개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
-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김 위원장이 1996년 2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는 글귀가 쓰인 배경대가 사용된 집단체조 '장군님 따라 붉은 기 지키리' 를 본 후 한 간부에게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는 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이다”고 말했다며, 이는 “아무리 엄혹한 정세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변함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장군님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한 장엄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주장

나. 경제 관련

■ 식량 자급자족 강조(8/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은 식량문제 해결의 열쇠' 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식량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을 먹여살리고 경제를 안정발전시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문제”라고 언급
- 신문은 이와 함께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강화하는 것도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임.

■ '아리랑 열차' 특별 운행(8/30, 노동신문)

- 북한이 정권 수립(9.9) 60주년을 맞아 공연 중인 집단체조 '아리랑' 에 매일 수만 명이 관람하고 있으며 지방 주민들을 위한 '아리랑 열차' 가 특별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 노동신문은 아리랑 공연이 “지난해에 비해 관람 열기가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관람자 수는 매일 수만 명을 헤아린다”며 지방 주민들이 아리랑 공연 관람차 손쉽게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아리랑 열차가 올해에도 또 다시 편성돼 활발히 운행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또 외국인 관람객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영국, 덴마크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의 관람자들도 계속 찾아오고 있다”고 주장

■ 北농업성, 올해 농사 6개월치 식량도 자신 못해(제198호, 오늘의 북한소식: 8/28, 연합)

- 북한 농업성이 8월 7일 올해 농사 실패를 보고하는 회의에서 “올해 농사를 잘 해봤자 우리 나라(북한) 전체 인구의 6개월분 식량(가을 곡물 생산량

180만t)을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28일 주장

- 북한 농업성이 “올해도 날씨 조건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며 “황해남도과 강원도 등은 수해 때문에, 함경남도는 날씨가 가물어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소식지는 이러한 농업성 보고에 “올해 총력을 기울여 흥남 비료공장을 만가동해 모든 도(道)에 비료를 공급했는데, 왜 농업성에서는 큰물(홍수) 피해 대책을 사전에 못 해놓는 것이냐”, “큰물도 큰물이지만, 가물이 올 것에도 대비해서 양수설비를 갖춰놔야 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는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다고 보도

■ 北식량 매점매석 무역업자들 처형(제198호, 오늘의 북한소식: 8/28, 연합)

- 북한에서 식량을 매점매석했다가 가격이 급등한 뒤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이를 착복한 혐의로 무역회사 책임자들이 7월 비공개 처형됐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7일 보도
- ‘오늘의 북한 소식’ 제198호에서 7월 15일 함경북도 청진시 남강판매소장 리홍춘을 비롯해 무역회사 사장 3명 등 총 5명이 비공개 처형됐다고 주장하고 “리씨는 작년에 쌀을 대량으로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쌀값이 오르자 몰래 방출해 막대한 이윤을 남겼으며 이를 모두 착복했다”고 언급

■ 北, 검덕광산 시설 확장공사 완료(8/27, 조선중앙방송)

- 노무현 정부 때 남북 협력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던 북한 함남 단천시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광석 운반계통 능력확장’ 공사가 끝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북한 최대의 납·아연 생산지인 검덕광산은 26일 전승훈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열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축하문을 보내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언
- ※ 금골광산으로도 불리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납·아연 매장량은 3억t으로 추정되고, 연간 생산능력은 납 5만2천t, 아연 12만4천t으로 북한 전체 생산량의 47%를 차지

■ 北, 평양326전선공장 설비 현대화(8/26,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326전선공장이 최근 알루미늄 연속주조 공정을 자체적으로 현대화, 생산성을 2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조선신보가 26일 보도
- 북한에서 공장 현대화의 표본으로 유명한 평양326전선공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5년 11월 시찰했으며, 외국 인사들의 방북 시 주요 참관코스임.
- 평양시 평천구역에 있는 이 공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종합적인 전선생산기지로, 6개 직장(職場)에서 나전선, 에나멜동선, 절연선, 차폐선, 고무절연고무보호선, 수지전력케이블을 비롯한 각종 전력, 통신케이블과 여러 가지 전자기구 연결선을 생산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약 1천500명 정도임.

다. 군사 관련

■ 한·미, 8월 北공중정찰 180여회(8/31, 조선중앙통신)

- 국군과 주한미군이 8월 한달 북한에 대한 '공중정찰'을 180여 차례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주장, 조선중앙통신은 '군사 소식통'을 인용, 국군과 미군이 북한 지역에 대해 실시한 공중정찰이 각각 70여회와 110여회에 달한다면서 이는 북한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 야망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을지연습, 핵문제 해결에 그림자(8/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최근 종료된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 군사연습을 북한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핵문제 해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끼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6자회담의 정신에 배치"되며 그 목적이 "전쟁도발 구실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미 호전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주적 권리"라고 덧붙임.

라. 사회·문화 관련

■ 김정숙 형상화 모자이크 벽화 건립(8/31,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고(故) 김정숙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가 금강산 지구에 건립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

■ 김만유병원 심장외과 집중 지원(8월호, 금수강산)

- 북한 당국은 평양 김만유병원의 심장외과를 심장외과 연구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능한 의료일꾼들을 선발배치”하고 “값비싼 심장 수술설비들을 마련”해주는 등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금수강산 8월호가 소개

■ 봉수교회 개건 후 교인 증가(8월호, 금수강산)

- 금수강산 8월호는 평양 봉수교회가 재건축됐으며 “교회당이 개건된 후 이곳을 찾는 외국인과 해외동포, 교인들의 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 잡지는 봉수교회 소속으로 “전도사 김영순”의 말을 인용, “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 10시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기본 신앙생활인 주일 예배가 열린다”고 소개

■ 초등학교 컴퓨터·영어수업 준비완료(8/20, 조선신보)

- 북한이 9월부터 소학교(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컴퓨터와 영어 수업 준비가 끝났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북한은 2008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존 중학교(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던 컴퓨터와 영어교육을 2년 앞당겨 소학교 3학년부터 가르칠 계획

■ 北농촌, 추수대비 농기계 정비 한창(8/2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걷이 전투를 앞두고 농기계와 농기구 수리·정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며 연백평야를 비롯해 주요 곡창인 황해남도 농촌들은 부속품을 자체 확보해 트랙터 수리를 끝마쳤고 전기를 쓰지 않는 탈곡기를 수천대 제작했다고 사례를 보도

■ 올림픽 메달리스트 경기 편집방송(8/2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8일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경기장면만 따로 편집해 방송, TV는 1999년 애틀란타 대회 이후 12년간 노골드에 그친 북한에 금메달의 갈증을 풀어준 여자역도 63kg급 박현숙의 경기를 맨먼저 내보내었으며 또한 여자체조 도마에서 우승을 차지한 홍은정의 경기도 방송함.

■ 北정권수립 60주년, 상점도 '화려하게' (8/28, 조선신보)

- 평양시내 상점들이 정권 수립 60주년(9.9)을 앞두고 화려하게 변모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 조선신보는 28일 “평양시 안의 공업품, 식료품, 과일·남새(채소)상점을 비롯한 상업봉사 단위의 면모가 일신됐다”고 소개, 각 매장에서는 진열대와 매장, 창고 등의 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꿈.
- 평양시인민위원회 관계자는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상업봉사 단위에서 일제히 진행한 꾸리기 사업은 다가오는 명절(9.9절)에 즈음하여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 조선체육대학, 세계적 명수들의 산실(8/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창립 50돌을 맞는 조선체육대학, 세계적 명수들의 원종장(原種場)’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1958년 9월 1일 평양체육대학으로 창립됐다가 1980년 현재 이름으로 개칭된 이 대학은 “나라의 체육부문 지도일꾼과 체육과학 일꾼, 유능한 훈련감독들을 키워내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는 국내의 유일한 체육종합대학”이라고 설명
- 이 대학은 또 개교 이래 8천800여명의 체육교원과 체육전문가들을 길러내 이들이 각급 학교와 체육지도기관을 비롯한 체육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체육발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과거에 쿠바, 베트남, 에티오피아의 유학생들을 받아 들이는 동시에 집단체조와 축구, 배구, 탁구, 유도, 권투 등 여러 종목에서 수십개 국가에 체육고문을 파견했고,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조총련 학생 220여명에게 권투를 지도

■ 취학전 ‘재능 교육’ 열풍(8/28, 조선신보)

- 북한 전역의 유치원에서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능과 소질을 집중적

으로 개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북한의 교육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이와 관련,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6년 1월 구대홍, 김혁일 두 어린이를 직접 만나 이들의 그림 및 서예 실력을 칭찬하면서 “이 어린이들과 같이 뛰어난 수재를 훌륭한 인재로 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 신문은 ‘재능 교육’이 단지 소학교(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유치원 때 앞당겨 가르친다는 의미의 조기교육이 아니라 “유치원 시기가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서교육을 어린이들의 성장단계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

■ 北, 조총련계도 올림픽대표로 선발 방침(8/28, 조선신보)

- 북한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조총련계 체육인들도 북한 대표로 선발해 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조선신보는 베이징올림픽 북한 대표팀의 복귀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북한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대표 선발은 철저히 경기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며 “조국(북한)에서 훈련하는 선수보다 총련 선수의 기록이 더 높으면 총련 선수가 올림픽에 가는 게 우리 공화국(북한)을 위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소개

■ 정권 수립 60주년 우표 발행(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우표사에서 정권 수립 60주년(9.9)을 맞아 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5종의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힘. 우표의 윗부분에는 국장, 인공기와 ‘1948~2008’ 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소재로 하는 우표도 제작

■ 평양과 인근에 재선충병 확산(8/27, 연합뉴스)

- 북한의 평양과 인근 지역에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발생해 퍼지고 있다고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북단체 관계자가 27일 전언
- 북한 언론매체는 2007년 10월 북한 국가과학원이 곰팡이에 감염된 가지가 말라죽는 소나무류 가지마름병과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재선충병 발병 사실은 밝히지 않았음.

■ 北올림픽선수단 평양 귀환(8/26, 조선중앙통신)

- 2008베이징올림픽에 참가했던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이 26일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통신은 “중국에서 진행된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이 26일 귀국했다”면서 “이번 경기대회에서 조선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쟁취했다”고 보도

■ 북TV,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보도(8/25, 조선중앙TV)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 에너지 지원협의 제안에 무응답(8/31, 연합)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에너지 제공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7월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8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비중유 잔여분 지원에 대한 합의도 미뤄지게 됨.
- 외교 소식통은 31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당분간 계속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우리와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유 잔여분 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 개최문제를 8월 들어 수 차례 북한에 타진했지만 반응이 없다”고 언급
-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중·러 등 4개국은 북핵 비핵화 2단계인 신고·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제공키로 하면서 이 중 45만t은 중유, 나머지 50만t은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로 지원하기로 했었음.
-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중유 5만t과 중유 약 6만6천t에 상당하는 에너지관련 장비와 자재를 제공했으며 북에 주기로 합의한 물량 중 미제공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t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조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조선신보, 원상복구, 헛소리 아니다(8/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검증 문제로 북미 대립이 격화되면 “6자 구도가 마련한 비핵화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핵시설의 원상복구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의 구절은 헛소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무장해제 기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부시 정권의 말기나 다음 정권시기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조선이 미국의 위협에 대처해 핵시험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됐던 그 때의 상황이 다시 조성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현 사태개를 위해서는 대결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측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北 核불능화 작업 중단(8/26, 연합)

- 북한은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3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이던 핵 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힘. 또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성명은 “이 조치는 8월 14일 효력이 발생했고 이미 유관 측(6자 회담 참가국)들에 통지됐다”고 함.
- 성명은 “미국이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10·3) 합의 위반이므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 ※ 북한은 지금까지 전체 핵 불능화 조치 11개 중 8개를 끝냈으며, 폐연료봉 인출과 미사용 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 장치 제거 등 3개 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었음.

나. 북·중 관계

■ 北올림픽팀 中후원사, 홍보효과 만족(8/27, 자유아시아방송)

- 베이징올림픽 북한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인 ‘차이나 홍싱(鴻星) 스포츠’가 북한팀의 좋은 올림픽 성적으로 인한 자사 제품의 홍보 효과에 만족해 하면서 앞으로도 북한팀에 대한 후원을 계속할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다. 북·러 관계

■ 北, 러시아 라다 승용차 도입(8/25, 러시아의 소리방송)

- 북한이 러시아 아브토바즈사의 라다 승용차를 도입한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25일 보도, 방송은 “아브토파즈사가 조선(북)에 라다 승용차를 공급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따라 회사는 2008년에 600대의 라다-2170과 250대의 라다-4×4를 공급하게 된다”고 보도
- 한편 북한 당국은 최근 반일감정과 반남한감정 등을 감안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일제와 남한제 차량을 다른 국가의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라. 북·일 관계

■ 北, 9월 초 납치 재조사 日에 전달(8/30, 니혼게이지아이신문)

-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개시일을 9월 초순 일본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아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보도

마. 기타 외교 관계

■ 라오스 총리 방북(8/30, 조선중앙통신)

- 부아손 부파방 라오스 총리가 30일 방북, 북한 김영일 내각 총리와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부아손 총리의 방북은 2007년 11월 라오스를 방문했던 김영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쉑 솜분칸 총리실 장관과 시파행 랏사폰 농림장관, 풍사왓 부파 외무차관, 분타위 씨쑤판통 계획투자차관, 캄마니 폰쎬나 공업무역차관 등이 수행
- 공항에는 김 총리와 리용남 무역상, 리경식 농업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리용석 내각 사무국 부국장이 나와 이들을 맞이했으며, 북한 인민군 명예위병대의 환영행사도 진행
- 부아손 총리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 총리와 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양측은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협조공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리명산 무역상과 켄마니 공업무역차관이 각각 서명
 - 베트남통신은 26일 부아손 총리 일행이 9월 9일까지 북한에 머물 것으로 보도했으나 조선신보는 “부아손 총리 일행이 9월 2일까지 평양에 체류한다”고 보도
- ※ 북한과 라오스는 1974년 수교 후 경제 및 기술협조 협정(1974년), 항공협정(1992년), 무역협정(1997년) 등을 체결했으며 지난 6월에는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상이 라오스를 방문해 통반 쉐가폰 라오스 내무장관과 ‘사회안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6월에 강능수 문화상이 라오스를 방문해 ‘공동공보위원회 구성 합의서’를 조인

3 대남정세

■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용실적 극히 저조(8/30, 통일부)

- 남북관계 경색 속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대형 남북경협사업의 신규 추진이 중단되면서 지난 7월말까지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의 약 8%만 사용
-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까지 1천170억2천6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반영된 1조3천887억4천100만원의 약 8.4%에 해당
- 올해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6자회담 차원의 대북 설비지원 등 교류협력기반 영역에 483억7천800만원,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지원에 266억8천800만원, 경협·교역자금 등 각종 대출에 269억1천300만원,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96억4천900만원, 사회문화 협력사업 지원에 25억2천700만원, 인적교류 지원에 27억2천1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7천157억3천600만원, 2006년 4천709억9천500만원, 2005년 6천744억900만원, 2004년 4천762억7천300만원 등이었음.

※ 남북협력기금은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일반 정부 예산과 달리 기금으로 계속 축적

■ 10년간 새터민에 정착금 2천400억 지원(8/28, 통일부)

-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에게 지원한 정착금이 2천 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새터민들에게 지원된 정착금은 모두 2천388억3천100만원임.
-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증가에 따라 정착금 집행액도 해마다 늘어난데 이어 1998년 10억8천100만원에서 1999년 27억8천3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2000년 52억9천300만원, 2001년 129억6천100만원으로 급증세, 2002년에는 189억9천200만원, 2003년 253억7천900만원, 2004년에는 344억7천100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5년 330억1천200만원으로 주춤했으나 2006년에 다시 345억5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007년에는 421억7천700만원, 2008년에는 6월 말까지 281억7천700만원으로 집계

■ 통일부, 원정화 대북교역사실 확인(8/28, 통일부)

- 통일부는 탈북자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원정화가 냉동문어 수입 등의 대북 교역을 했던 실적이 확인됐다고 28일 발표, 통일부에 따르면 원정화가 운영한 정선무역은 2005년과 2006년 냉동문어 17만달러 어치와 5만달러 어치를 각각 북으로부터 반입했던 것으로 파악
- 원정화 사건 수사팀은 전날 그가 유선무역, 정선무역 등을 운영하면서 재중보위부와 수억원 상당의 북한 물건을 거래했으며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억1천400만원 상당의 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

■ 정부, WFP통한 대북지원 '일단유보' 가닥(8/28, 연합)

-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지원을 일단 유보하되, 추후 북한 식량사정 추이와 여론 등을 감안해 지원 여부 및 시기·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 개성공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8/26, 통일부)

- 정부는 27~29일 개성공단 건축공사장의 안전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

시한다고 통일부가 26일 발표

- 건축사협회,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개성공단 내 각 공사현장을 돌며 안전사고 대비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

■ 對北지원물자, 北, 공사 사용않고 무단 전용(8/25, 감사원)

-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가 백두산공항 활주로 보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지원한 20억원어치의 아스팔트 피치와 부자재를 북한이 무단 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이 25일 발표
- 감사원은 특히 “통일부 등은 부실 공사나 무단 전용 방지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북한 내각참사가 2006년 공개적으로 ‘지원 물자 중 남포항으로 운송되는 것은 (백두산이 아닌) 평양 순안공항 포장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언급
- 이 공사는 2005년 12월 관광공사의 현장 확인 결과, 아스팔트 함량 부족 등의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고, 통일부와 관광공사는 2006년 1월 다시 남북협력기금 43억9834만원으로 아스팔트 피치 8000t과 부자재를 사 북한에 건네짐. 그러나 2007년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조사에서 활주로 포장상태는 2005년 12월과 달라진 게 없었고, 피치 3497t 등은 활주로 공사에 사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발표, 20억1907만원 상당의 대북 지원 물자가 활주로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무단 전용된 것으로 추정됨.

〈첨부1〉 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9·19공동성명 이행의 두번째 단계 행동조치들을 규제한 10·3합의에는 우리가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우리 나라(북한)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6자나 조미(북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검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이다.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 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하여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박하였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들고나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하였던 ‘특별사찰’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는 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골자로 하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집어던지고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일방인 우리만 무장해제시키려는 강도적 요구이다.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 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우리의 핵억제력을 놓고 흥정하지는 것이 아니다.

6자회담이 지금까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농락할 수 있는 마당으로 전락한다면 그런 6자 구도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겠는가.

미국이 이번에 우리 나라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문제를 이유로 명단 삭제를 연기한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된다.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테러지원국 지칭) 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다음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첫째, 10·3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이미 유관 측들에 통지되었다.

둘째,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북한 7·8월 동향 일지

일시	내용	보도일자
07월 01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아랍에미리트 신임특명전권대사 '아브둘하흐 무함마드 알 마이냐' 신임장 접수	• 중통(7/1)
	인민보안성 대표단(단장: 주상성 인민보안성), 베트남·라오스 방문 후 귀환	• 평방(7/1)
	황해남북도 예술단 창립 60돌 기념보고회(7/1)	• 평방(7/2)
07월 0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강도 화평군 여러부문 사업 현지지도	• 중통(7/2)
	김영남 상임위원장, 퇴임 영국특명전권대사와 담화	• 중방(7/2)
	박의춘 외무상, 주북 아랍추장국 특명전권대사와 담화	• 중통(7/2)
	김영일 총리, 제29차 카리콤(카리브공동체) 정부수반회의 축전	• 중방(7/2)
	재일조선고급학교학생 조국방문단, 평양 출발	• 중방(7/2)
	라진해운대학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	• 중방(7/3)
07월 0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계우편국혁명사적지" 등 강계시 여러단위 현지지도	• 중통(7/3)
	노동계급과 직맹원, 김일성 사망 14돌 기념 '맹세모임' 진행 (김종린, 김병팔 직총위원장 참가)	• 중방(7/3)
	베네수엘라 독립절 즈음, 기념집회(백용호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참가)	• 평방(7/3)
	전국 '여명' 해설 강사들, 김정일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 개척 52돌 즈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6/27-7/3)	• 중방(7/4)
	북 농업근로자들, 김일성 사망(7/8)14돌 기념 맹세모임	• 중통(7/4)
07월 04일	중국 베이징외교인원 북무국 대표단(단장: 전홍산 국장), 평양 도착	• 중방(7/4)
07월 05일	이기하 국제태권도연맹 수석 부총재 일행 방북	• 중방(7/5)
	김일성 사망(7.8) 14돌 기념관련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	• 중방(7/5)
07월 06일		
07월 07일	김일성 사망(7.8) 14돌 즈음, 여성들과 여맹원들의 회고음악회	
	내각, '상업회의소 규정' 채택 발표	
07월 0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일성 14주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중방(7/8)
	러시아 제공 식량(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제공), 열차로 신의주 도착	• 평방(7/8)
07월 0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안북도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평북대지공장, 태천청년토끼증축장 등 현지지도	• 중통(7/9)
07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895군부대 시찰	• 중통(7/10)
	청년대표단(단장: 김철혁 청년동맹 중앙위 비서), '세계 민주청년연맹 조정이사회회의의 참가차 베네수엘라 향발	• 평방(7/10)
	러시아 국립아카데미야 '베료즈카 무용단' 방북	• 중방(7/10)
	북·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7돌 즈음 대외문화연락위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 주최 연회	• 중방(7/11)
07월 11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핀란드 대사와 담화	• 중통(7/11)
	주북 중 임시대리대사 형해명, 북·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47돌 즈음 연회 개최	• 중방(7/12)
07월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280군부대 시찰	• 중통(7/12)
	이기하 국제태권도연맹 수석부총재 및 일행 평양 출발	• 중방(7/12)
	평양학생소년예술단장(단장: 리영환 청년동맹 중앙위 비서), 중국 향발	• 중방(7/12)
	룩셈부르크 그리스도교 사회인민당 대표단 평양 도착	• 중방(7/12)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7월 13일		
07월 14일	조선중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정찬길) 평양 도착 재일조선조국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윤태길) 평양 출발	• 중방(7/14) • 중방(7/14)
07월 15일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꾼대표단(단장: 안영기 소장) 몽골 향발 북, 조국해방전쟁승리 55돌 기념우표 2종 발행	• 평방(7/15) • 중통(7/15)
07월 16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스리랑카 '카루나틸라카 아무누가마' 대사 신임장 접수 최태복 의장, 방북 룩셈부르크 그리스도교사회인민당 대표단과 담화 총련 일꾼 대표단(단장: 고덕우 부의장)방북	• 중방(7/16) • 중통(7/16) • 평방(7/16)
07월 17일	국가문헌국 대표단, 제16차 국제문헌대회(말레이시아) 참가차 평양 출발	• 중통(7/17)
07월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베료즈카 무용단 공연 관람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205군부대 관한 포종대 및 제3898신입병사훈련군부대 시찰 내각, '국경교두중합무역장관리운영규정'에 관한 결정 채택 제29차 베이징올림픽 봉화이어달리기 행사 기념 우표 발행	• 중통(7/18) • 중통(7/18) • 민주조선(7/18) • 중통(7/18)
07월 19일	박의춘 외무상,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차 평양 출발	• 중통(7/19)
07월 20일		
07월 21일	조선문화보존사, 최근 전자편집물 '대동강의 역사와 문화' 제작 발간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이집트 신임특명전권대사 '이스마일 아브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신임장 접수 조선노동당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74' 출판 박의춘 외무상(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 참가), 싱가포르 도착 제1차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전시회(7/21-29), 평양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	• 중통(7/21) • 평방(7/21) • 중방(7/21) • 중방(7/22) • 중앙TV(7/22)
07월 22일	농근맹 중앙위, 제56차 전원회의 개최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꾼 대표단(단장: 안영기 소장), 몽골 방문 후 귀국	• 중방(7/22) • 중방(7/22)
07월 23일	이인모 비전향장기수 반신동상 통일거리에 건립, 제막식 진행 직총 중앙위 제61차 전원회의 개최 조국해방전쟁승리 55돌 경축, 전국청년학생들의 응변모임 개최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예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아브둘말리끄 쉐레이만 무함마드 알무알리미' 신임장 접수	• 중방(7/23) • 중방(7/23) • 평방(7/23) • 중앙TV(7/23)
07월 24일		
07월 25일	박의춘 외무상, 베트남 하노이 도착 이탈리아-조선문화협회 주최, 조선도서, 미술전시회(7/25-27) 이탈리아 국제문화축전에서 진행	• 중방(7/25) • 중통(8/10)
07월 26일	조국해방전쟁승리 55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제74권 출판	• 중방, 평방, 중앙TV(7/26) • 중통(7/26)
07월 27일		
07월 28일	중국공산당 간부대표단(단장: 이경전 중앙당학교 상무부교장), 평양 도착	• 중방(7/28)

북한 7·8월 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7월 29일		
07월 30일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제74권 출판 “세계말리아의 날”에 즈음한 행사 개최(인민문화 궁전) 재인보조선사회과학자대표단, 주제로 잇는 일조우호대표단, 평양도착	• 중통(7/30) • 중통(7/30) • 평방(7/30)
07월 31일	조선혁명박물관 창립 60돌 기념 전국혁명사적부문 학술토론회 개최 ‘임능복합경영’ 관한 민족토론회 개최(7/29-31) 장웅 국제태권도 연맹 총재에게 북 사회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일행 평양 도착 평북 영변견직공장 창립60돌 기념보고회 개최 제9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 경연(7/31-8/2)개최	• 중통(7/31) • 중통(7/31) • 평방(7/31) • 중통(7/31) • 중통(8/1) • 중통(8/2)
08월 0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622부대 및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관하 구분대 시찰 김영남 상임위원장, 중국 공산당 간부 대표단과 담화 중국 공산당, 간부대표단 귀국 방북 중국 국방부관 ‘손영풍’ 중국 군창건 81돌 즈음 연회 개최(박재경 참가)	• 중통(8/1) • 중통(8/1) • 평방(8/1) • 중통(8/2)
08월 02일	김영대 부위원장,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담화 박의춘 외무상, 비동맹외무상회의의 참가 및 싱가포르, 베트남 순방 후 귀국	• 중방(8/2) • 중방(8/2)
08월 0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박의춘 외무상,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담화 민주조선사 대표단(단장: 홍동철 부주필) 북경 향발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8.3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고 관련특별담화 발표	• 중방(8/3) • 중통(8/3) • 중통(8/3) • 중통, 중방(8/3)
08월 0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366군부대, 제1353군부대 시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첫 공연(5월1일경기장) ‘세계 어머니 젖먹이기 주간(모유수유주간, 8/1-8) 행사 ‘새기술소식’ 5,000호 발간 기념보고회 미 기증식량 1차분 2번째 항차, 남포항 도착	• 중통(8/4) • 중통(8/4) • 중방(8/8) • 중통(8/5) • 중통(8/5)
08월 05일	여맹 중앙위 제53차 전회회의(노성실 위원장) 개최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단장: 알레세이 메르시아노브 부총사장), 평양 도착 신계고구마가공공장 완공, 조업식 진행	• 평방(8/5) • 중통(8/5) • 중방(8/6)
08월 0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891군부대 정찰중대 시찰 김정일 국방위원장, 오중흠7연대장호 조선인민군 제3701군부대 시찰 평양시 학생소년들과 러, 중등 각국 야영단 성원들의 친선모임 (김철혁 청년동맹위 비서 참석) 북·러, 라진·두만강 철도임대계약서 체결 조·일 우호여성대표단, 김정일에게 선물전달 북·폴란드 외교관계설정 60돌 즈음 남포시인미위와 폴란드대사관, 조선폴란드친선협회 공동주최 ‘폴란드 체육선전물 및 사진전시회’ (남포극장)	• 중통(8/6) • 중통(8/6) • 중통(8/6) • 중통(8/7) • 중통(8/7) • 중통(8/7)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8월 07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베이징올림픽 개막행사 참가차 중국 향발	• 중통(8/7)
	박구호 총련 부의장,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중통(8/7)
	김영남 상임위원장, 중 호금도 의례방문 및 전인대위원장 오방국과 담화	• 중방(8/8)
	주북러시아대사, 김정일 러시아 원동지역 방문 6돌 즈음 연회 개최	• 중통(8/8)
08월 0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북 함주돼지공장과 함주덕평풍덕염소목장 현지지도	• 중통(8/8)
	김영남 상임위원장, 시진핑 부주석과 담화(베이징 인민대회당)	• 중통(8/9)
08월 0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남 리원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 현지지도	• 중통(8/9)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3407군부대 관하 3대혁명붉은기 여성중대 및 제826군부대 관하 구부대 시찰	• 중통(8/9)
	김일성, 김정일 백두산밀영 현지지도 20돌 및 정일봉 명명 20돌 기념중앙보고회	• 중방(8/9)
	김영남 상임위원장,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귀국	• 중통(8/9)
	조선정부과학기술대표단(단장 백천호 국가과학원 부원장), 말레이시아 정부와 과학기술협조공동위 제2차 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	• 중통(8/9)
	박천건직공장 창립60돌 기념보고회	• 중방(8/10)
	금강산체류, 남측인원 8/10부터 전원추방 통지문 발송	• 중통, 중방, 평방(8/9)
08월 10일		
08월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669군부대 직속중대 및 제1374군부대 관하 여성중대 시찰	• 중통(8/11)
	북·일 정무간 실무회담(중국 심양)	• 조선신보(8/12)
	정권 창건 60돌 기념 전국 성악소품경연(8/11-13, 윤이상음악당)	• 중방, 평방(8/14)
08월 12일	정권 창건 60돌 기념 전국과학기술발표회(8/12-13, 3대혁명전시관)	• 중방, 평방(8/14)
08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쿠바 피델 카스트로 생일 축전	• 중방(8/13)
	김정일 노작발표 2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인민대학습당)	• 중통(8/13)
	청년절 기념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3대혁명전시관) 개막	• 중통(8/13)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레스토왕국대사 신임장 접수 및 담화	• 평방(8/13)
	주북 팔레스타인 대사, 대사관에서 연회 개최	• 중방(8/13)
08월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319군부대 시찰	• 중통(8/14)
	국제화초연구센터이사회 제1차 회의 개최	• 평방(8/14)
	주북 러 임시대리대사 '알렉산드로 마쎬고라' 조국해방 63돌 연회 개최 (대동강외교단회관)	• 중방(8/15)
08월 15일		
08월 16일		
08월 17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2호발전소 가배수로 물길공사 완공	• 중방(8/17)
	조선우표사, 김정일 선군영도 시작 48돌 기념우표 제작	• 중방(8/17)

북한 7·8월 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8월 18일	시리아 주재 북 특명전권대사 최수현 임명	• 중방(8/18)
	홍은정선수, 제29차 베이징올림픽에서 여자체조 도마경기에서 금메달 획득	• 중방(8/18)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말레이시아 '라히미 빈 하룬' 대사 신임장 접수	• 중방(8/18)
	박의춘 외무상, 주북 이집트 '이스마일 अब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대사과 담화	• 중통(8/18)
	라오스 여성동맹 대표단(단장: 씨씨이 르뎃문손) 방북	• 평방(8/18)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8/18-26) 개최(함흥)	• 중통(8/26)
08월 19일	평남, 강서돼지공자 개건공사	• 평방(8/19)
08월 20일	정권창건일(9.9) 60돌 경축 전국학생소년공전 미술 서예소조원 경연대회	• 중통(8/20)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평양 도착	• 평방(8/20)
	북 외무성대변인, UFG훈련비난 중통기자회견	• 중통(8/20)
	제16차 전국중학교 학생들의 학과 경연(8/20-25, 김정숙제1중학교)	• 중방(8/26)
08월 21일	김중린 당비서, 라오스 여성동맹대표단과 담화	• 중방(8/21)
	홍선욱(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방문차 평양 출발	• 평방(8/21)
	여행·라오스여성동맹대표단 상봉 모임	• 중방(8/22)
08월 22일	정권 창건 60돌 기념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 전시회 개최	• 중방(8/22)
08월 23일	평양국제영화화관 창립 20돌 기념 보고회(강능수 문화상 참가)	• 중방(8/24)
08월 24일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개시(60.8.25) 4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 중통(8/24)
08월 25일		
08월 26일	주북 호주대사 '피터 자슨 로워' 김영남 상임위원장 신임장 제출 및 박의춘 외무상 담화	• 평방(8/26)
	제29차 베이징올림픽 참가 대표단(단장: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귀국	• 평방(8/26)
	공업출판사,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개최(박남기 당부장 참석)	• 중방(8/27)
	조선우표사, 정권 창건 60돌 기념 우표제작	• 중방(8/27)
	김일성의 속도전청년돌격대 현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중방(8/28)
	전국농기계전시회와 기술혁신발표회(8/26-28, 황해북도 황주군)	• 중통(8/29)
08월 27일		
08월 28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세르비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미오미르 우도위츠끼' 신임장 접수	• 평방(8/28)
08월 29일	국제축구연맹감독강습 진행(국제축구연맹 파견강사 앤디 에글리 주관)	• 중통(8/29)
	독일자유민주당 출신 연방의회 의원 일행 평양 도착	• 중방(8/29)
	평양시 방송위원회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 중방(8/30)
08월 30일	김영일 총리, 라오스 수상 회담	• 중통(8/30)
	모범적 단위들에 26호 모범기대명예상을 수여할 데 대한 정령 제2838호 발표	• 중방(8/30)
08월 31일	평양교예단, 네덜란드 공연(8/3-)	• 중방(8/31)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